

오스트리아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11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5
2. 주요 산업 동향 /20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37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38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40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42
대한수입규제동향 /45
관세제도 /46
주요인증제도 /47
지적재산권 /50
통관운송 /5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54
- 외국기업 투자동향 /58
- 우리기업 투자동향 /6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61
- 진출형태별 절차 /63
- 투자입지여건 / 70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74
- 조세제도 /76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78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79
2. 물가정보 /83
3. 바이어발굴 /85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89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93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94
7. 이주정착 가이드 / 96
8. 출장가이드 /103



1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오스트리아(Austria, 獨文 Oesterreich)
위치	중부유럽 하부
면적	83,871km ² (남한 면적보다 다소 작음)
기후	대륙성 기후
수도	빈(獨文 Wien, 英文 Vienna)
인구	826만(2005년 12월, 인구 밀도= km ² 당 99명)
주요 도시	빈(165만명), 그라츠(24만명), 린츠(19만명), 잘쯔부르크(15만명), 인스부르크(12만명)
인구 증가율	연간 약 0.42% (인구노령화로 고민)
인구 구성	게르만계 88.7%, 소수민족 2%, 상주 외국인 9.3%
상주 외국인	舊 유고슬라비아인 35%, 터키인 12%, 독일인 14%
종교 구성	가톨릭 73.6%, 개신교 5.5%, 이슬람 4.2%, 무종교 12.0%, 기타 4.6%
언어	독일어
건국일	최초 건국년은 996년, 국경일 10월 26일은 1938년 독일에 강제 합병된 후 2차 세계대전을 거쳐 1950년 승전연합국의 승인을 얻어 독립을 선언한 날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대통령 Dr. Heinz Fischer (국가원수: 취임일: 2004. 7. 8., 임기 6년) 총리 Alfred Gusenbauer (실권자: 취임일: 2007. 1. 10., 임기 4년)

나. 경제지표 (2006년도, 경상가격 기준)

GDP	2,567억 유로
실질 경제성장률	3.2%
1인당 GDP	31,060 유로
GDP 구성	서비스업 65.1%, 제조업 19.4%, 건설업 7.6%, 농림광업 2.1%, 공공부문 5.8%
경제의 수출 의존도	약 35%
실업률	4.9%
소비자 물가 상승률	1.4 %
화폐단위	Euro(유럽화폐동맹 참가국)
환율	1 US 달러 = 0.6814 Euro (2007년 12월 13일 기준)
외채	321억 달러(2003년도, 2003년 이후 수치 미발표)
외환보유고	유럽중앙은행EUR 3,153억, 유럽중앙은행 보유금(외환계산에서 제외) = 4억2천만 파운드
산업구조	제조업 19.4%, 유통업 12.8%, 금융업 5.4%, 건설업 7.6%, 교통통신 7.0%
교역규모	1,037억 유로 (오스트리아 수출) 1,042억 유로(수입)
교역품	공업 설비, 자동차 부품(오스트리아 수출) 자동차, 전자/가전 제품(수입)

다. 한-오스트리아 관계 (2007년 10월 기준)

체결협정	- 조선과 오스트리아의 수교 및 무역협정(1892년) - 1965년 재수교 경제 협정으로는 무역 협정, 섬유 협정 사증 면제 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
교역 규모	- 2006년: 8억 9천만 불(對澳 수출), 7억 4천만 불 (對澳 수입) - 2007년 10월: 6억 1천만 불(對澳 수출), 7억 불(對澳 수입)
교역품	- 액정디바이스, 승용차, 휴대용전화기 (對澳 수출)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승용차, 돼지고기, 비스코스 섬유 (對澳 수입)
투자 교류 누계	- 18건 77백만 불(우리나라 진출) - 39건 32백만 불(우리나라 유치)
교민	약 300명, 체류자 약 1500명

자료원: 오스트리아 통계청(2007년 12월 13일)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 조직

1) 행정부

- 연방공화국
 - 오스트리아는 9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 공화국이다.
- 연방정부(Bundesregierung)
 -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며 큰 실권은 없다.
 - 총리를 내각수반으로 하는 내각책임제.
 - 내각은 총리 및 13명의 장관 그리고 6명의 국무상(Staatssekretaer: 차관과 장관의 중간 위치. 거의 장관급 대우)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개 외무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데, 현재는 재무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 주정부(Landesregierung)
 - 주지사(Landeshauptmann)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책임제.
 - 주정부는 연방헌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헌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법률을 제정한다.

2) 사법부

- 개요
 - 사법부는 연방에 속하며 각 주는 사법권이 없다.
 - 사법부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시하며 헌법상에 판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 일반법원의 구성
 - 구(區) 법원(Bezirksgericht): 한국지방법원 단독심에 해당하며 주로 경미한 사건을 처리 하는 법원. 이혼소송도 관할한다.
 - 1심 법원(Gerichthoefe 1.Instanz): 한국지방법원 합의부에 해당하며 보통 1명의 부장 판사를 2명의 배석 판사가 보좌. 1987년 사회노동법원이 폐쇄된 이후 사회/노동법 관련 사건의 1심도 관할하게 되었다.

- 2심 = 주(州) 법원(Landesgericht) :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
- 3심 = 최고위 법원(Oberstegerichthof) :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
- 특수 재판소
 -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shof) : 법원간의 권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간의 권한 문제, 헌법소원, 선거무효소송 등을 관할.
 - 행정재판소(Berwaltungsgerichtshof) : 지방 및 연방정부 행정 관련 소송을 관할.
- 배심원 제도
 - 형법상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가 가능한 재판의 경우.
 - 이 재판에는 8명의 배심원이 참가하여 유무죄를 가린다.
- 사형제도의 폐지
 - 1974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무기형이 가장 중한 형벌이다.

3) 입법부

□ 의회: 양원제 (Nationalrat, Bundesrat)

- 하원(나치오날-라트, Nationalrat)
 - 정원 183명의 입법부
 - 내각의 구성을 승인하거나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입법부 역할을 한다.
 - 일반 법안은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통과되며, 헌법 개정은 정족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원(분데스라트, Bundesrat)
 - 정원 64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의체적 성격의 기관.
 - 하원에 비하면 큰 실권이 없으며 각 주를 대표한다.
 - 입법권은 없으며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심의권과 거부권이 있다.
 - 상원에서 법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동 법안의 재심의를 실시하지 않으면 하원이 정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동 법률이 자동적으로 시행됨. 부연하자면 상원의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의 시행을 늦추는 기능밖에는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원에서 법률안이 거부된 경우 정치적 타협을 거쳐 법률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4) 노사정 협의체

□ 사회동반자제도(Sozialpartnerschaft)

- 오스트리아는 사회적합의주의(Neocorporatism)형태의 대표적인 국가로 자본과 노동의 연합체적 성격을 띤 국가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거리의 계급투쟁을 지양하고 자본 계급과 노동계급 그리고 정부가 연합하여 3원주의적 체제 아래 국가를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취지 아래 '사회동반자제도'라는 특수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 정치 및 경제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 사회동반자 제도의 최고기관은 평등 회의이다. 평등회의 의장은 총리이며 사측은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2명의 대표, 노측은 오스트리아 노총에서 2명의 대표를 파견하고, 정부측에서는 재무 및 경제부 장관이 참석한다. 총리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노사측 각 2명과 경제부장관, 재무부장관이 투표권을 가진다. 1966년 당시 국민당의 단독정부가 성립되었을 때 정부에서 투표권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정부측은 투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 평등회의는 비공식 기관인데 주요한 업무는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및 사회보장관련 법률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는 것이다.

나. 정치 제도

1) 대통령

6년마다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피선거권은 만 35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국민으로 오스트리아 마지막 왕조인 합스부르크 (Habsburg)가의 자손이 아닌 자가 지니며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국민이 가진다.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여야 하며 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1차 선거의 상위 1, 2위를 대상으로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상징적인 국가수반으로서 큰 실권은 없으나 정부구성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연방 하원(Nationalrat)

실질적인 입법기관으로서 매 4년 직접선거를 통해 183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된다. 피선거권은 만 22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국민이 지니며,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국민이 가진다. 선거방식은 전국구를 핵심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대선구구 방식의 지역구 선거를 가미한 형태이다. 1인2표제로 투표용지에 정당 기표란과 인물 기표란이 분리되어 있다. 즉 정당기표란에 전국구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인물기표란에 지역구위원을 선출한다. 지역구 및 전국구에 동시 공천이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전국적인 정당별 득표결과(백분율)에 따라 유효투표의 3%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선관위에서 각 정당에 의석 점유 결과를 통보하며 각 정당은 의석 점유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구 순위 및 지역구 득표율을 바탕으로 대내적으로 의석을 배분 한다. 정당이 유효득표의 3% 획득에는 실패하였지만 지역구 출마자가 5만 표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의회진출이 가능한데, 대선구구제여서 5만 표 득표는 매우 힘들다.

제1공화정의 성립(1919년)과 함께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온 탓으로 연방 하원은 지역의 이해 타산과는 다소 거리가 먼 연방정치의 장이라는 의식이 오스트리아인들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 또한 지역구선거방식 도입은 1995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구 주민들과 지역구 후보 간의 연대감이 희박하다.

3) 연방상원(Bundesrat)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의체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실제 권한은 없다. 각 주별로 대부분 매 5년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Oberoesterreich 주는 예외적으로 6년 마다 선거실시).

피선거권은 각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만 22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국민이 가지며, 선거권은 각 주별 주의회 소속의 의원이 지닌다. 의석수는 총 64석인데 각 주의 주민의 수에 따라 주별 의석수가 배당된다. 연방상원의원은 주의회 정족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됨으로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형식적인 투표를 통해 연방상원에 진출한다.

다. 정당제도 및 현황

1)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Oesterreichs)

1886년에 창당된 오스트리아 최고(最古)의 정당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독일 사민당과 함께 유럽 사민주의운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해온 관록의 정당으로 1972년 이후 최근까지 제1당의 위치를 고수하다가 2002년 총선에서 국민당에게 그 지위를 넘겨주었다가 2006년 10월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다시 제 1당으로 부상하였음. 창당 이후부터 줄곧 노동운동에 진력해 온 결과 오스트리아 노동계와 각별한 관계에 있음. 당노선은 중도좌익으로서 온건 사회개혁을 통한 복지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80년대 이후 당내 우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주류인 당내좌파도 온건좌파 세력으로서 급진좌익세력과는 관계가 없음. 전통적인 지지계층은 근로자, 퇴직한 사회복지연금 생활자, 지식인계층 등인데 최근 들어 생산직 근로자들이 이탈하고 있음.

2) 오스트리아 국민당 (Oesterreichische Volks Partei)

1938년 나치독일 점령군에 의해 강제 해산된 기독교민주당의 당원을 중심으로 1945년에 창당된 보수우익정당으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당내 주류는 중도우익노선을 추구 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농민, 자영업자, 사무직근로자 및 경영인 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면서 오스트리아 카톨릭계와 각별한 협력관계에 있음. 1972년 이후 제2당으로 전략 하였으며 자영업자들의 이탈 및 신세대 사무직 근로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등 제3당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2002년 총선에서 다시 제 1당으로 부상하였으나 2006년 총선 결과 다시 사회 민주당에게 제 1당의 자리를 넘겨주었음.

3) 오스트리아 자유당 (Freiheitliche Partei Oesterreichs)

- 1952년 결성된 무소속연합을 중심으로 창당된 정당. 구성초기부터 국수주의적 노선과 자유주의적 노선의 의원들간에 노선투쟁이 심했음.
- 19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자유주의적 노선의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였으나 1985년 이후 국수주의적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음.
- EU인권위원회는 1995년 공식문서에서 오스트리아 자유당을 인종주의 색채가 짙은 반민주 정당으로 지목하였으며, 현재 EU의회 내에서 오스트리아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어떠한 원내교섭단체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985년까지 전체 유효투표의 5-10%를 차지하는 군소정당의 위치에 있었으나 국수주의 적 선동정치가인 하이더(Haider)씨가 당수로 선출된 후 지지층이 확산되어 90년대 치루어진 총선에서는 20 - 27%의 득표율을 보이기도 하였음.

- 지지층은 생산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며 주로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불만 계층임.
- 한때 가장 인기있는 정당이었으나, 최근의 각종 지방 및 지역 자치 단체 선거에서 연이어 의석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다가 2005년 4월 내부 분열로 인하여 Strache 지지자들은 자유당에 남고, Haider 지지자들은 독립하여 오스트리아 미래당 (Bündnis Zukunft Österreich)을 창당하였음.

4) 오스트리아 미래당 (Bündnis Zukunft Österreich)

자유당 내 Haider 지지 세력들이 독립하여 2005년 4월 결성한 신생 정당

5) 녹색당(Gruene)

1985년 창당된 환경보호주의 정당. 창당 후 좌익계 환경보호주의자와 우익계 환경보호주의자 간에 노선투쟁이 심했으나 현재는 좌익계가 당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음. 1994년 우익계는 탈당하여 시민환경당(Buegliche Gruene)를 창당하였으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존립 위기에 처해 있음. 당 목표는 환경보호와 복지 국가 건설이며 일부 문제에 있어서 녹색당 노선은 오스트리아 사민당보다 좌익에 속함. 지지기반은 인텔리 계층과 학생층 등임.

오스트리아 정당의 의석 점유 현황

정당명	독어약자	상원	하원	EU의회
사회민주당	SPOE	26	68	7
국민당	OEVP	27	66	7
녹색당	GRUENE	4	21	2
자유당	FPOE	3	21	6
미래당	BZOE	2	7	-

주1: 상원은 2002년 11월, 하원은 2006년 10월 총선 이후 결과임

주2: EU의회 파견의원은 2000년 10월 선거 결과임.

라. 외교 관계

1) 기본노선

- 영세 중립국으로 연방헌법에 명시된 "항구적 중립국"이 기본 외교 노선.
- 70년대 이후 적극적 중립으로 자세전환을 시도, 국제문제중재,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UN 평화유지군 파견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신장 및 지위향상 노력.
- 외교목표로 동서군축 및 긴장완화, 남북협력, 약소국 주권 독립침해방지, 인종차별 배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중시하여 왔음.

2) 동구권과 유대 관계

- 구 동구권의 대부분은 오스트리아 황정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일원으로 유대가 강한 편임.

- 특히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 황정을 식민지 지배정권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공유하는 역사의 일부분으로 이해하여 오스트리아와 유대가 매우 강함.
- 러시아와는 전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3) 친 아랍 노선

- 70년대 크라이스키 총리(사민당 소속, 유대 혈통)는 친 아랍, 반 이스라엘 외교 노선을 추구하여 아랍계 국가들에 대한 입지가 확고함.
- 오스트리아는 PLO를 국가기구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임.
- 크라이스키 총리 이후에는 아랍 및 이스라엘과 등거리 외교 노선이 확립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4) EU가입 이후 및 2000년대 외교노선

- 1995년 EU 가입 후 역내 관계강화 역점, 인접 동구국가에 EU 창구 역할.
- EU가입 후에도 오스트리아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음.
- 1998년 7월1일-12월31일, 2006년 1월1일-6월 30일까지 순번제로 돌아오는 EU 의장국 을 맡았음.
-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의 EU 가입과 동시에 EU의 안보동맹인 WEU에는 정회원으로는 가입하지 않고 단지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음.
- EU와 EEA의 회원국으로서 유럽 통합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EU집행 기관에서 농림부 장관은 전 오스트리아 농림부 장관인 Fischler씨가 맞고 있음.

5) 외교 이슈: 유럽연합의 외교제재 조치와 해제

2000년 1월 초, 오스트리아 국민당이 국수주의 성향의 자유당과 연립 내각 구성 협상에 들어 가자 여타 EU회원국들은 불안의 눈초리로 이를 주시하게 되었으며 프랑스 대통령 시락 및 벨기에 총리를 비롯, 대부분의 EU회원국 수뇌들이 오스트리아 대통령에게 깊은 우려를 표명함.

이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 자유당 당수 하이더는 "프랑스 대통령 시락은 지금까지 모든 정책 에서 실정만 거듭한 사람"이며 "벨기에 정부는 부패의 온상"이라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격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서유럽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오스트리아 자유당과 같은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 세력의 등장을 저지하려 한다"는 나치 선전 구호와 매우 유사한 발언도 하였음.

이러한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프랑스의 시락 대통령과 벨기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가 EU 성명으로 표면화되었다. 2000년 1월 30일, 당시 EU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14개 EU 회원국의 이름으로 '만약 오스트리아

자유당 (F.P.Oe)이 오스트리아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경우 14개 회원국이 오스트리아와의 상호 평등 원칙의 외교 관계 한시적 단절 및 여타 정치적 관계를 재고하는 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EU 역사상 초유의 성명을 발표하였음.

□ 성명문 전문 번역

- 현재 EU의장국인 포르투갈은(오스트리아를 제외한) 14개국 EU회원국 이름으로 이 성명을 발표한다. 14개 EU회원국은 만약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경우, 14개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취하게 될 조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합의에 도달하였다.
- 포르투갈 수상은 오늘, 2000년1월31일 월요일, 오스트리아의 대통령 및 총리에게 동 합의 사항을 통고하였으며 포르투갈 외무부장관은 오스트리아 외무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주지하였다. 14개 EU회원국은 만약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공동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 14개 EU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참여한 오스트리아 정부에 대해 상호평등 원칙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공식 외교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상호평등원칙을 바탕으로 한 수동적인 공식 외교관계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 14개 EU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인이 어떠한 국제 기구의 직책을 맡기 위해 출마할 경우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 EU 14개국 주재 오스트리아의 대사들은(대사급 외교수준에서 격하되어) 실무자들과의 접촉만 가능하다. 포르투갈 수상과 외무부 장관은 오스트리아 측 책임자들에게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경우 외교관계에 있어서 business as usual 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6) 유럽 연합 외교제재조치 해제

국수주의적 자유당의 연립정부 참여에 두려움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오스트리아에 대해 내린 외교적 제재조치는 2000년 9월 13일 해제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연립정부 참가 이후 자유당이 국수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교적 제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나, 사실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공세에 유럽 연합이 굴복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 동안 유럽 연합이 외교적 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비토(Veto)권을 사용하여 유럽 연합의 모든 의사 결정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비토권을 계속 행사하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7) 1990년대 외교개황

□ 독일과의 협력

- 동구권 붕괴 이후 외교문제에 있어서 독일과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졌음.
- EU권에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친독일계 EU국으로 분류됨.

□ 헝가리와 협정

- 1993년,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 외교협정을 맺어 자국의 영사관이 없는 국가에 헝가리 영사관이 존재하는 경우 헝가리영사관에서 오스트리아인들에 대한 영사업무를 실시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영사관에서 헝가리인에 대한 영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유고 내전 전후의 상황

- 현재 종식된 유고 내전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 유산으로서 당시 터키 침공에 대비 전략촌에 이주시킨 슬라브계 유랑농민(세르비아계)과 황정의 동방정책에 따라 해안선에 정착한 슬라브계 어민(크로아치아계) 및 터어키 지배 시 회교로 개종한 슬라브계 농민(이슬람계)의 국수주의적 지역 분쟁임.
-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함께 친 크로아치아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대비 오스트리아의 對크로아치아 원조액은 세계 최고임.
- 1997년4월, 오스트리아 정부는 EU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약 1만여명의 구유고 연방계 피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정착금조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EU측이 난색을 표명하였음.

□ 영세 중립 포기 논의

- 1995년1월1일부 EU가입 이후 영세중립 포기 대한 논의가 오스트리아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음. 1955년 당시 소련군 철수 조건이었으며, 그 후 냉전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의 정치 경제적 생존을 보존해준 영세중립에 대해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의존감이 많아 영세중립의 급작스러운 포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움.

□ 터키와의 관계 냉각

- 1995년까지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자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1996년부터 오스트리아 정부는 긴축예산집행과 경상수지적자 대응책의 일환으로 본국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음. 오스트리아 내 많은 취업자를 가지고 있는 터키는 이를 문제 삼아 크게 반발하였으며 오스트리아와 터키의 관계가 다소 냉각 되었음.

□ 이란과의 관계

- 1997년4월, 1987년 빈에서 일어난 쿠르드(Kurd)족 거물 망명정치인 피살사건의 진상이 공개되면서 이란과 오스트리아 사이가 미묘하게 되었음. 오스트리아 녹색당이 입수하여 공개한 오스트리아 국가 보안 경찰의 극비 문서에 의하면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국가보안 경찰 측은 이란인 2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체포하려 했으나 이란측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수사를 포기하였다고 함.

마. 주요 인사**1) 대통령(상징적 국가원수)**

- Mr. Dr. Heinz Fischer

2) 총리(최고 실권자)

- Mr. Alfred Gusenbauer (사회민주당 당수)

3) 정부 각료

-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Mr. Wilhelm Molterer (국민당)
- 사회부 장관: Mr. Erwin Buchinger (사회민주당)
- 외무부 장관: Mrs. Dr. Ursula Plasnik (국민당)
- 여성부 장관: Mrs. Doris Bures (사회민주당)
- 경제/노동부 장관: Dr. Martin Bartenstein (국민당)
- 내무부 장관: Mr. Guenther Platter (국민당)
- 법무부 장관: Mrs. Maria Berger (사회민주당)
- 교육/문화/예술부 장관: Mrs. Claudia Schmied (사회민주당)
- 농림/환경부 장관: Mr. Josef Proell(국민당)
- 국방부 장관: Mr. Norbert Darabos (사회민주당)
- 교통/건설부 장관: Mr. Werner Faymann (사회민주당)
- 보건부 장관: Mrs. Andrea Kdolsky (국민당)
- 과학부 장관: Mr. Johannes Hahn
- 재무담당 국무상: Mr. Christoph Matznetter (사회민주당)
- 정무담당 국무상/총리 직속: Mrs. Heidrun Silhavy (사회민주당)
- 교통기술담당 국무상: Mrs. Christa Kranzl (사회민주당)
- 외무담당 국무상: Mr. Hans Winkler (국민당)
- 스포츠 담당 국무상: Mr. Reinhold Lopatka (국민당)
- 노동 담당 국무상: Mrs. Christine Marek (국민당)

바. 주한 주재국 기관**□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1, 교보빌딩 1913호
- 전화 : 732-9071~2 / 팩스 : 732-9486

□ 주한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1, 교보빌딩 1914호
- 전화 : 732-6649, 732-7330 / 팩스 : 732-4337
- 담당자 : Mr. Werner Somweber
- 홈페이지 : www.austriantrade.org/korea
- 이메일 : Werner.somweber@austriantrad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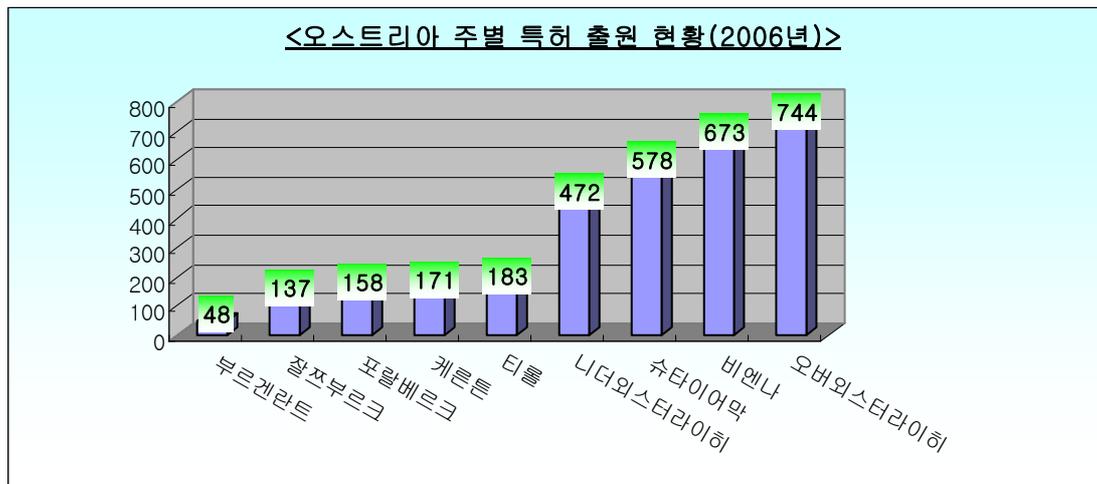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2일)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교류 확대 기대

1) 기술 개발의 선두 주자인 환경 산업

- 2006년 한해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신규 출원된 특허 가운데 절반 가량이 환경 관련 기술인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오스트리아의 환경 기술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있음.
- 오스트리아 특허청(ÖPA) 대표인 Friedrich Rödler氏가 지난 4월 12일 기자 회견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총 3,666건의 신규 특허가 출원되었는데 오스트리아인이 출원한 3,164건 중 46.1%에 해당하는 1,459건이 환경관련기술인 것으로 집계됨.
 - 전년 대비 특허 출원 건수가 182건 증가한 가운데,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특허가 중소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데서도 나타나듯 기술 개발 및 혁신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내에서 중소기업들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대표적인 산업 도시인 Linz가 소재한 오버외스터라이히주가 총 744건으로 수도 비엔나(673건)를 제치고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된 지역으로 집계되었으며, AVL List, Magna Steyr 등 자동차 관련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슈타이어막 州가 3위를 차지하였음.



오스트리아 2006년 특허 출원 기업 Top 10

순위	업체명	특허출원건수	분야
1	AVL List	94	자동차 엔진
2	Siemens Österreich	35	전기/전자
3	Fronius International	29	자동화/산업용 기기
4	Julius Blum	26	사무용 기기/가구
5	Siemens VAI	19	산업용 설비
6	Vaillant	16	난방용 설비
6	Engel Austria	16	플라스틱 생산 설비
8	Magna Steyr Fahrzeugtechnik	15	자동차
9	Voestalpine	13	철강
9	Lenzing	13	특수 섬유

자료원: 오스트리아 특허청(ÖPA)

매년 특허 출원 건수가 3,400~3,600 건으로 큰 폭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환경 기술 관련 특허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여주었음. 1996년 840건에 불과했던 환경기술 관련 특허는 985건(2001년)→1,459건(2006년)으로 매년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전년 대비 100건(7.3%) 증가한 2006년도에는 특히 재생에너지, 정수 및 하수, 폐기물 처리, 친환경 건축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남.

연구 개발(R&D)에의 활발한 투자가 이러한 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혁신을 가능케 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 분야에서 R & D에의 투자 비중은 매출액 대비 평균 5.6%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제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임. 특히 최근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왔으며,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독일, 그리스와 함께 동분야의 높은 기술 수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2) 한-오 간의 기술 협력 확대 기대

- 이처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최근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기술 협력 등을 통한 한-오 간의 교류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지난 4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오스트리아 Dr. H. Fischer 대통령은 국민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번 방한에는 환경부 장관인 Josef Pröll,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WKÖ)의장인 Dr. Christoph Leitl氏 외에 여러 명의 기업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오스트리아 경제사절대표단이 동행하였음. <환경 산업 경제사절단>이라 불릴 정도로 다수의 환경 관련 기업들로 이루어진 同 경제사절단은 ARA Altstoff Recycling, KOMPTECH Gmb H, M-U-T GmbH, SEDA Umwelttechnik GmbH, VA TECH HYDRO Gmb H 등의 업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4월 2일에 열렸던 <경제대표회의 및 무역상담회>를 통해 최신 환경 산업 관련 첨단 기술과 제품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음.
- WKÖ 의장인 Leitl氏는 금번 방한이 한-오 간의 교류가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2010년까지 한-오 간의 교역 규모가 현재 수준보다 2 배 이상 증가하여 10억 유로(수출 6억 유로)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그 중추적 역할을 환경 관련 기업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
- VA TECH HYDRO, AVL List 등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환경 관련 기업들의 경우 벌써 한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VA TECH HYDRO: 5년 전부터 경기도 시화에 10대의 발전소용 터빈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3-4년 내에 완공 예정임. 총 금액 7천만 유로 규모임.
- AVL List: 현재 한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 중으로, 2006년 말 기준 매출액 3천만 유로, 종업원 수 60명 규모임. 2007년 매출액 목표는 3천 5백만 유로임.
- 기타: 초석/질산염 설비를 공급하는 Asamer社는 4월 말 납품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고, Jenbacher(바이오가스 설비), Muth(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 등도 한국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음. 그 밖에 SEDA Umwelttechnik(친환경 폐차 처리 시스템), Senoplast(자동차 산업용 플라스틱 정제 장치) 등은 금번 방한 기간 중 접촉했었던 한국 관련업체들과의 비즈니스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3) 전망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로 꾸준한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해당 오스트리아 기업들과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 등을 통한 선진 기술 습득 및 시장 진출 노력을 기울여 볼 가치가 있는 부문임.

최근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의 국가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 및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원: 오스트리아 특허청 및 빈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2007년 12월 12일)

나. 오스트리아, 지속적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한국産 자동차 부품

1) 시장 개요

200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총 308,594대의 신규 승용차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0.22% 소폭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해마다 두 자리수 이상의 판매량 증가율을 기록해 왔던 한국산 자동차들은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그 결과 對 오스트리아 수출액도 지프형 승용차(+4.2%)를 제외한 세단형 승용차(-32.4%), 스테이션 왜건(-39.4%), 화물자동차(-76.5%)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음.

한국산 승용차 판매 현황 비교

	2006			2005	
	판매량(대)	시장점유율(%)	판매량증감(%)	판매량(대)	시장점유율(%)
현대	8,135	2.6 %	- 11.8 %	9,222	3.0 %
기아	5,874	1.9 %	+ 5.1 %	5,588	1.8 %
GM/대우	3,020	1.0 %	- 10.3 %	3,368	1.1 %
쌍용	895	0.3 %	+ 20.1 %	745	0.2 %
계	17,924	5.8 %	- 5.3 %	18,923	6.1 %

자료원: Statistik Austria

완성차 부문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반대로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産 자동차 부품의 對 오스트리아 수출 실적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 총 4.8백만 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전년 대비 163.8%나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었음. 이러한 추세는 2007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1월 한 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656.6%나 늘어난 39만 7천 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2006년의 성장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음.

한국産 자동차 부품 對 오스트리아 수출 실적 추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
금액(천 불)	357	892	1,889	1,830	4,828	397
증감(%)	-48.4	+149.7	+111.9	-3.1	+163.8	+656.6

註)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자료원: KOTIS

2) 수요 증가의 배경 및 전망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2006년 들어 갑자기 증가한 데에는 한국산 자동차의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2003년도였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은 2003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 후 2005년까지 연평균 50% 가까운 성장율을 기록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6%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음. 모델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승용차들의 부품 및 A/S용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이 구입 후 3년 이후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2006년 들어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고, 현재 한국산 자동차들의 오스트리아 시장 점유율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

오스트리아 신규 승용차 시장 한국산 승용차 판매 현황 추이

(단위: 판매량(대)/점유율(%))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현대	4,002	1.43	6,083	2.03	7,657	2.46	9,222	2.99	8,135	2.64
기아	1,583	0.57	2,619	0.87	4,368	1.40	5,588	1.81	5,874	1.90
Chevrolet/대우	740	0.26	1,252	0.42	2,513	0.81	3,368	1.09	3,020	0.98
쌍용	-	-	-	-	126	0.04	745	0.24	895	0.29
한국차 소계	6,325	2.26	9,954	3.32	14,664	4.71	18,923	6.15	17,924	5.81
오스트리아총계	279,494	100.0	300,121	100.0	311,292	100.0	307,915	100.0	308,594	100.0

(자료원: EurotaxGlass)

이 외에 중고승용차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들의 선전도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신차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약이 미미했던 중고차 시장에서, 2006년 들어 한국산 자동차들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06년 오스트리아 중고 승용차 시장에서는 총 723,149대의 승용차가 거래되어 전년대비 소폭(+0.58%)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한국산 승용차는 평균 17.42% 증가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이제는 신차 시장뿐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중고 승용차들은 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품 및 A/S용품에 대한 더 큰 수요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증가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한국산 중고 승용차 판매 현황 비교

	2006			2005	
	판매량(대)	시장점유율(%)	판매량증감(%)	판매량(대)	시장점유율(%)
현대	7,934	1.10 %	+ 19.79 %	6,623	0.92 %
기아	4,317	0.60 %	+ 11.21 %	3,882	0.54 %
Chevrolet/대우	2,935	0.41 %	+ 14.83 %	2,556	0.36 %
쌍용	484	0.07 %	+ 70.42 %	284	0.04 %
계	15,670	2.17 %	+ 17.42 %	13,345	1.86 %
오스트리아총계	723,149	100.0	+ 0.58 %	718,979	100.0

자료원: EurotaxGlass

신차 시장에서의 한국산 승용차의 지속적인 선전, 이에 따른 한국의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으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 가능성 및 향후 성장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도소매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접촉 및 제품 홍보 노력 등을 통한 인적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다만 구매의사 결정 과정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관련 한국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2일)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연도별 거시경제지표

경제 수치

지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명목 GDP (경상 EUR억)	2,208	2,262	2,358	2,451	2,567
1인당 GDP (경상EUR)	27,320	27,870	28,850	29,770	31,060
실질성장률(GDP기준) %	1.0	1.4	2.4	1.9	3.2
물가상승률 %	1.8	1.3	2.1	2.3	1.4
실업률 %	4.3	4.3	4.8	5.2	4.9
외채현황(억 불)	300.1	320.7	n.a.	n.a.	n.a.
수 출(EUR억)	774	789	898	947	1,037
수 입(EUR억)	771	810	911	965	1,042
연평균환율(1US\$=Euro)	1.058	0.8843	0.8065	0.8032	0.8000

자료원: 통계연감 2007,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발행 “월간경제” 2007년 11월호

주1: 외환보유고 및 금 보유고는 EU중앙은행 보유고만 발표되기 때문에 99년 이후 통계에서 제외

주2: 외채현황 2003년 이후 수치 미발표

오스트리아 경제 추정 및 예상 수치

(단위: %)

구분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EURO억	수출증감	수입증감
2007년	+3.4	+4.3	+1.9	-2	+10.6	+9.5
2008년	+2.4	+4.2	+2.0	+5	+7.5	+7.5

자료원 :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발행 “월간경제” 2007년 11월호

오스트리아 경제 추정 및 전망치

(단위: %)

연도	평균소비	공업생산	설비투자	실질가처분 소득	민간저축률
2007년	+ 1.9	+ 7.3	+ 6.3	+ 2.0	9.9 %
2008년	+ 2.1	+ 3.0	+ 3.7	+ 1.9	9.8 %

자료원: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발행 “월간경제” 2007년 11월호

주: 실질가처분소득은 근로자 1인당 증감률

나. 경제정책

1) 경제정책 개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산업정책 및 고용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온 국영 기업들이 최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과 경영난 등이 겹쳐 최근 들어 민영화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인프라 재정비, 경제활동 규제해소 그리고 재정적자 해소가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또한 최근 들어 외국 기업들의 오스트리아 본사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법원소송절차 간소화, 최고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국제경쟁력 강화

재산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수출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을 통한 간접적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연방상공회의소와 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통한 투자 활성화 등 직접지원의 주체는 항상 법률적으로 순수 민간 단체인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가 담당하므로 WTO나 여타 국가로부터 불공정거래라는 비난을 면하고 있다.

□ 인프라 확충 정책

인프라 확충계획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수도 비엔나와 팔츠부르크를 잇는 서부 간선 철도의 수선 및 확충 프로젝트, 오스트리아와 이태리 국경의 산악 지대에 터널을 뚫어 철도를 상호 연결하는 프로젝트 등에 현재까지 약 65억 유로가 투입되었으며, 동구권과의 교통량 증대에 대응한 도로확충 프로젝트, 수도 비엔나의 지하철 망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이 추진 되고 있다.

□ 재정적자 해소정책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1980년도에 당해 년도 국내총생산 규모의 약 26.3%에 해당하는 누적된 국가부채가 있었던 것이 13년 후인 1993년도에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규모의 50% 선을 초과하여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등장하였다. 2006년도 기준 누적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60% 수준이다. (긴축예산 집행)

오스트리아 정부는 1996년부터 대대적인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동(同) 초긴축 예산안 실행으로 다소간의 소비위축이 전망되고 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중장기 적인 거시 경제적 면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국민당/자유당 연립정부의 재정적자 해소책

2000년 2월 국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매우 강력한 재정적자 해소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노령화로 재정적자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계속 개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01년 균형재정을 이룩하였다. 2007년 하반기 기준, 긴축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다.

□ 외국기업 투자유치 정책

- 단순 투자 유치가 아닌, 본사 유치를 목적으로 한 법안 발표
 - 다국적 기업이 오스트리아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에 위치한 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업종에 무관하게 그 손실을 오스트리아 본사의 세금 정산 시 100% 반영해준다. 단 본사가 자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2005년부터 실시).
- 법원소송절차 간소화
 - 기존의 법원소송진행이 1개월만 빨라진다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7천만 유로의 부담을 덜게 된다. 비엔나 상사재판소는 1년에 약 5천 건의 상사관련 법정소송과 4천 건의 상사 파산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상사관련 법정 소송처리 소요시간은 65%가 1년 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20%는 1년에서 2년, 7%가 2년에서 3년, 8%는 3년 이상이다. 모든 소송을 가능한 한 1년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 법인세 인하
 - 오스트리아 정부는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인하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외국기업의 오스트리아 내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독일의 법인세는 25%(기업의 실조세 부담율은 38.2%)이며 최고소득세율은 51.17%, 오스트리아의 최고소득세율은 50%이다.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다. 경제 동향

1) 경제 개황

2007년도는 오스트리아 내수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이어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수입 증가로 경상 수지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수 시장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지속적인 수출의 호조세, 기계 설비 부문에서의 투자세 회복, 건설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2007년 오스트리아 실질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 다변화 정책, 특히 동유럽 진출 전략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내수 경기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실질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하였다.

2) 경제 동향

2007년 오스트리아는 지속적인 수출 호조에 힘입어 9월까지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이 같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어 최근 몇 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관광 수지를 반영하여, 오스트리아는 전년에 이어 큰 규모의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 호조와 경상 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2007년 오스트리아 실질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한 +3.4%가 예상되고 있다.

3) 교역 동향

오스트리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 기준 오스트리아의 수출은 전년 대비 9.4%, 수입은 8.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무역 호조세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교역국인 독일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동유럽 국가와의 대상 무역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이제 오스트리아의 독일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수출 다변화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서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 신장은 저조한 편이다.

라. 경제 전망

1) 개요

2007년도에 3.4%라는 경이적인 실질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스트리아 경제는 2008년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4%의 실질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상점 개점 시간의 연장, 유로 2008 개최에 따른 영향 등으로 그 동안 수출이 홀로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던 추세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내수 경제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07년 하반기에 나타난 설비 투자 및 건설 경기의 회복은 2008년도 경제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2) 2007년도 전망

2007 4/4분기 들어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11월: +3.1%), 이러한 물가상승세가 2008년에도 지속되어 2008년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2.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세는 최근 타결된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3.1 ~ 3.5%)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경기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의 변화, Euro 2008 개최에 따른 특수 효과 등이 2008년 오스트리아 내수 경기 회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3) 수입 시장 전망

지속적인 내수 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특히 지난 3년간 저조했던 내구재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한국산 승용차 수입의 정체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휴대폰, 위성 수신기 등 IT 관련 품목과 유로 2008 대회와 관련하여 대형 평면 TV 등 엔터테인먼트 가전 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의류의 경우 2005년 유럽 연합 쿼터제가 해지되면서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로 한바탕 흥역을 치렀는데 이러한 추세는 2007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범용 제품의 경우에도 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간 품질의 중간가격 제품은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연하자면 고품질 고가 제품과 저 품질 저가 제품으로 시장이 양분되고 있는 것이다.

4) 시장 진출 전략

수많은 품목에 대해 일괄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다만 유럽 연합 국가들의 경우, 처음에는 다품종 소량 주문이 많고 CE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나 제품 설명서가 해당 국가 언어로 작성된 것을 원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 공통적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정확한 시장 상황판단 및 대상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는 KOTRA 각 무역관이 개재하는 시장 정보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좀더 심층적이고 능동적인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KOTRA 본사에 관심 품목의 시장조사 대행을 신청해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할 만하다.

예를 들어 서유럽 국가 시장 진출을 원한다면, 1차적으로 약 5~10개의 국가 무역관에 시장 조사를 의뢰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선정하여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는 것이 시장 공략의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자료원: Wifo 월간 경제동향 2007년 11월호 및 Eurostat(2007년 12월 13일)

마. 정보조사 자료원

1) 서적/신문/잡지

- 오스트리아 중앙통계청 발간 통계연감 2007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자료, FDI Book
- 오스트리아 일간지: The Standard, Die Presse, Wirtschaftblatt
- 오스트리아 전문 주간 잡지: Profil, Format
- 오스트리아 전문 월간 잡지: E&W, Auto & Wirtschaft, Trend, Gewinn

2) 정부 부처 홈페이지

- 총리실 <http://www.bka.gv.at>
- 외무부 <http://www.bmaa.gv.at>
- 경제노동부 <http://www.bmwa.gv.at>
- 보건사회복지부 <http://www.bmsg.gv.at>
- 재무부 <http://www.bmf.gv.at>
- 내무부 <http://www.bmi.gv.at>
- 교통기술부 <http://www.bmvit.gv.at>
- 법무부 <http://www.bmj.gv.at>
- 국방부 <http://www.bmlv.gv.at>
- 농림환경수력부 <http://www.lebensministerium.at>
- 교육과학문화부 <http://www.bmbwk.gv.at>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http://wko.at>
- 비엔나 지방상공회의소 <http://wko.at/wien>
- 오스트리아 노총 <http://www.oegb.or.at>
- 오스트리아 관광공사 <http://www.austria-tourism.at>
-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에이전시(ABA) <http://www.aba.gv.at>

3) 기타 통계자료

- 오스트리아 중앙통계청 <http://www.statistik.at>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http://www.oenb.at>
- 기업명부 데이터뱅크 <http://www.compnet.at>
- 전시회 및 박람회 <http://www.messe.at>
- 환경기술 정보 사이트 <http://www.umwelttechnik.at>
- Wifo 경제연구소 <http://www.wifo.at>
- EU 무역 통계 사이트 Eurostat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구조의 특징

나치독일의 오스트리아 강점 당시 상당수의 유태계 기업이 몰수되어 친 나치 기업인에게 증여 되거나 국유화되었는데 나치독일 패망 후 친 나치 기업인들도 철수하여 대전 직후 오스트리아 에는 약 5,000여 개의 주인 없는 기업이 있었다고 한다.

대전 직후 구성된 사회당/국민당 임시정부는 소련이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나치독일계 기업 시설을 몰수할 것임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치독일계 대기업을 전격적으로 국유화 하였다. 이러한 국유화 정책에 따라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기업을 현재에도 국영기업이거나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주요 산업별 성장을 및 GDP 내 비중

(단위: Euro억, %)

구분	2004		2005		2006		GDP내 비중(2006년)
	규모	증감(%)	규모	증감(%)	규모	증감(%)	
농임업	39.4	-0.6	35.4	-10.1	38.7	+9.2	1.66
광업	9.7	+12.2	10.0	+3.8	11.7	+17.1	0.50
제조업	409.0	+3.3	426.6	+4.3	462.4	+8.4	19.89
에너지/상수도	49.8	+3.5	51.8	+4.0	59.5	+14.8	2.56
건설업	160.9	+2.0	166.5	+3.4	179.4	+7.8	7.72
도소매유통업	276.2	+4.8	281.7	+2.0	292.1	+3.7	12.56
숙박업	97.0	+4.4	101.2	+4.3	106.0	+4.8	4.56
교통/통신업	149.9	+0.5	148.6	-0.9	150.8	+1.5	6.49
금융보험업	113.9	+6.9	113.8	-0.1	127.2	+11.8	5.47
부동산업	374.8	+7.9	403.3	+7.6	416.1	+3.2	17.90
공공부문	123.2	+1.2	127.9	+3.9	133.2	+4.2	5.73
기타서비스업	316.2	+3.9	333.7	+5.5	347.7	+4.2	14.96
계	2,120.1	+4.1	2,200.6	+3.8	2,324.9	+5.6	100.0

註) 경상가격 기준으로 부가세, 정부보조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자료원: Statistik Austria(2007년 12월 12일)

산업 분야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차산업	2.2	2.1	1.9	2.1	2.0	2.1	1.7	1.7
- 농. 임업	1.4	2.1	1.9	2.1	2.0	2.1	1.7	1.7
2차산업	31.0	29.5	29.1	29.2	28.7	28.7	29.7	30.7
- 광업	0.3	0.3	0.3	0.3	0.3	0.3	0.4	0.5
- 제조업	20.4	19.0	18.7	19.4	19.5	19.3	19.4	19.9
- 에너지 및 상수도	2.8	2.5	2.3	2.7	2.0	2.0	2.3	2.6
- 건설업	7.5	7.7	7.8	6.8	6.9	6.9	7.6	7.7
3차산업	66.8	68.4	69.0	68.7	69.3	63.3	68.6	67.8
- 도소매 유통	13.1	12.0	11.9	11.9	11.9	11.5	12.8	12.6
- 숙박업	3.9	3.7	3.7	3.4	4.0	4.1	4.6	4.6
- 교통/통신	6.2	6.8	6.6	6.9	6.6	6.8	7.0	6.5
- 금융/보험업	7.6	6.4	5.9	6.4	6.2	6.1	5.4	5.5
- 부동산	13.7	14.4	14.6	14.4	15.9	16.2	18.0	17.9
- 기타 서비스업	12.7	12.9	12.8	13.1	12.9	13.3	15.0	15.0
- 기타 (공공부문)	9.6	12.2	13.5	12.6	11.8	5.4	5.8	5.7

자료원: Statistik Austria(2007년 12월 12일)

1) 중소기업

기계공업 및 첨단산업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오스트리아 산업구조는 국영기업이 기간산업분야를 선도하면서 원료 및 반제품을 생산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형태로서 국가가 경제적 하부구조를 기반으로 민영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 국가체제의 중핵인 사회동반자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2) 대기업과 국영기업

국영기업은 이제까지 고용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80년대 중반부터 비대한 경영구조와 방만한 경영에 따른 실책의 누적으로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정치 문제화 되었다. 90년대 초부터 국영기업의 대대적인 재편성과 민영화가 진행 중이다. 2007년 11월말 기준 오스트리아의 국영기업은 "오스트리아 산업 관리주식회사"(OelAG)를 모기업으로 하는 Holding 형태의 국영기업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계열사들의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3) 선호되는 기업의 법적 형태

국영 및 민영 대기업은 주식 회사로 조직되어 있으며 중소 기업은 대부분 유한 회사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주식회사 설립이 까다로운 점과 전통적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한국과는 달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는 법인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4) 산업의 특징

소비재 산업 보다는 투자재 산업이 전통적으로 발달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전체 수입의 약 50%가 소비재이다. (한국은 약 10-15%) 특히 기계공업과 설비산업, 환경산업 등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외에 광학기기, 유리산업 등이 유명하다.

나. 1차산업

1차 산업의 국내총생산 기여도는 1950년대에는 15%에 까지 이르렀으나, 60년대 고도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0년대에는 3% 이하로 하락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 EU 가입에 따른 EU산 저가농산물의 오스트리아 시장진출로 향후 농가 수 및 농임업의 GDP비중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6년 농임업이 GDP에서 차지한 비율은 불과 1.66%에 불과하며, 오스트리아는 내륙 국가로 어업 분야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1) 농림 및 축산업

□ 개황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임으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 국토면적의 약 17% 가 경작지이며, 25% 정도를 목초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임업과 목축업이 발달 하였으며 제지업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 농업 및 축산업 현황 및 특성

2006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 하는 비율은 약1.66%에 지나지 않았으며 고용에 기여하는 비율도 3%에 미치지 못하였다. 2006년 말 기준 약 20만호의 농축산업 가옥이 있는데, 이중 약 9만호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이며 나머지는 부업 삼아 농축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전체 농가의 약 52.6%가 호당 경지면적 1-10 ha의 소규모 농가이며, 100ha 이상의 경지면적을 소유한 대규모 농가는 2.6%에 지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는 과일을 제외한 여타 농산물을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일부 잉여 농축 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경작지역은 알프스 북부지역과 도나우강 유역 그리고 동부의 평야지역으로 곡물, 과수원, 포도밭과 목축 등이 행해지고 있으며, 산간 지역은 주로 목축과 임업이 행해지고 있다.

1995년도 1월1일부 EU가입 이전 오스트리아 농산물시장은 높은 보호무역장벽에 쌓여 있었으며 많은 오스트리아 농산물, 특히 밀 등의 곡식은 국제경쟁력이 없었다. EU가입 이후 EU권 저가 농산물의 유입에 따른 오스트리아 농가의 소득감소가 확실시되어, 오스트리아 정부는 同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고 오스트리아 농가들을 EU권에 적응시킨다는 목표 아래 2001년도 말까지 농가별로 수입감소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농업부문은 EU권 저가 농산물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 오스트리아 농축산물의 국내 및 국제시장 마케팅기법

90년대에 들어 오스트리아의 EU가입과 그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예상되면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다각도로 농축산업계 자구책을 연구해왔으며, EU가입을 2년 앞둔 1993년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마케팅회사(Agramarket Marketing Austria, 이하 AMA)를 농림부 산하 정부 투자 기관으로 설립하여 국내시장에서 EU권 국가들의 저가 농산물 침투 저지는 물론 EU권에 대한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수출정책 추진기관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AMA의 주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오스트리아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선전이며 둘째는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품질 보증 마크인 AMA마크(AMA Zeichen) 제도를 도입하여 오스트리아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이미지 선전의 경우, AMA는 미국이나 기타 유럽국가에 비하여 오스트리아 농가가 소규모 라는 점에 착안(오스트리아의 총 25만호 농가 중 56%가 1 - 10헥타의 경작지를 가진 소농 이며 100 헥타 이상의 대농은 2.6%에 불과함) 대규모 낙농업의 단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왔다.

즉, 오스트리아 농축산물은 바겐세일이 난무하는 대규모 디스카운트의 무명 제품이 아니라 소규모 고급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유명 브랜드 제품과 같다는 이미지 선전에 주력 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광우병 및 살모넬라병이 대규모 낙농업의 병폐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선전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 (Incentive)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농산물품질마크(AMA Zeichen, 이하 AMA마크)제도를 도입하였다.

AMA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농산물이 오스트리아에서 생산 되었다는 증명 이외에 AMA에서 설정한 엄격한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MA마크 이외에 무공해농산물 마크(Bio-Kontrollzeichen)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무공해 농산물 생산농가로 등록된 농가에는 수시로 검사관이 파견되어 AMA가 제정한 무공해 농산물 재배 과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AMA의 홍보 전략은 EU권 시장 공략에도 효과를 나타내어 EU 가입 이전 거의 전무 상태 이던 오스트리아 농축산물의 대 EU 수출이 신장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일 지역에 대한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홍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 지역의 경우 AMA는 독일인들이 오스트리아를 관광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알프스산맥의 자연환경을 강조하면서 "오스트리아는 고급 식품 전문점!" (Feinkost-Laden AUSTRIA)이라는 표어를 만들어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이미지 선전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와 비슷하게 소규모 농가가 많은 아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자국 농축산물 마케팅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국가적으로 대처하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농정 당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임업

□ 임업특성

- 산림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46%로 386만 ha에 이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세계 6위의 침엽수 목재 수출국으로서 대부분(85%)이 EU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산림 보호는 지방 정부, 임업자 협의회 및 수렵 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다. 지방 정부는 임업자 협의회와 수렵 단체의 조언을 얻어 산림 보호 관련 지방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 수렵단체가 산림보호에 관련하는 이유는 산림과 사냥 대상인 동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슴, 노루, 산돼지들이 너무 많이 번식한 경우에 신생 나무들이 피해를 입어 숲의 성장이 저해 받게 된다. 또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여서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면 나무순이나 껍질을 먹어서 나무에 피해를 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렵단체 회원들과 임업자들이 공동으로 겨울철에 동물사료를 준다. 그 해에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의 숫자는 수렵단체에서 임업자들의 조언을 얻어 자율적으로 조종한다.

□ 제지업 현황

오스트리아는 세계 6위의 종이/판지 수출국으로서 세계 종이 시장의 약 4%를 점유 하고 있다. 2006년 말 기준, 제지 업종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제지 업체는 약 100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실제 수출에 종사하는 대규모 업체는 30여 개에 불과하다. 피고용인은 약 1만 5천명이며 생산액은 44억 2천만 Euro를 기록하였으며 총 생산의 약 75%를 수출하고 있다.

□ 제지업 분야 주도회사

주목할 만한 회사는 판지, 판지박스(Box)생산에서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는 마이어-멜른 호프 판지주식회사(Mayr-Melnhof Karton AG)社이다. 同社는 18세기 후반, 현 대표감사인 고에스 사우라우(Goess-Saurau)의 4대조 외조부가 설립한 회사로서 오스트리아 본사에 약 5,200 명(2006년 기준)의 종업원을 거느리면서 매년 약 10억 Euro의 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1999년 1월 이탈리아 최대의 판지 제조 회사 레노 디 메디치(Reno di Medici)를 합병하여 매출 및 생산량 면에서 세계적인 판지 업체로 부상하였다.

□ 진출방안

몇 년 전부터 일고 있는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농산물 시장 진출을 가능케 해줄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두부나 녹차는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며 인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한국산 농산물 진출에 한계가 있다. 상술한 오스트리아 농산물의 국제적 마케팅 전략을 참고하여 EU권을 상대로 한 마케팅 전략 구사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제지 분야는 유럽 자체 내의 생산력 과잉 및 기술 우위로 진출이 힘들어, 대신 기술 제휴나 Joint Venture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기술협력유망분야 - 판지/재생지

판지/재생지 제조회사인 마이어멜른 호프사는 9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권 진출을 적극 검토 하여 왔다. 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 판지, 판지박스, 포장재, 재생종이 부문에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여 유럽 시장에 이어 아시아권 시장을 제2 주력시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동사의 계획이다. 이러한 장기계획 1차적 단계로서 판지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 하였으며 아시아권 국가 중 한국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정하고 H제지, D제지 등 3개사와 협상하였으나 주식 배분 비율 문제로 실패하였다.

마이어멜른 호프사는 51%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식으로 한국 진출을 희망하였는데, 한국 진출이 성공할 경우 유럽 내 계열 공장 중 생산성이 낮은 공장 1개를 폐쇄하고 한국 공장의 생산품을 유럽 및 기타 시장 수출품으로 활용할 방안을 세우고 있었다. 한국 회사들과의 협상 결렬 후, 말레이시아에 투자하여 단기적으로는 한국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유럽 8개국에 29개의 판지제조회사/포장재제조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41개의 J/V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주시할 만한 회사로 사료된다.

다. 2차 산업

광업의 경우 70년대까지는 GDP 기여도가 약 5%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 감소세를 보여 '86년도에 0.7%, '90년도에 0.6%, 2006년도에 0.50%로 집계 되었다.

제조업의 비중도 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6년 기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19.9% 수준이다.

건설업 및 에너지 수급산업의 GDP기여도는 각각 7.7%와 2.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1) 제조업부문 개황

제조업은 전후 오스트리아 경제복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60년대 및 70년대 고도 성장 시기에 경제적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제조업 부문 고용인원은 90년대에 들어 감소 추세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06년 기준 전체 고용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쳐 인구 밀집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빈과 인근의 Wiener Neustadt, Leoben과 Graz지역, Linz지역, 그리고 서부의 Innsbruck, Kufstein지역과 Vorarlberg州 등에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2) 중화학 공업

동부 지역에는 주로 기계공업, 화학공업 및 전기 전자제품이 발달되어 있으며, 서부 지역은 주로 섬유 및 유리공업이 발달해 왔다.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분야에는 국영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영 철강회사인 Voest-Alpine는 현재 세계 제철 공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산소전로공법의 창시자이며 최근 포항 제철이 도입한 첨단 전기로공법인 Corex공법도 同회사 작품이다. 자체 자동차 브랜드는 전륜구동자동차 소규모 생산업체인 슈타이어-다이믈러-푹흐(Steyer-Daimler-Puch)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벤츠(Benz), BMW, 크라이슬러사 등 세계 유수 회사에 엔진, 구동 시스템 등을 비롯한 주요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3) 경공업

과거 오스트리아의 수출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섬유 산업은 동구권 개방과 함께 EU-동유럽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 여러 기업이 도산하는 등 사양 산업화 되고 있다.

4) 광업

□ 개요

텅스텐, 철광, 갈탄 등이 채굴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암염과 석회, 마그네사이트 등이 생산되고 있다. 주요 채굴지는 오스트리아를 동서로 길게 관통하고 있는 알프스산맥 지역이다. 동구권 개방 이후, CIS를 비롯한 동구 국가들과의 가격경쟁 열세로 철광의 경우 국내수요를 위해서만 채광할 뿐이며, 많은 광산들이 휴광 상태이다. 시멘트산업도 발달 하였는데 특수시멘트의 일종인 내화시멘트 생산기술은 세계 정상급이다.

□ 광업부문 현황 및 특성

갈탄 채굴 업체는 1970년에 15개에 이르렀으나 채산성 문제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6년 말 기준 2개 업체에 불과하며 피고용인 수는 49명이다. 갈탄 생산량은 약 6천 톤이었다. 철광을 채굴하는 업체는 2006년 말 기준 2개 업체이며 165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연간 채굴량은 2백만 톤(Ton)으로 1970년 4백만 톤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석회석/대리석채굴은 광업부문에서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이다. 1995년 135개 업체가 석회석 및 대리석을 채취하였던 반면, 2006년 말에는 168개 업체가 이 부문에 종사하면서 1천425명을 고용하고 있다. 채굴량은 2천3백만 톤이었다. 석회석과 대리석은 건자재용으로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마그네사이트는 내화제품 생산에 주로 쓰이는데 1980년부터 6개 업체가 존재하여 왔으며 2006년 말 기준 7개 업체가 87명을 고용하고 있다. 채굴량은 약 69만 톤이었다.

알프스 지역이 쥘라기에는 해저에 있었던 관계로 암염도 생산되는데 서북부 지역의 산간 지역에서 채굴되며 4개의 업체가 160명을 고용하고 있다. 2006년 생산량은 340만 톤을 채굴하였다. 이 암염에서 소금을 채취한다. 암염은 석회석/대리석 그리고 마그네사이트와 함께 오스트리아 광업계에서 채산성이 높은 광물에 속한다.

□ 시멘트제조업 현황 및 특성

일반시멘트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다. 2006년에는 7개 업체가 203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업체 숫자나 종업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총 생산량은 91만 톤이었는데 대부분 국내수요로 충당되었으며 수출은 미미한 편이다.

오스트리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특수시멘트인 내화시멘트 및 내화벽돌 등 내화 제품들이다. 내화시멘트의 경우 세계시장의 약 16%를 점유하여 점유율 1위에 있다. 주목할 만한 회사는 세계 내화제품시장에서 선두주자인 오스트리아 파이취-라덱스-디들어(Veitsch-Radex Didier)사이다. 동사는 세계 최대 내화제품 생산업체로 세계시장의 9%를 석권하고 있다.

□ 진출방안

상술한 암염, 마그네사이트 등 일부를 제외한 광업분야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사양화되고 있으며 저가의 동유럽 제품 때문에 광업상품 진출은 쉽지 않다. 시멘트는 다소 가능성이 있는 편인데 역시 저가의 동유럽 제품에 시달리고 있다. 시멘트는 향후 가격 조건에 따라 시장 확보가 결정될 것이다. 내화제품에 관련한 기술협력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된다.

□ 기술협력 유망분야 - 내화시멘트제품

파이취-라덱스-디들어사의 주력제품은 내화시멘트를 비롯한 공업설비용 내화건자재로서 용광로의 외벽이나 기타 내화를 필요로 하는 설비물 외장에 사용되는데 세계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동사는 내화성건자재 개발에 전력투구하면서 일찍부터 세계화 경영에 착수하여 독일과 미국에 연구소를 건립하였으며 현지 회사들과 연결하여 판매망 구축에 노력, 성공한 케이스이다.

동사의 매출액은 지역별로 서유럽 41%, 북미 29%, 태평양 아시아 12%, 아프리카 및 중서 아시아 6%, 동유럽 및 러시아 6%, 남미 5%로 분포되어 있다. 유럽을 비롯한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30개 이상의 생산기지와 세계 시장의 고객을 위한 범세계적인 서비스 및 판매 조직을 확보하고 고온 기술 분야의 엔지니어링은 물론 설비 설치 및 포괄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고객접근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체 내화연구소를 보유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품질 생산관리를 위해 꾸준한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 자체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품질관리와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사 제품은 최초로 EN ISO 9001, 9002 표준제품으로 인정받았다.

한국 또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여 한국의 내화제품회사인 P사 그리고 일본의 S사와 접촉 하였으나 경영권 소유 문제 때문에 실패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볼 만한 업체이다.

5) 일반기계산업

□ 현황

기계 공업 및 첨단산업 분야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장악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계산업분야 업체의 숫자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1,600개이며 피고용인의 숫자는 72,000명이었다. 총 매출액은 100억 Euro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70억 Euro 어치가 수출되었다.

오스트리아 일반기계 및 기계설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EU권 국가들로서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동유럽 국가들이 16%, 미국이 9%, 아시아권 국가들이 8% 그리고 EFTA 역내 국가들이 6%를 차지하였다.

□ 특성

오스트리아가 확고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기계공업을 비롯한 Mid-Tech 분야는 현재는 Mid-Tech분야와 High-Tech을 접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특수 용접 분야의 전문회사가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를 시도하거나 자동차 전문 구동장치의 컴퓨터 제어 기술 개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IGM사의 경우, 자동차 생산용 용접 및 절단 로봇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 것이다.

□ 진출확대방안

오스트리아는 기계수출국이기도 하지만 상당량의 기계 및 기계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일반 기계류 총 수입량은 2006년 기준으로 약 65억 Euro인데 증가세에 놓여있다. 일반 생활용품과는 달리 가격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지 않으며 브랜드명보다는 품질에 따라 진출이 결정되는 기계류 및 기계부속품 분야는 한국상품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오스트리아는 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소량 주문이 많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단 거래가 성립되고 품질을 인정받게 되면 장기 거래 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장래를 위해 투자하는 셈치고 거래를 터보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의 한 방법이다.

□ 기술 협력 유망 분야

상술한 IGM사의 경우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으며 성형사출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지닌 ENGEL사도 한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기계 분야 다방면에 첨단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향후 기계 분야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회사들과 합작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세계 기중기 시장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팔핑어(Palfinger)사도 한국기업과 J/V를 희망하고 있다. 동사는 1932년에 건립된 회사로서 2006년 말 기준, 독일 3개, 슬로베니아 및 캐나다에 각각 1개씩의 현지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 이탈리아 및 프랑스 회사의 일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1990년도에 (주)삼보가 에이전트를 맡는 조건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는데, 1997년도 까지 매년 500여대의 기중기를 한국시장에 수출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쓰이지 않는 특수 기중기도 한 대를 주문 받아 제작 공급한 바 있다고 하며 한국시장의 약 35%를 점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보사의 부도사태로 한국 보세지역에 묶여 있던 기중기 70대가 공매처분 위기에 놓이자 同 제품들을 오스트리아로 재수송한 바 있다. 기중기 제작에 관련하여 한국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희망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조인트벤처 회사에서 주요부품을 오스트리아 본사로부터 받아 조립하게 될 것이며 일부 부품은 한국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한국의 H사와 접촉 하였으나 J/V사 주식의 51%를 팔핑어사가 소유하는 조건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못했다고 한다. 적당한 한국회사 물색에 실패하였다.

6) 석유화학산업

□ 개요

오스트리아에는 서유럽국가 중에는 드물게 산유국이다. 물론 매장량이 그리 큰 것도 아니며 자체 소비량의 약 12% 정도를 충당할 뿐이지만 여기서 터득한 시추기술을 이용해 중동 산유 국가 및 아시아지역에 진출해 있다. 화학산업은 전통적으로 발달해 있는데 독일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원유/천연가스 산업 현황 및 특성

2006년 말 기준으로 원유 및 가스 채취에 종사하는 업체는 3개이며 922명의 피고용인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원유의 총 매장량은 3억1천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6년까지 1억7천 5백만 톤 정도를 채굴하였다. 현재의 시추방법으로 매년 약 1백만 톤을 채굴하여 연간 국내 원유수요의 약12%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나머지 수요는 주로 중동 국가에서 수입한 원유로 충당된다. 한편 오스트리아 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매년 약 15억 평방미터로 전체 국내수요의 20% 정도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소비되는 천연 가스는 대부분 러시아산으로, 파이프 라인을 통해 공급 된다.

오스트리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실적 추이

	1970	1980	1990	2000	2004	2006
원유(천 톤)	2,798	1,475	1,149	1,056	982	855
천연가스(백만m3)	1,897	1,903	1,288	1,805	2,011	1,654

자료원: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7

□ 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 현황 및 특성

- 화학산업의 경우,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350개의 업체가 존재하며 총 피고용인원 숫자는 27,000 여명이었다. 당해연도 총 매출액은 약 69억 Euro 였는데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40억 Euro 어치가 수출되었다. 화학제품 수입액은 50억 Euro 였는데 주로 독일, 스위스 제품이었다.
- 고무/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2006년 말 기준으로 570개의 업체가 존재하며 총 피고용인원 숫자는 28,000명이었다. 당해 연도 총 매출액은 약 40억 Euro 였는데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24억 Euro 어치가 수출되었다. 고무/플라스틱제품 수입액은 약 27억 Euro 였는데 주로 독일, 스위스의 고가제품과 동유럽산의 저가제품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 진출확대방안

- 한국의 석유/화학제품은 그간 저가를 무기로 오스트리아 시장에 진출해 왔으나 동유럽 개방 이후 지리적 이점으로 단시일 내 소량공급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동유럽 제품들에게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가격/수량조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가치의 특수화학제품의 경우는 한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이 많다. 기술 협력을 통한 기술획득이 관건인 것으로 사료된다.

□ 기술 협력 유망분야

- 석유시추부문
 - 오스트리아 자체 원유매장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오스트리아 석유시추 및 개발회사인 OMV사는 중동지역과 파키스탄 등에 진출해 있다. 석유시추방면에 상당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동사와 J/V를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 사료된다.
- 특수 아스팔트
 - 아스팔트는 시공이 간단하고 단가가 싸 반면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반적 고착제를 사용한 아스팔트 도로 및 활주로는 온도가 매우 낮게 내려갈 경우 동파(凍破)되고, 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연화(軟化)되면서 아스팔트 위를 지나가는 수송차량의 무게에 의해 요철(凹凸)을 일으키게 되어 끊임없는 보수작업을 요하게 된다.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할 방안을 학창시절부터 연구해온 오스트리아인 리하르트 펠징어(Richard Felsing)는 대학 졸업 후 조부 때부터 운영해온 도로포장 전문 건설회사의 연구 진에 참여하여 아스팔트 고착제를 활용한 아스팔트의 온도적응성 강화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고 70년대 말 드디어 특수 고착제 개발 및 혼합에 성공하고 이 제품을 노보팔트(Novophalt)라고 명명하였다.

- 노보팔트의 기술의 장점을 종합해보면 온도변화에 대한 아스팔트의 적응능력 향상 그리고 접착성 및 장력 강화이며, 이러한 장점은 결과적으로 도로의 수명연장 및 보수율 극소화로 연결되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도로 보수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도로보수비를 절감 시켜 도로 포장비용의 효용가치를 높여 준다.
- 릭하르트 펠징어 그룹의 계열사 중 국제기술협력분야는 "R. 펠징어 국제유한회사"(R. Felsinger International GmbH)가 담당하고 있다. 同 회사는 자본금 약 US\$ 1백5십만과 국내 사무직 요원 35명으로 규모상 소기업에 속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굵직한 공사들에 노보팔트 기술이 많이 사용 되었다. 특히 공항 활주도에 대한 공사들이 많은데 큰 공사들 만 헤아려 보더라도 휴스턴 국제공항(1989년), 북경 국제공항(1996년), 중국 지방 국제 공항 3개소,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1998년)등 이 있다.
- 펠징어사에 의하면 同社는 한국의 L사와 기술이전 협상을 상당 기간 진행해왔으며 1997년도 말, 성사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한국의 외환사태로 협상이 결렬되었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릭하르트 펠징어 그룹(Richard Felsinger Gruppe)에서 한국에 대해 특수 고착제 제조 및 혼합공법 기술이전 의향을 가지고 적당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7) 철강/금속산업

□ 개요

-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철강/금속산업이 발달해온 국가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용광로 중 70% 이상이 오스트리아의 뫼스트알피네(Voest Alpine)사가 개발한 산소 전로 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강 및 특수강 구조물 제조에도 많은 Know-How를 축적하고 있다.

□ 제철/금속제조업 현황 및 특성

-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약 180개 제철/금속생산업체가 존재하며 총 33,000 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 총 매출액은 70억 Euro이며 이중 약 58% 가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을 필두로 한 EU권 국가이다. 수입품은 주로 저가의 동유럽 제품인데 2006년 기준으로 33억 Euro가 수입된 것으로 집계 되었다.

□ 금속가공업 현황 및 특성

-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3,300개의 업체가 존재하며 피고용인의 숫자는 67,000명이다. 총 매출액은 63억 Euro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약 46%가 수출되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제철/금속 제품과 마찬가지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권 국가이다. 금속 가공 제품의 총 수입액은 27억 Euro로 집계되었는데 주로 독일, 프랑스에서 수입 되었다.

□ 진출확대방안

- 철/강철제품의 경우 동유럽 저가제품의 공세로 시장 진출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압연 강판을 비롯한 일부 품목은 한국으로부터 계속 수입되고 있다. 다만 고정적인 수요보다는 물량 부족에 따른 대체적인 수입이 많아 수입물량이 고정적이지 못하다. 비철금속제 역시 비슷한 실정이며 금속제 가공품은 오스트리아 제품 및 여타 서유럽산 제품의 품질 우세로 시장 진출 확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오스트리아의 대형 수요자들과 직접적인 상담을 벌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들은 대개 자체적으로 전문 에이전트를 두고 있어서 수입선 개척이 쉽지 않다. 가격/ 수량 조건 재고와 기술획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기술협력 유망분야

-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뵐러/우도홀름(Böhler- Uddeholm)사는 여타회사들이 신경 쓰지 않던 기타 합금강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여 세계 유수의 회사로 성장하였다. 뵐러/우도홀름사는 타 회사들이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등한시 해온 공구용 강철, 절단선, 합금강판, 압연된 터어빈셔블 (Turbinshovel) 등 틈새 금속제품 생산과 개발에 주력해온 전형적인 틈새시장 공략 회사 이다.
 - 매년 상당한 R&D투자를 통해 축적된 Know-How는 세계적 수준이며 현지 바이어보다는 브랜치 오피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세계 44개국에 100여 개의 지사를 설치하여 판매에 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동양 진출의사가 없으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 중이라고 하므로 향후 기술협력을 위해 주목해 볼만한 회사이다.
- 제철기술
 - 포항제철이 설립될 당시 최초로 제철기술을 이전해준 회사는 오스트리아의 피스트알피네(Voest-Alpine)사이다. 同社は 산소전로공법을 개발한 이후 최첨단 제철기술을 개발 해내고 있는 세계적인 제철 기술개발 회사이다. 근년에는 전기로 공법 중 최첨단인 코렉스(Corex) 공법을 포항제철에 이전해주었다.
- 특수 철제 가공품
 - 피스트알피네(Voest-Alpine)사는 특수철강제품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차선로의 경우 일반 선로보다 훨씬 길고 온도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제품을 개발하여 주로 독일 및 프랑스로 수출하고 있다.
 - 同社は 2006년에 철도 선로 부분에서만 4억US\$의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계 시장에서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 사례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 낸다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는데 동사는 이러한 특수 철제 가공에 관한 기술 이전은 다소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 자동차산업

□ 개요

- 오스트리아 자동차산업 중 중요한 부문은 완성차의 생산/어셈블링(Assembling) 분야보다는 부품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오스트리아는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면서 엔진을 비롯한 중요부품을 독일계 자동차회사에 상당량 수출하고 있다.

□ 자동차생산 산업 현황 및 특성

-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생산 댓 수는 2006년 말을 기준으로 20여 만대로 미미한 편이며, 전체 근로자의 약 1%에 해당하는 약 35,000여명이 250여 개의 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생산액은 63억5천만 Euro로서 국내총생산(GDP)의 3% 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다.

- 2006년도의 오스트리아 승용차 생산 수량은 약 20만 대였다. 총 생산대 수의 97%가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어 오스트리아산 승용차 중 국내용으로 판매된 승용차는 6,000대에 불과하다. 상용차의 경우, 2006년도에 15,000대가 생산되었는데, 이 물량은 전년과 비슷한 것이다. 대부분 화물트럭이었으며 버스는 65대(조립생산)에 불과하다. 총 상용차 생산대수의 약 55%가 적재량 12ton에서 20ton의 중대형 화물 트럭이었다.
- 2006년도 자동차산업의 총생산액은 전년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이 수치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진출확대방안

- 참신한 대중매체광고를 통해 한국의 승용차 회사들이 오스트리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획득해가고 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근년에 들어 디젤엔진 차종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대부분의 한국산 승용차들이 휘발유엔진 차종이어서 선호추세와는 정반대 위치에 놓여 있다.
- 몇 전까지만 해도 디젤엔진은 소음이 많고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공해도 많아 휘발유엔진에 비해 열등한 기술로 인식되었으나 근자에 들어 Peugeot, BMW, Benz 등 유럽 유수의 승용차회사에서 개발한 디젤엔진은 소음도 거의 없고 공해문제도 크게 개선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 유럽시장은 미국과는 달리 휘발유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디젤이 각광 받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중소형 차종에서뿐만 아니라 중대형 차종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휘발유엔진 차종만으로는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 기술협력을 통한 디젤엔진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 기술협력 유망분야

- 디젤엔진
 - 오스트리아의 유럽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로 막대한 양의 자동차 엔진을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 엔진산업의 두 기수는 AVL과 S.D.P.사인데, 특히AVL사는 엔진 테스트 연구소로 출발한 중견기업으로 60년대 중반부터 엔진 설계 부문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 SDP사는 원래 승용차 생산회사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승용차시장에서 경쟁에 밀려난 후 방산업체로 전환하여 특수차량 제작과 4륜 구동기술 개발에 전념해 왔다. S.D.P. 사는 AVL사와 협력하여 엔진생산의 노하우를 익혀왔는데, 이 결과 독일의 BMW 사는 AVL사와 합작으로 엔진 설계를 마친 후 S.D.P.사에 수요량의 상당부분을 하청주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오스트리아에 엔진생산공장을 건립하였다.
 - Ford 계열사인 독일의 OPEL사 역시 BMW와 같은 방식으로 AVL사와 합작설계를 거쳐 S.D.P. 사에 상당한 양의 엔진 생산 하청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오스트리아가 고부가 핵심 부품인 자동차 엔진의 설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풀세트(Full Set)방식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제공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수출에 성공한 케이스라 할 수 있겠다.
 - 한편 BMW에서 오스트리아를 엔진생산기지로 선택한 데에는 상기 이유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근로자들의 높은 생산성과 유럽 내에서 가장 파업이 없는 나라라는 이유도 작용 하였다고 한다. 2006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약 1억 8천만 Euro의 엔진을 수출,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 자동차부품 연관 기업집단

- 오스트리아의 산업정책 전문가인 클레멘트(Clement)박사에 따르면 연관기업집단(Cluster) 형성이란 특정산업 부문에 연관된 중소기업끼리 재원조달, R&D 부문, 그리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풀세트(Full Set)방식의 생산구조를 창출해냄으로써 개별적 중소기업이 침투하기 어려운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 원래는 프랑스의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이러한 연관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들은 연관기업집단의 모국인 프랑스는 물론 유럽 내 자동차 왕국으로 군림하는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부문의 연관중소기업집단 형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 오스트리아 자동차부문 연관기업 집단의 선도 기업인 오스트리아의 슈타이어마르크(Steier mark)주에 위치하는 AVL사와 SDP사이다. 엔진생산에 경험이 있는 SDP사는 AVL사와 합작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 엔진의 연구개발을 시도하면서 연관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이어 공조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지원 아래 여타 자동차부품 생산회사와도 연계를 시작하였다.
- 이렇게 형성된 연관 중소기업집단은 독일계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스트리아의 슈타이어마르크주는 독일계 자동차 회사들의 하청전문지역으로 부상하기 시작 했다. 하청에서 재미를 본 독일의 BMW사는 1978년 BMW Austria라는 엔진 생산전문회사를 슈타이어마르크주에 설립하였으며 미국의 크라이슬러 (Chrysler) 사에서도 1990년 오스트리아를 유럽생산기지로 확정하였다.
- 최근 2년간만해도 대 오스트리아 자동차부문 외국인직접투자가 US\$ 1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스트리아는 세계 자동차 엔진시장에서 8%를 점유하고 있다.
- 이렇게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오스트리아에 투자하는 이면에는 설계에서 작은 부속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구성된 오스트리아 중소기업 집단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 클레멘트 박사는 연관 중소기업집단 형성의 이점은 중소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실제적으로는 대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크기를 지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부가적 이점은 하청업체들이 연계되어 부품을 납품하므로 대기업에서 개별적인 하청 업체들처럼 간단히 하청선을 바꾸기 어렵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 2006년 말 기준, 오스트리아 슈타이어마르크주에는 약 130개의 중소기업이 시트 커버에서 엔진에 이르는 자동차 부문 연관 기업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의 피고용인은 약 1만 2천명에 이르고 있다.
- 한편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서는 슈타이어마르크주의 성공을 거울삼아 여타 오스트리아 지역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연관중소기업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실업인 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이러한 연관기업 집단의 형성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인 것으로 사료된다.

라. 3차 산업

3차 산업의 경우는 80년대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후 90년대에 들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GDP의 67.8%(공공부문 포함)를 차지하였다. 오스트리아 재계에서는 3차 산업 중 특히 금융분야가 미래산업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금융계의 현지 투자를 통한 동구권 진출이 활발하다.

1) 관광업

□ 관광업 현황 및 특성

- 오스트리아는 스키관광, 산악관광, 호수관광, 도시관광 등으로 사시사철 관광이슈가 있으며, 관광 수입은 국내총생산의 5 - 6%를 차지하고 있음. 동 수치는 EU역내는 물론 OECD 역내 최고 수치이다.

□ 계절별 관광 이슈

- 오스트리아에는 88개의 대형호수가 있으며 여름철에는 호수 관광으로 유명함. 콜 독일 전(前)총리 는 30년째 매년 여름휴가를 오스트리아에서 보내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알프스 산맥이 동서로 국토를 길게 관통하고 있어서 산악관광이 예로부터 발달하여 왔으며 겨울 스키시즌에는 영국, 덴마크왕실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유명 인사들이 오스트리아에서 관광을 즐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화를 비교적 덜 입은 관계로 비엔나, 잘츠부르크, 린츠 등의 도시들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도시관광도 각광받고 있다.

□ 관광업계

- 숙박업 및 요식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의 4.2%(2006년 기준)에 해당된다. 2006년 말 기준으로 46,000개의 숙박업소와 약 3만개의 민박가정 등, 총 약 7만6천여 개의 숙박업소가 존재하며 총 베드수는 약 1천1백 만개이다. 관광업이 가장 잘 발달된 지역은 Tirol주이며, 그 다음으로 Salzburg, Kaernten 주의 순서이다.

□ 관광수입

- 최근 몇 년간 관광 수입이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유럽인들의 관광 추세가 산악 및 도시 관광에서 해수욕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항공여비의 가격하락으로 유럽 이외의 국가 관광이 점차 선호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관광업은 오스트리아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서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상쇄시켜 줌으로서, 경상수지의 균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92년 이후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경상수지가 매우 악화되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오스트리아 관광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아 1998년부터 관광 수입이 다시 성장세로 반전되었다고 한다.

□ 관광정책 및 경기

- 오스트리아 정부와 관광업계는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관광업 부진이 계속될 경우 오스트리아는 만성 경상 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스트리아 관광 협회는 내부용으로 제작된 보고서를 통해 95년 이후 지속되는 관광업계의 불황이 일차적으로는 유럽인들의 기호 변화에 기인하지만 이차적으로는 투자 미비와 일부 관광업 종사자들의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면서 회원들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2) 교통업

□ 교통업 현황 및 특성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전차 그리고 지하철은 모두 해당 지방정부 소유이며 대부분 적자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특수지역에 한해 오스트리아 철도청과 체신청 등에서 시외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고속버스가 있으나 기차가 더 많이 이용된다. 2006년 기준 철도는 총 연장 6,300 km 이며 이중 5,600 km 가 국철인 OeBB에 의하여 운영된다. 철도는 국내 및 유럽 각국은 물론 동유럽지역과도 연결되어 있다.

항공업은 3개의 민영항공사가 존재하는데, 오스트리아항공(AUA)은 국영이었다가 1997 년에 민영화된 기업이며, 이 외에 Formula 1 자동차 경주 세계챔피언이었던 라우다가 설립 한 라우다 항공(Lauda Air), 티롤리언 에어(Tirolian Air) 등이 있는데 모두 최근에 AUA에 인수되었다. 국제선의 경우 유럽 주요 도시(동구 포함)의 경우 매일 수 차례 운행되며, 티롤리언 에어(Tirolian Air)는 주로 국내선을 운영한다.

오스트리아 도로망은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력수송의 80%, 화물운송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주요도시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접국가의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된다.

□ 진출방안

오스트리아의 교통업이나 관광업에 진출하기는 힘들다. 대신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축적된 노하우 및 Financing 기법을 이용하여 관광업 노하우 이전 및 외자유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국의 무주리조트 사업에 오스트리아 기업이 참가한 사례가 있다.

3) 금융업

□ 현황

체신청의 Oesterreichische Postsparkasse는 국영은행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역에 퍼져 있는 약 2,300개소의 우체국이 은행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2006년 말 기준으로 오스트리아에는 총 950 개의 금융업체가 있으며, 이들의 지점 수는 총 5,500개에 이른다.

□ 은행 및 신용금고

대형은행 63사가 총 8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주 별로 저당은행(Landeshypothekenbank)이 있으며,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신용금고(Sparkasse)도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 농업부문의 조합은행으로 Raiffeisenkasse 가 있으며, 중소기업부문의 조합은행으로는 Volksbank 등이 있다. 중소 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신용금고들은 70개사에 이르며 이들은 약 1,400 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 보험업

보험부문에서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있는 사회보험회사가 있으며, 이들 사회보험회사는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을 취급한다. 이 밖에 사(私)보험회사로는 2006년 말 기준, 50개의 오스트리아 보험회사와 12개의 외국 보험회사 지사가 있다.

□ 특성

오스트리아 정부 및 연방상공회의소에서는 금융산업을 환경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권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다. 동유럽권에 대한 진출은 개방 이전부터 소규모로 진행되다가 개방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동유럽에 진출해 있는 오스트리아 은행은 오스트리아 은행(Bank Austria, 민영)의 자회사인 CA은행 산하 CA International, 농협계 은행인 RZB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일은행(Erste Bank) 등 3개 은행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동 3개 은행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 총 50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약 1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지점들의 2006년도 회계액수 합산금액은 약 120억 Euro를 초과하였다. 특히 동유럽 CA International의 경우 2006년도 회계액수가 62억 Euro에 달해 동유럽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 중 회계액수 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 진출방안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동유럽에 가까운 오스트리아는 동유럽 금융 시장에 관한 엄청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향후 동유럽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금융 업계가 있다면, 오스트리아 은행과 합작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환경산업

□ 현황

오스트리아 정부, 학계 및 재계에서는 환경산업분야를 금융산업과 함께 미래의 중추 산업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환경산업분야는 오스트리아 산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중앙통계청의 추정에 따르면 2006년 오스트리아 환경산업의 매출은 약 150억 Euro라고 하며 매년 총 산업 평균 성장률을 월등히 앞서 가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계산상 EU역내 인구 3억6천7백만의 약 2%가 되는 인구 8백만의 소국인 오스트리아이지만 EU역내 환경산업에서 오스트리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 비율의 2배가 넘는 5%로 집계된 바 있다. 또한 전세계 인구 60억 중 0.1%의 인구를 가진 오스트리아가 전세계 환경산업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2.2%에 이르고 있어서 무려 20배가 넘는다.

□ 특성

오스트리아의 여타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환경산업분야 역시 중소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산학연계가 매우 잘 조직되어 있다고 한다. 산학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가 일사분란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는 연방법에 의해 오스트리아 전 상공인이 강제로 소속되는 조직으로서 산하에 지방상공회의소와 산업별 조직을 갖추고 있다. 지방상공회의소는 연방상공회의소의 연락소 수준인 반면, 산업별 조직들은 체계적으로 당해 산업 업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산업별 조직들이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밀접한 교류를 가지면서 산학연계를 잘 운영해나가고 있다.

□ 진출방안

- 오스트리아가 보유한 환경기술이 월등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1999년 말, 오스트리아의 태양열 집광판 제조회사가 한국회사와 합작으로 오스트리아에 J/V를 구성하고 EU시장 공략에 나선 사례가 있다. 환경산업의 경우 오스트리아 회사와 J/V 구성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 기술협력방안

- 세계적 수준인 오스트리아의 환경기술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기술 이전이 수월한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직접 기술 구입도 가능하다.
- 오스트리아에서 환경관련 연구기관으로서 가장 큰 것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근교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중앙연구소 자이버스도어프(Austrian Research Centre Seibersdorf)이다. 동 연구소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환경관련기술에 대한 데이터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도 환경기술 관련 제품과 그 생산자를 찾을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중앙연구소 자이버스도어프의 환경기술데이터뱅크: <http://www.umwelttechnik.at>

자료원: 오스트리아통계연감 2007, 관련협회 및 빈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2일)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오스트리아는 95.1.1일부로 EU회원국이며 EU국과는 모든 교역이 무관세·자유화되었다. 그간 동구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터키, 이스라엘 등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되어 있었는데 EU 가입으로 EU기준으로 전환(동 국가들은 EU와 경제협정을 맺고 있음)되었다. 오스트리아의 EU가입(95.1.1일)으로 EU의 무역정책이 오스트리아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그간 오스트리아에서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반덤핑관세 및 수입쿼터제 등의 조치가 EU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EU가입 이전에 오스트리아에 수입되는 자동차는 부품 중 일정량이 오스트리아산일 경우 관세의 감세 혜택이 있었으며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수입관세를 줄이기 위해 오스트리아로부터 타이어 등을 수입하였는데 EU가입 후 동 감세 혜택이 없어지자 일본 자동차 업계의 오스트리아산 자동차 부품수입이 급감한 바 있다.

현재 EU 국가의 일원인 오스트리아가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무역 협정 등은 없으며, EU의 무역 정책이 오스트리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한-EU間 FT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 있으며 2008년 중에 타결될 전망이다.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2007년 12월 12일)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오스트리아 수출입 통계

오스트리아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4	89,848	13.9	91,094	12.5	-1,246
2005	94,705	5.4	96,499	5.9	-1,794
2006	103,742	9.5	104,201	8.0	-459
2007년 9월*	82,841	9.4*	82,841	8.1*	0

註)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원: Statistik Austria (2007년 12월 12일)

1) 수출

오스트리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다. 비록 오스트리아 자체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없으나, BMW, Chrysler 등의 주문을 받아 완성차를 조립 생산하는 Magna Steyr 社の 존재 및 잘 정비된 자동차 클러스터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 수출을 이끌어 가는 분야로 자리 매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이웃 나라 독일로 꾸준히 30%가 넘는 수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나타난 변화는 서유럽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동유럽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는 오스트리아의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성공한 결과이다.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유로,%)

순위	품목	연 도			증감율(%)
		2005	2006	2007(1-6월)	07/06
	총계	94,705	103,742	57,815	9.1
1	승용차	6,266	7,021	3,365	-2.9
2	차량부속품	2,657	3,043	1,654	7.6
3	의약품	2,409	2,756	1,364	-4.9
4	가솔린 엔진	1,397	1,376	875	28.2
5	물(탄산수, 광천수 포함)	1,334	1,737	862	0.1
6	디젤/세미 디젤 엔진	1,461	1,441	856	8.8
7	목재	1,210	1,298	829	36.4
8	전화기및음성송수신기	179	333	817	496.8
9	화물자동차	1,061	1,272	736	25.8
10	피, 면역혈청	729	977	656	46.3

註)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자료원: Eurostat (2007년 12월 12일)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연 도			점유율(%)			증감율(%)
		2005	2006	2007(1-6월)	2005	2006	2007(1-6월)	07/06*
	총계	94,705	103,742	55,584	100	100	100	9.1
1	독일	30,642	34,442	16,937	32.36	33.20	30.47	10.4
2	이태리	8,314	9,220	4,826	8.78	8.89	8.68	7.5
3	미국	5,750	6,280	2,945	6.07	6.05	5.30	-10.4
4	스위스	4,710	4,589	2,360	4.97	4.42	4.25	1.3
5	프랑스	4,004	4,271	2,040	4.23	4.12	3.67	3.7
6	영국	3,880	3,930	1,952	4.10	3.79	3.51	-1.7
7	헝가리	3,308	3,613	1,848	3.49	3.48	3.32	7.1
8	체코	2,904	3,285	1,787	3.07	3.17	3.21	13.3
9	스페인	2,652	2,955	1,731	2.80	2.85	3.11	14.9
10	러시아	2,046	2,444	1,307	2.16	2.36	2.35	23.6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원: Eurostat (2007년 12월 12일)

2) 수입

승용차 및 차량 부속품, 석유 및 에너지 자원 등이 주요 수입 품목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컴퓨터, 핸드폰 등 IT 관련 제품의 수입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가운데, 서유럽 선진국들로부터의 수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변화는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품목	연 도			증감율(%)
		2005	2006	2007(1-6월)	07/06
	총계	96,499	104,201	54,647	7.7
1	승용차	5,251	5,428	2,977	5.0
2	석유/역청유(원유 제외)	3,530	4,239	2,002	-4.3
3	차량부속품	3,875	4,225	2,001	-7.6
4	석유/역청유(원유에 한함)	2,480	2,987	1,293	-12.3
5	의약품	1,876	2,074	1,086	4.6
6	석유가스/기타탄화수소	1,748	2,280	983	-19.1
7	엔진부속품	1,424	1,421	856	21.6
8	전화기및음성송수신기	407	376	756	306.1
9	컴퓨터	2,137	1,715	649	-25.1
10	전기에너지	3,211	1,384	633	-11.2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원: Eurostat (2007년 12월 12일)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연도			점유율(%)			증감율(%)
		2005	2006	2007(1-6월)	2005	2006	2007(1-6월)	07/06*
	총계	96,499	104,201	54,647	100	100	100	6.6
1	독일	46,259	51,140	25,320	47.94	49.08	46.33	6.3
2	이태리	6,791	7,442	3,966	7.04	7.14	7.26	10.7
3	스위스	4,298	4,551	2,533	4.45	4.37	4.64	11.1
4	네덜란드	3,782	4,375	2,406	3.92	4.20	4.40	14.1
5	프랑스	3,826	3,788	1,814	3.96	3.64	3.32	4.6
6	체코	3,118	3,274	1,785	3.23	3.14	3.27	13.7
7	미국	2,285	2,527	1,412	2.37	2.42	2.58	12.8
8	헝가리	2,917	2,636	1,323	3.02	2.53	2.42	5.8
9	벨기에	2,245	2,549	1,291	2.33	2.45	2.36	2.5
10	중국	2,096	2,475	1,116	2.17	2.37	2.04	-10.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원: Eurostat (2007년 12월 12일)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과의 무역통계

한국의 對 오스트리아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천 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4	669,905	61.1	454,307	19.5	215,598
2005	970,512	44.9	644,672	41.9	325,840
2006	886,632	-8.6	737,717	14.4	148,915
2007년 10월	611,861	-20.9*	699,564	17.0*	-87,703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KOTIS(www.kotis.net) (2007년 12월 12일)

1) 주요 수출품목

- 2007년에는 그 동안 수출 주력 품목이었던 액정 디바이스, 핸드폰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디스플레이 장치, 위성방송수신기 등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6년에는 액정 디바이스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핸드폰, 승용차 등을 추월하고 1위 상품으로 부상하였음.
- 2005년도에는 핸드폰 수출(재수출물량 포함)이 다시 활기를 띄고, 반도체 및 자동차, 타이어 품목이 높은 수출 신장세를 보였음.
- 2002년도를 기점으로 대 오스트리아 주종 수출 품목군이 핸드폰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전기, 전자제품 등으로 굳어지고 있음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불)

순위	품목명	2006		200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86,632	-8.6	611,861	-20.9
1	액정디바이스	331,470	97.5	157,847	-50.2
2	디젤(2,500cc이하)자동차	-	-	117,125	-
3	기타무선전화기	-	-	66,438	-
4	가솔린(1,500cc초과)자동차	-	-	27,837	-
5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9,719	73.2	20,253	270.7
6	위성방송수신기	9,118	71.3	17,703	369.6
7	가솔린(1,500cc이하)자동차	-	-	17,131	-
8	시분할식전화기	-	-	16,873	-
9	HDD	21,962	2.1	13,488	-18.1
10	승용차용타이어	16,783	-12.0	13,299	0.2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KOTIS (www.kotis.net), 2007년 12월 12일

2) 주요 수입품목

2007년도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동차, 돼지고기 등의 수입품목 상위에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현재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인 반면 자동차, 돼지고기, 비스코스 섬유 등의 수입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6년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입품목 1위로 부상한 가운데, 돼지고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입품목 3위에 자리잡았음.

2005년도에는 오스트리아의 대 한국 수출 1위 품목인 유리 가공품을 선두로, 비스코스 레이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운반 하역 기계, 플라스틱 가공 기계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불)

순위	품목명	2006		200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37,717	14.4	699,564	17.0
1	가솔린(1,500cc초과)자동차	-	-	45,237	-
2	돼지고기	38,171	42.1	43,168	48.3
3	비스코스섬유	44,513	10.4	43,126	25.7
4	반도체제조용장비	51,092	62.9	42,538	-4.8
5	프로세스와콘트롤러	4	-	40,918	893,765.5
6	유리공예품	39,563	-13.1	34,995	9.7
7	의약품	19,055	24.6	20,995	15.8
8	기타정밀화학원료	24,901	40.1	20,989	16.7
9	주조설비부품	8,135	9.3	17,930	-16.3
10	선박용압축정화식엔진	14,896	2.8	17,175	32.2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KOTIS(www.kotis.net), 2007년 12월 12일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덤핑 등 불공정한 교역 행위로 인하여 EU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사 결과 판단될 때 EU 당국은 산업 피해 구제 조치로서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취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 위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 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제소 접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어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조치와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치와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 가드 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EU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 1.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 및 EU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취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신발류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관세제도

벨기에는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벨기에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분류방식인 HS (Harmonized 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페인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 교역관련 주요법규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통상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더불어 제 3국의 무역 장벽 및 시장접근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통상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 하기도 한다.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 수입제한조치, 원산지 표기 요건 및 여타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 EU 원산지 규정의 기초법: 1992년 10월 12일 자 이사회 규정 2913/92

2) EU 공동관세

매년 EU 집행위는 EU 공동 관세율을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부서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사이트(TARIC): 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3)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 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걸려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 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다.

4) 통상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 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한다.

5) 산업 피해 구제 조치

산업 피해 구제 조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을 의미한다. 이같은 통상법규 외에도 환경분야의 각종 규정과 산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공업 규격 과 기술표준 인증제도, 안전규정(CE마킹), 상품 관련 제조자의 책임제 등이 벨기에를 비롯 하여 EU 시장을 접근하는데 기술장벽이 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7년 9월 30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5개 품목, 상계관세 규제 품목은 1건으로 총 6건이 수입 규제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가. 반덤핑 규제 품목

-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 반덤핑 관세율: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 이스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6%. 기타 10.6%(2010.3월 종료예정)
- PET칩(점착성 173mg/10이상의 PET)
 - 반덤핑 관세율: 호남석유화학 101.4 유로/t, 동국무역 및 기타 148.3 유로/t (대한화성, KP 케미컬, SK케미컬 무형의)
- 양문형 냉장고
 - 반덤핑 관세율: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철강제 관 연결구류
 - 반덤핑 관세율: 44%(2007.8월 재심 개시)
- 실리콘 메탈(중국산의 우회 수출도 포함)
 - 반덤핑 관세율: 49%

나. 상계관세 규제

- D-RAM: 2006년 4.13일부터 상계 관세율이 34.8%에서 32.9% 하향 조정(삼성전자는 상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2007년 9월)

5. 관세제도

가. 개황

오스트리아는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오스트리아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 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을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다.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서류에 상품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상품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 관세부과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벨기에 경우21%)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마킹 제도

27개 EU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 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현재까지 2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2개 품목 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세제: 일반 청소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설거지세제, 세탁용 세제
 - 기기: 식기세척기, 전구, 휴대용 컴퓨터, PC, TV, 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 종이 제품: 복사용지, 화장지
 - 가정, 정원 용품: 침대메트레스, hard floor coverings, 실내용 페인트 및 안료, 토양 개선제, 가정용 섬유제품
 - 의류: 신발, 섬유제품
 - 관광: 캠프장 및 서비스, 관광객 편의 시설 서비스
 - 윤활유: 윤활유
- 기준 제정 추진 품목: heat pump, 비누와 샴푸, 프린트용지, 가구
- 제정 가능성 검토 품목: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소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 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 제품, 에어컨디셔너,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속용품, 위생용품 등

다. 에너지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하는 제품은 GEEA의 에너지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정회원:

[Switzerland: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Denmark: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Netherlands: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Energie		Waschmaschine
Hersteller Modell	ABC 123	
Niedriger Energieverbrauch	A	
A B C D E F G		
Hoher Energieverbrauch		
Energieverbrauch kWh/Waschprogramm <small>als Prozentsatz des allgemeinen der Normierung für das Programm 40°C/60°C/70°C</small> <small>Der tatsächliche Energieverbrauch hängt von der Art der Nutzung des Gerätes ab.</small>	0.95	
Waschwirkung <small>A: sehr gut G: schlechter</small>	A	
Schleudwirkung <small>A: sehr gut G: schlechter</small> <small>Schleudermenge (Liter)</small>	A	
Füllmenge (Baumwolle) kg	5.0	
Wasserverbrauch l	49	
Geräusch <small>(dB(A) re 1 pW)</small> <small>Waschen Schleudern</small>		
<small>Ein Zeichen mit diesem Gütesymbol ist in der Produktdokumentation</small>		

■ 개요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소비량 등 표시

■ 대상품목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 세척기 등 (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기관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법령

에너지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GEEA



■ 개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제품 보급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충전기 등(19품목)

▶Energy 2000



■ 개요

대기 전력을 절감하는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GEEA와 동일기준 적용하며 같은 Energy라벨 사용

■ 대상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

- 시행기관: 스위스 에너지부

(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7. 지적재산권

가. 개황

오스트리아는 유럽 특허 협정 및 특허 협력 조약, 세계 지적재산권 협회 및 특허 국제 인정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등의 회원이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 발명특허

- 발명 특허는 신청 후 18년간 유효하며 국제 산업 재산권 협정, 즉 소위 파리유니언의 회원국 사이에는 외국 기업도 오스트리아 내국 기업과 동일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특허법은 1899년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 보완되었음.
- 특허권 발급소요기간 약 2년이며, 유효기간 연장 불가.
- 매년 특허권 보호에 따른 특허권 보호료(2007년 6월 현재 연간 약200불)를 특허청에 지불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이 상실됨.
- 주무관청: 오스트리아 특허청(Oesterreichisches Patentamt).
 - 주소: Dresdner Straße 87, 1200 Wien
 - 전화: (43-1) 534 24-0 / FAX: (43-1) 534 24-235

다. 상표권

- 일반적으로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
- 10년 유효 상표권 등록도 가능하며, 만료 6개월 전에 10년 연장 가능
- 주무 관청: 오스트리아 특허청(Oesterreichisches Patentamt)

라. 저작권

- 저작권 보호는 문학, 음악, 그림, 그리고 영화 분야에 적용됨. 이 법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규정은 담고 있지 않으나, 이 분야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계획 중임.
-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 보호는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3상 반도체 칩의 레이아웃 디자인도 보호의 대상임.
- 오스트리아에서 1953년에 제정된 디자인 등록에 관한 법률은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규정 하고 있음.

마. 의장권

- 의장권 보호법(1991년)에 의하여 보호됨.
- 5년간 유효하며, 2회 연장 가능 (최대한 15년간 유효).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8. 통관/운송

가. 통관

1) 개황

수출입 통관절차는 대부분 운송회사와 세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 원산지증명 등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수출입 허가서가 필요함. (2007년 11월 기준,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음)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자국 내에 바다에 인접한 항구가 없는 바, 선박을 이용한 화물은 보통 독일의 함부르크항, 네델란드 로테르담항, 슬로베니아의 코퍼항 등을 통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된다.

2) 수입

1995년1월1일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유럽연합규칙이 오스트리아법에 우선함. 오스트리아의 수입관련 절차 및 규제사항은 Aussenhandelsgesetz(1984/184) 법규, 그리고 경제부장관 령 (1987/630)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획득되지 않은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들 제품들은 Freiwaren이라고 부르는데 위에 언급한 대외경제관계부 규칙 별표 제3에 'F'자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 그것 이다.

한편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물품은 특별한 요구 없이 세관의 통관과정에서 수입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같이 수입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농산물 (HS 코드 1-24류). 이들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승인서를 신청, 교부 받는데 담당관청은 연방농업부이다.
- 다국간 섬유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제품. 이들 제품은 셔츠, 블라우스, 니트 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관계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 일본에 대한 잔존 수량제한 품목, 대만에 대한 특정제한대상 품목 등 특정국가에 대한 특정 품목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수입이 규제되는 품목(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승인은 연방정부경제관계부에서 쿼터를 기준으로 쿼터보유업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입 허용)
- 갈탄 및 의약품

한편 363 Euro 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승인 요건이 면제된다.

3)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시 구비 서류

- 선하증권 (B/L, Bill of Landing)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포장증명서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 통관 절차

- 1단계: 수하인(Consignee)이 수입통관대행업체에 세관등록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
- 2단계: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가 주로 수행)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코드,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음.
- 3단계: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 반입. 물품이 도착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운송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2 ~ 5일 정도 소요된다.

4) 수출

오스트리아의 수출관리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며 대부분의 수출품은 수출허가서가 필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상공부, 농림부)의 수출라이선스가 요구된다. 수출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는 수출 할당량이 있는 제품 이외에 국내 경제상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과 같은 특정 농산물 그리고 무기류, 생화학물질, 민간 및 군용으로 모두 가능한 제품 등과 같은 특수 품목이며, 하이테크제품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88년 1월부터 대외무역법에 새로이 별첨 List C를 신설하여 동 리스트상에 기재된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할 경우 상공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5) 수출 통관

□ 수입 통관시 구비 서류

- 수출면장 (Ausfuhrhandelbestätigung)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수출상품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수출 대상 제품

□ 절차

상기 구비 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ZAPP (B-number) 번호를 발급받은 후 운송 수단을 통해 운송한다.

나. 운송

1) 국제공항

- 빈 국제공항 (Vienna International Airport)
 - Flughafen Wien AG
 - Vienna International Airport
 - Handling Services
 - P. O. Box 1
 - A-1300 Vienna Airport, Austria
 - Tel : (43 1) 7007-22038 / Fax : (43 1) 7007-25733
 - E-mail: v@viennaairport.com
- 잘츠부르크 국제공항 (Salzburg International Airport)
 - 각종 주요부서 연락처
 - 사장단: (43) 8580-100 / 8580-110
 - 간부단: (43) 8580-451 / 8580-458
 - 안 내: (43) 8580-7911 / 8580-7909
 - Salzburg Airport Services: 승객이동 (43) 8580-251 / 8580-260

2) 국제 항구

-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바다에 인접한 항구는 없으며 Wien과 Linz에 다뉴브강의 항구가 있음(Rhein-Main-Donau운하를 통하여 독일과 연결됨).

3) 컨테이너 비용

물류 가격은 운송사별, 화물의 종류별로 상이한 바 표준화된 특정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고 자료 목적으로 아래의 대략적인 가격을 예시해 놓은 바 개별 운송 회사로부터 받는 실제 견적 가격은 아래의 예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독일 함부르크항을 거쳐 비엔나에 도착하는 40 피트 컨테이너 기준 운송료: 4,000 US\$ (2007년 12월 13일 기준)

4) 한국 - 오스트리아 구간 운송 소요 시간

한국-함부르크 항 또는 로테르담 항 구간 해상 운송 소요 시간은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저렴한 운송의 경우 32일, 보통 운송은 28일, 고속 운송은 24일이 소요 된다. 그 밖에 통관 및 오스트리아로의 육상 운송을 위해 추가로 5 ~ 7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자료원: 오스트리아 재무부 인터넷 사이트 <http://www.bmf.gv.at>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2007년 12월 13일)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기본 정책

오스트리아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 국가로 관광 수입에 의해 일부 보전되기는 하나 경상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고용 증대 기여 산업, 수출 산업, 수입 대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외자 기업에 대한 특별한 혜택

투자의 과실 송금 및 기타 외국 기업이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모든 면에서 국내 기업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나 외자 기업만의 특별한 혜택은 없다.

다. 외국 기업 진출 개황

현재 오스트리아에는 SIEMENS, Daimler-Chrysler, VW, BMW 등 독일 기업을 비롯하여 Philips, Sony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음.

외국의 대 오스트리아 투자는 독일이 가장 활발하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EU 가입 이후 자본력이 막강한 독일 업체들에 의한 오스트리아 기업체의 인수, 합병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로 독일 Loewe사에 오스트리아 대형 슈퍼 체인 Billa의 인수를 들 수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EU가입 확정 이후 EU가입이 국민투표에서 거부된 스위스로부터의 투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유럽 및 미국 다국적 기업의 오스트리아 진출 계획이 속속 구체화 되고 있으며, 특히 미주 기업의 대EU 전진 기지로서 대 오스트리아 투자가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권 개방 이후에도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대 동구권 전초 기지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지 않으며 동구권 자체에서도 오스트리아의 EU 가입으로 오스트리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라. 투자 유치 주력 분야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신규 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섬유, 철강, 종이 산업 등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유치 활동은 소극적이다.

오스트리아 내 특정 지역에 대해 외국 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 지역, 철강 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른 영향 지역, 도산 기업 속출 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마. 투자 유관 단체

한편 투자 입지에 대한 심사 등과 관련, 지방 자치단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어 지방 정부로부터 지원도 가능하므로 외국인 투자업체로서는 지방 자치 단체와의 접촉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오스트리아 정부 내에서 외국인 투자와 가장 관계가 깊은 부처는 경제부이며, 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 지침의 제정 등 기본 정책의 수립을 관장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경제부 (Austrian Economic Ministry)
 - 주소: Stubenring 1,A-1010 Vienna, Austria
 - 전화: (43 1) 71 100-0
 - 홈페이지: www.bmwa.gv.at

바. 장단점

오스트리아가 유럽 안보 회의(CSCE) 개최지로서, 그리고 3개 유엔 기구 본부 소재지로서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은 결코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립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 사실은 오히려 오스트리아의 정치 및 사회의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높은 임금 부대비용은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 장점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
 - Infrastructure의 완비
 - 서구 및 동구 시장에의 접근이 용이
 - 안정된 노사 관계와 높은 생산성
 - 중계무역지로서의 강점: 오스트리아는 역사적으로 현 동구권 지역의 거의 전부를 지배 해 왔던 배경, 그리고 냉전 시대에 동구권에 대해 서구의 창구 역할을 해 왔던 관계로 동구 및 서구 양대 지역에 대한 중계무역이 발달했다. 동구권 개방 이후 오스트리아의 중계 무역국으로서의 입지가 약화된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동구권보다 월등한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인해 중계 무역국으로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다.
- 단점
 - 높은 임금 수준과 임금 부대비용

사.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

첨단 기술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 오스트리아의 가장 규모가 큰 투자 진흥 기금은 ERP Fund이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1) 투자 진흥 기관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도 오스트리아의 기업 보조 정책의 혜택을 오스트리아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2007년 12월 기준 기업 보조 정책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10개 기관이 있고 외국인 투자시 이용이 용이한 기관은 다음 7개 기관이다.

- 유럽 진흥 정책 기금(ERP/ -REG, -Inter): 지역 개발, 국제 협력, 무역 진흥
- 중소기업 보증 기금 유한회사(Burgess): 중소기업 진흥
- 투자 대여 주식회사(TOP): 기술 개발 보조, 무역 진흥, 국제 협력
- 상공 연구진 흥기 금(FFF): 기술 개발 및 혁신 보조
- 채무 보증 유한회사(FGG): 지역 개발, 기술 개발 및 혁신
- 환경 보호 진흥 정책 기금(UFG): 환경 보호
- 감사 은행 수출 진흥 기금(Oak): 무역 진흥, 국제 협력

수출 산업의 경우 강화된 정부의 수출 장려 책을 활용할 수 있다.

2) EU 보조금

EU에서 낙후 지역으로 지정한 Burgenland州, 일부 Steiermark州 등에 투자할 경우 EU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同 지역에 투자할 계획서를 지방 정부와 협의를 거쳐 EU에 제출하면 총 사업에 지출되는 자금의 최대 50%까지 EU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3)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및 활동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는 심각한 국가 누적 부채 감소 방안으로 실행 중인 초 긴축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약 US\$ 30억의 기금을 조성, 지원할 예정이다.

아.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법규

1)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한 법규는 없으며, 다만 생산성 향상과 수입 대체, 수출 증진이 가능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 기관을 이용하여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2)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제도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은 연방 차원과 지방 차원으로 이원화되어있으며 연방 차원의 기관이 거시적 홍보에 주력하는 대신 지방 차원의 기관은 실무선에서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 특히 지방 차원의 기관은 대개 노사정 공동으로 운영에 참가하고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문제와 유관한 직원이 문제해결에 나섬으로써 신속한 문제 처리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1982년부터 Austrian Business Agency라는 연방 차원의 투자 유치 전문 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대 오스트리아 투자상 제반 문제에 대한 상담, 알선 및 대외 홍보를 전담하고 있다.

ABA의 구체적 역할로서는 전반적인 대외 홍보, 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 및 법률 정보 제공, 금융, 조세 및 각종 인센티브 관련 전문 정보 제공, 오스트리아 회사 중 투자 협력 및 합작 계약 가능 업체 발굴 소개, 정부 기관 및 법률가, 은행 등과의 접촉 협상 대행 등이 있다.

자. 투자 허가

오스트리아는 거의 전 산업 분야(99.7%)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 금지 대상종목은 환경오염산업, 국가독점사업 등 극히 일부분이다.
- TV 무선 방송은 2002년부터 자유화 되었다.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국과 금지대상을 통일할 예정이다.

1) 준비서류

관련서류는 반드시 독어 또는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을 거친 후 주한 오스트리아 상무관으로 확인 인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지사개설 관련 법규와 비자에 관해서는 주한 오스트리아 상무관실에서 업종별로 자세한 상담을 실시하므로 사전 준비서류 및 진출요령을 상의하면 좋다.

- 주한 오스트리아 상무관실 연락처
 - 상무참사: Mr. Werner Somweber(쑤베버)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1, 교보빌딩 1914호
 - 전화 : 732-6649, 732-7330
 - 팩스 : 732-4337
 - 홈페이지 : www.austriantrade.org/korea
 - 이메일 : Werner.somweber@austriantrade.org

2) 비자취득

한국인은 누구나 무비자로 오스트리아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이 경우 동인은 자동적으로 관광목적의 체류자로 분류된다. 일단 오스트리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자동적으로 관광목적의 체류자로 분류된 사람이 지사 또는 연락 사무소 설립을 위한 장기체류를 신청할 경우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외국인 체류법상 입국 목적에 위배된다 하여 거부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3) 현지 투자허가 관련 절차

투자허가 관련 절차 진행은 현지의 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아래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한국과 관련이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다. ABA에서 일단 무료상담 1번은 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ABA나 변호사 협회로부터 다른 변호사를 추천 받을 수 있다.

- Strohal & Kretschmer
 - 주소: Franz-Josefs-Kai 3, A-1010 Wien
 - 전화: (43 1) 5131911
 - 팩스: (43 1) 5131911 - 24

- 이메일: advocates@advocates.cc
 - 홈페이지: www.advocates.cc
 - 추천사유: 대표 Dr. Theodor Strohal은 한류팬으로서, 한국에서 3년간 생활하며 화염종 불도를 배운 바 있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다. 동 합동법률사무소는 경제분야 전문이며, 독일 뮌헨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 DSC, Rechtsanwalt Partnerschaft.
 - 주소: Währinger Strasse 2-4, A-1090 Wien
 - 전화: (43 1) 3194520
 - 팩스: (43 1) 3198322
 - 이메일: dscvienna@aon.at
 - 홈페이지: www.dscvienna.at
 - 추천 사유: 중대형 법무법인으로서, 한국S전자의 오스트리아 자회사 설립에 관여한 바 있다.
- WOLF THEISS & PARTNER
 - 주소: Schubertring 8, A-1010 Wien
 - 전화: (43 1) 51510
 - 팩스: (43 1) 515 1025
 - 이메일: choenig@wtp.at
 - 홈페이지: www.wtp.at
 - 추천 사유: 대형 법무법인으로서, 동유럽지역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큰 회사이다. 아시아 지역 회사들과 경험도 있다고 하며, 한국회사와 접촉을 바라고 있다.
- Braunegg, Hoffmann & Partner, Rechtsanwälte
 - 주소: Gonzagagasse 9, A-1010 Wien
 - 전화: (43 1) 53 110-0
 - 팩스: (43 1) 53 110-10
 - 이메일: office@bhp-law.at
 - 홈페이지: www.bhp-law.at
 - 추천사유: 비엔나 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회사이다.

자료원: ABA 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기업 투자동향

- 지리적인 특성상 EU 국가들, 특히 독일로부터의 직접 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부동산/IT/R&D(45.13%), 유통(18.33%)에의 투자가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지역별 외국인 투자 통계는 2007년 12월 현재 별도로 입수 가능한 것이 없다.

국가별 대(對)오스트리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국가	순투자액			누적잔존투자액 (2005년 말 기준)
	2004	2005	2006	
독일	1,204	3,222	2,847	22,480
미국	544	423	-1,866	7,199
네덜란드	165	-547	129	5,585
영국	283	215	365	4,732
스위스	-299	109	-583	4,631
프랑스	214	100	-71	1,671
일본	10	4	26	1,151
이태리	-12	2,203	35	990
스웨덴	311	-56	94	861
스페인	-5	30	720	802

자료원: OeNB (2007년 12월 13일)

2005년 말 기준, 업종별 외국인 대(對)오스트리아 직접투자 현황(잔존투자액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업종	투자액	점유율(%)
농림어업	23	0.04
광업/에너지산업	386	0.66
식품제조업	273	0.46
섬유/의류/피혁	246	0.42
목재/목제가공	51	0.09
제지/인쇄	1,323	2.25
화학/고무/플라스틱	3,302	5.61
비금속 광물	634	1.08
금속	807	1.37
기계산업	1,023	1.74
전기/전자/광학 기계	1,614	2.74
자동차산업	376	0.64
기타제조업(재활용)	41	0.07
전기/가스/수도	331	0.56
건설업	77	0.13
유통업	10,794	18.33
호텔/레스토랑	158	0.27
교통/통신/창고업	2,121	3.60
금융업	6,309	10.72
부동산/IT/R&D	26,571	45.13
공공서비스	44	0.07
총누계	58,874	100.0

자료원: OeNB (2007년 12월 13일)

나. 주요 외국 투자 기업 리스트

- 자동차 산업
 - BMW, DaimlerChrysler, General Motors, Saab, MAN
- IT 산업
 - Alcatel, Digital, Hewlett Packard, Siemens, Sony, IBM
- 생명공학
 - Boehringer Ingelheim, Baxter, Novartis

자료원: ABA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한국의 對 오스트리아 투자 현황

투자 현황 총괄

(단위: 천 불)

투자 신고		실제 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	84,189	18	76,982

자료원 : 한국수출입 은행(2007년 12월 13일)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 불)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	9,222	6	66,605	2	461	6	694	18	76,982

자료원 : 한국수출입 은행(실 투자금액 기준, 2007년 12월 13일)

- 한국의 對 오스트리아 투자는 (주)메디슨의 현지 초음파의료기기 제조업체(Kretztechnik) 인수 투자('96.5)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판매법인 설립 투자가 대부분임.

나. 대(對) 오스트리아 투자 한국기업 리스트

업종	회사명	신고금액(천 불)	투자금액(천 불)
제조업	Kretztechnik AG	14,709	8,900
	Son Kwang Woong Geschenkartikel	300	82
	Jungwoo Development PTY. Ltd.	221	222
	Solar. SI Solarenergic GmbH	18	18
도소매업	Chevrolet Austria GmbH	67,039	66,366
	Damoa	136	136
	LG Electronics Austria GmbH	99	-
	GMS Plantech GmbH	44	44
	H. Kang GmbH	33	33
	Trieb	17	17
	GMP Austria Handels GmbH	9	9
운수창고업	FNS Forwarding and Logistics GmbH	307	307
	Euronet Cargo Logistics GmbH	154	154
숙박음식점업	Japanisches Restaurant Sapporo GmbH	351	-
	Arirang	168	130
	Seo Mae Sil GmbH	121	121
	Café-Restaurant Picnic GmbH	93	73
	Kim Hyang Man	77	77
	L.F.S. Restaurant Riebs GmbH	194	194
	Well Being	99	99
계		84,189	76,982

자료원 : 한국수출입 은행(2007년 12월 13일)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유치 정책 개황

-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집약적 산업의 신규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수입대체, 수출증진이 가능한 산업도 주요 투자유치 대상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 섬유, 철강, 종이산업 등 과도한 시설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투자유치 활동은 소극적이다.

나. 투자유치 관련 법규

- 특별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법은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 수출산업의 경우 강화된 정부의 수출장려책을 활용할 수 있다.

다. 투자우대제도

- 첨단기술 및 고용효과가 큰 산업, 지역발전예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 오스트리아의 가장 규모가 큰 투자 진흥 기금은 ERP Fund이다.
- 오스트리아 내 특정지역에 대해 외국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지역, 철강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른 영향지역, 도산기업 속출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라. 투자진흥기관

-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도 오스트리아의 기업보조정책의 혜택을 오스트리아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2007년 12월 기준 기업보조정책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10개 기관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 시 이용이 용이한 기관은 다음 7개 기관이다.
 - 유럽진흥정책기금(ERP/ -REG, -Inter) : 지역개발, 국제협력, 무역진흥
 - 중소기업 보증기금 유한회사(Buerges) : 중소기업 진흥
 - 투자대여 주식회사(TOP) : 기술개발 보조, 무역진흥, 국제협력
 - 상공연구진흥기금(FFF) : 기술개발 및 혁신 보조
 - 채무보증 유한회사(FGG) : 지역개발, 기술개발 및 혁신
 - 환경보호진흥정책기금(UFG) : 환경보호
 - 감사은행 수출진흥기금(OeKB) : 무역진흥, 국제협력
- EU에서 낙후 지역으로 지정한 Burgenland州, 일부 Steiermark州 등에 투자할 경우 EU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 동(同)지역에 투자할 계획서를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EU에 제출하면 총 사업에 지출되는 자금의 최대 50%까지 EU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마. 몰수 및 보상

-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유 재산 보호가 철저하게 지켜지므로 갑작스러운 국유화 조치는 상상할 수 없다.

바. 투자 유치활동 기관

오스트리아 정부 산하 투자유치 전문기구로서 ABA(Austrian Business Agency)가 있는 바 동 기관 에서는 투자 환경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초기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최초 접촉 포인트로서 활용할 만하고, Internet Homepage에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기관명: ABA(Austrian Business Agency)
 - 주소: Openrring 3, A-1010 Vienna, Austria
 - 전화: (43 1) 588-580 / Fax: (43 1) 586-8659
 - E-Mail: office@aba.gv.at
 - 홈페이지: www.aba.gv.at
 - 2007년 12월 현재 한국 내 담당인사는 오스트리아 상무참사 좀베버.
 - 성명: Mr. Werner Somweber
 -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1, 교보빌딩 1914호
 - 전화: 732-6649, 732-7330
 - 홈페이지 : www.austriantrade.org/korea
 - E-Mail: werner.Somweber@austriantrade.org
 - Fax: 732-4337
- ABA는 미국 뉴욕 및 일본 동경에 office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사무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뉴욕 사무소
 - 주소 : 120 West 45th Street, 9th Floor, New York, 10036
 - 전화 : (1-212) 398-1221 / FAX : (1-212) 398-1511
 - 동경 사무소
 - 주소 : 3-13-3 Motoazabu, Minato-ku, Tokyo 106-8691
 - 전화 : (81-3) 3796-1331 / FAX : (81-3) 3796-1332
- ABA의 구체적 역할
 - 타당성 조사관련 자료 및 법률정보 제공
 - 투자대상지역 건물이나 부동산 현황 파악 및 입주 제의
 - 금융, 조세 및 각종 인센티브 관련 전문정보 제공
 - 오스트리아 회사 중 투자협력 및 합작계약 가능업체 발굴 소개
 - 정부기관 및 법률가, 은행 등과의 접촉 협상대행 등

한편 ABA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중요한 책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STARTING BUSINESS IN AUSTRIA
- TAX ASPECTS OF AUSTRIA
- AUTOMOTIVE INDUSTRY IN AUSTRIA

- PLASTICS IN AUSTRIA
- ELECTRONIC INDUSTRY IN AUSTRIA
- MACHINE AND TOOL INDUSTRY IN AUSTRIA

투자 입지에 대한 심사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어 지방정부도 외국인 투자 업체로서는 중요한 컨택트 포인트이다.

자료원: ABA 홍보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진출형태

오스트리아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똑같이 취급 받는다. 특정한 생산 및 연구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 보조금 수령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진출 외국 기업의 약 80% 이상이 유한회사(GmbH) 형태를 취한다. 설립에 소요 되는 총 비용은 자본금의 약 10-15% 수준이다. 지점(Branch Office)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현지 회사 설립 추진 단계에서 이용 하고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1) 지점

오스트리아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현지법인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점 설립을 반기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본사 이익과 지점 이익을 정확히 구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등 세제 업무가 복잡하며, 이익이 오스트리아 세제로 사정되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지점 형태의 설립을 꺼리고 있다.

2) 연락 사무소

현지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공식적으로는 연락 사무소이다. 연락 사무소에서는 통상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본사와 연결시켜서 연락 사무소 자체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항공사들이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연락 사무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락 사무소라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업무 기록과 금전 관련 증빙 자료를 포함하는 완전한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3) 법인

오스트리아에 진출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대부분 유한회사(GmbH)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선호되는 이유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갖는 법적 지위와 대우가 거의 동등하지만, 주식회사 설립이 유한회사 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 곧바로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 형태가 선호되는 것이다.

나. 회사설립 절차(유한회사 설립 기준)

1) 통역 선정

아래에 추천된 오스트리아 법무 법인이나 변호사들의 경우 영어에 능통하므로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 담당자가 영어나 독일어에 능숙하다면 별도의 통역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측 담당자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거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통역을 필요로 한다면 빈 무역관을 통해 통역 선정이 가능하다.

2) 변호사 선정

상술한 오스트리아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현지 회사 설립의 실무는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관례이다. 오스트리아 현지인들도 회사를 설립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법적 하자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으며, 한편 여러 가지 복잡한 관련 사무 일체를 변호사가 도맡아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업무를 위한 세무사, 공증인 등도 소개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의 발기 사원은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전문 변호사들이 일단 발기인으로 등록하고 회사 설립 후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

□ 대표적 변호사 및 법무 법인

아래 변호사 및 법무 법인은 한국과 관련이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ABA(Austrian Business Agency)를 통해 일단 무료 상담 1번은 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ABA나 변호사 협회로부터 다른 변호사를 추천 받을 수도 있다.

- Strohal & Kretschmer
 - 주소: Opernring 10, A-1010 Wien
 - 전화: (43 1) 5131911 / 팩스: (43 1) 5131911 - 24
 - 이메일: advocates@advocates.cc
 - 홈페이지: www.advocates.cc
 - 추천사유: 대표 Dr. Theodor Strohal은 한류팬으로서, 한국에서 3년간 생활하며 화염종 불도를 배운 바 있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다. 동 합동 법률 사무소는 경제분야 전문이며, 독일 뮌헨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 DSC, Rechtsanwalt Partnerschaft.
 - 주소: Währinger Strasse 2-4, A-1090 Wien
 - 전화: (43 1) 3194520 / 팩스: (43 1) 3198322
 - 이메일: dscvienna@aon.at
 - 홈페이지: www.dscvienna.at
 - 추천사유: 중대형 법무법인으로서, 한국S전자의 오스트리아 자회사 설립에 관여한 바 있다.
- WOLF THEISS & PARTNER
 - 주소: Schubertring 8, A-1010 Wien
 - 전화: (43 1) 515 10 / 팩스: (431) 515 10-25
 - 이메일: choenig@wtp.at
 - 홈페이지: www.wtp.at

- 추천 사유: 대형 법무 법인으로서, 동유럽 지역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큰 회사이다. 아시아 지역 회사들과 경험도 있다고 하며, 한국 회사와 접촉을 바라고 있다.
- Brauneegg, Hoffmann & Partner, Rechtsanwälte
 - 주소: Gonzagagasse 9, A-1010 Wien
 - 전화: (43 1) 53 110-0 / 팩스: (43 1) 53 110-10
 - 이메일: office@bhp-law.at
 - 홈페이지: www.bhp-law.at
 - 추천 사유: 비엔나 변호사 협회가 추천한 회사이다.
- 비엔나 변호사 협회(Rechtsanwaltskammer Wien)
 - 주소: Ertlgasse 2/Ecke Rotemturnstrasse 13, A-1010 Wien
 - 전화: (43 1) 533-27180
 - FAX: (43 1) 533-271844

3) 회사 설립 절차

- 정관 체결 및 공증
- 이사 임명을 사원들이 결의하고 결의안 공증
- 법정 설립자본자본금 은행 예치
- 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 거래세 납부
- 관할 법원 등기소에 회사 등록
-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변호사 선정 후 약 1 ~ 2달
-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은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4) 회사 설립 비용

- 최소 설립 자본금
 - 유한회사의 법정 최소 자본금은 Euro 35,000 이다.
 - 그러나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단 법정 최소 자본금의 50%인 Euro 17,500을 은행에 예치한 증명이 있으면 된다.
 - 지분의 법정 최소 단위는 Euro 70 이다.
- 각종 세금 및 요금
 - 자본 거래세 :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1%
 - 부동산 취득세 : 신고 가의 3.5%
 - 소유권 등기 : 등기 액의 1%
- 기타 비용
 - 상기 나. 항에 명시된 소요자금고를 포함하여 기타 공증료, 변호사 비용 등 회사 설립을 위해 소요되는 총 비용의 합계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약 10 % ~ 15%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
 - 변호사를 선임할 때 예상되는 소요 비용의 수준을 문의해 볼 수 있다.

다. 투자방식

1) 투자형태의 결정

외국인의 기업 지분소유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므로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 형태의 결정은 전적으로 시장상황 및 경제성 그리고 시장침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작투자, 단독투자 또는 현지기업 인수할 것인가 결정하면 된다. 기업의 법적 형태로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한회사가 바람직하다. 유한회사의 설립이 주식회사보다 간단하며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손쉽게 때문이다.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인 ABA와 접촉하면 다량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ABA와 협상하여 우선 관련산업 및 시장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투자 후보지를 선정한다. 지방정부 또는 EU로부터 투자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인센티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자진흥기금의 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업종, 예를 들어 요식업, 호텔업의 경우는 영업면허가 필요한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내국인들로부터 차용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파트너 선정

합작투자자와 단독투자자의 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차이는 없으며 단지 합작투자의 경우 파트너 선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100% 단독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현지 사정에 밝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일은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오스트리아에 현지법인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 S사 및 L사 모두 진출 초기에 현지 에이전트를 심분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적당한 파트너 선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투자 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당해 지방의 투자유치기관 및 지방정부와 접촉하여 파트너 물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 문의할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기관들의 추천은 대개는 신뢰해도 좋으며, 의심이 갈 경우에는 각종 신용조사 기관에 의뢰해 보면 된다.

- KSV (오스트리아의 가장 대표적 신용조사 기관)_
 - 주소 : Wagenseilgasse 7, A-1120 Wien
 - 전화 : (43 50) 1870-1000 / 팩스 : (43 50) 1870 99-1000
 - 홈페이지 : www.ksv.at
 - 이메일 : ksv@ksv.at
 - 신용조사가격 : 1건 당 57 ~ 90 유로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Bundeswirtschaftskammer)
 - 주소 : Wiedner Hauptstrasse 63, A-1045 Wien
 - 전화 : (43 5) 90 900
 - 홈페이지 : <http://wko.at>

물론, 현지 회사 설립 후 시장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정말 파트너가 필요한 것인지 천천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일반 오스트리아기업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5) 회사 설립비용

자본 거래세(Kapitalverkehrssteuer)는 불입자본금의 2%이다. 공증료는 주식자본금에 따라 가중 계산된다. EUR 36,336 이상-EUR 72,673 이하 = EUR 603-EUR 1,003. 공칭자본금이 EUR 72,674 이상인 경우, 공증료는 EUR 1,004-EUR 6,737 (최고 한도료)이다.

등기 수수료는 명목 주식자본금의 0.45-0.55% 사이이며,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액의 3.5%이다. 이외에 소유권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 정도 된다.

6) 자본 및 이윤의 본국 송환

일반적으로 이윤의 해외 송환과(이익 배당금의 형태로서) 자본의 회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다.

7) 기타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로서는 현금융자를 비롯, 보조금, 저리 혜택의 수출 신용 및 보증, 종업원 훈련 보조, R & D보조,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이 있다.

과거 동서 무역을 위한 금융 및 무역 중개기로서 오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페이팅, 스왑거래 등 현대적인 국제금융 기법들이 이들 금융기관 등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노동 조합은 일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함. 노동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는 현지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 놓인다.

현지부품 구입의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자기기업에 대해 수출의무 비율을 강제하는 제도도 없다.

라. 공장 설립

1) 공장설립 개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여러 형태 중 유한책임회사(GmbH)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는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AG)보다 그 설립이 간편하며 규제법규가 적다.
- 1인 유한회사가 가능하므로 설립 직후 모회사가 100% 지분을 인수하면 실질적으로 현지 법인이면서도 해외지사 형태를 띄게 된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설립 이전에 공장부지를 구입하면 다시 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이중의 일이 발생하므로 회사설립 후 공장설립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다.

2) 금융

외국인 투자자들이 설립한 법인은 현지 금융은 물론 오스트리아 연방 및 지방정부,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종류의 기업진흥기금 이용에 있어서도 오스트리아 내국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수도 빈에만 50개 이상의 외국은행이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을 정도로 국제금융 중심지 역할을 수행 중이다. 과거 동서 무역을 위한 금융 및 무역 중개기로서 오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페이팅, 스왑 거래 등 현대적인 국제금융 기법들이 이들 금융기관 등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3) 공장부지 현물출자

공장부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정부공인 감정사로부터 가격감정을 받아야 한다.

4) 공장부지의 구입

오스트리아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한국과는 달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법인이 아니다)은 외국인이 대주주, 혹은 완전 소유주일지라도 내국회사 취급을 받음으로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 특별한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함.

5) 공장부지의 임차

오스트리아 상법에 의해 설립되어 내국회사 취급을 받는 경우는 물론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도 공장부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6) 공장건물의 건축

회사 설립 후 법인의 이름으로 건축 회사를 선정하여 건축하면 된다. 오스트리아 내국인 회사의 경우와 전혀 다른 바가 없다.

7) 관련 세무

회사 설립의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인센티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고문과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8) 사전 허가 및 등록

투기 목적이 아닌 순수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AUSTRIAN NATIONAL BANK)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상환 자본과 대부금은 국립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 및 국내 기업들은 지방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

9) 기타유의 사항

외국인 노동허가의 취득

- 일상적인 경영에 참가하는 외국인 이사는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피고용인대표 감사제도

-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이 고용되었거나 자본금이 Euro 7,267을 초과하고 50명 이상의 지분소유주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감사의 1/3은 피고용인들의 대표들이어야 한다.

마.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비엔나 변호사 협회(Rechtsanwaltskammer Wien)

- 주소: Ertlgasse 2 / Ecke Rotenturmstrasse 13, A-1010 Wien
- 홈페이지: www.rakwien.at
- 전화: (43 1) 533-2718-0 / FAX: (43 1) 533-2718-44

□ 오스트리아 공증인 협회(Österreichische Notariatskammer)

- 주소: Landesgerichtsstraße 20, A-1010 Wien
- 홈페이지: <http://www.notar.at/de/portal/>
- 전화: (43 1) 424 4509-0 / FAX: (43 1) 406 3475

□ 공인회계사 및 신탁회사 협회(Kammer der Wirtschaftstreuhänder)

- 주소: Schönbrunner Straße 222-228/1/6, A-1120 Wien
- 홈페이지: www.kwt.or.at
- 전화: (43 1) 811 73-0 / FAX: (43 1) 811 73-100

바. 투자관련 정부 기관

1) ABA (Austrian Business Agency)

- 주소: Openring 3, A-1010, Wien, Austria
- 전화: (43 1) 588-580 / 팩스: (43 1) 586-8659
- 이메일: office@aba.gv.at
- 홈페이지: www.aba.gv.at
- 성격: 오스트리아 노사정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인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에이전시(AB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연방차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사이트이다.

자세한 지역정보는 각 州별로 존재하는 투자유치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데, 상기한 ABA와 접촉하면 입수 가능하다. 산업 분야별 정보 ABA를 통하거나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입수할 수 있다.

2) Federal Economic Chamber (연방상공회의소)

- 주소: Wiedner Hauptstraße 63, A-1045 Wien
- 전화: (43 5) 90 900
- 홈페이지: <http://portal.wko.at>

- 성격: 오스트리아 상공인 총 연합인 오스트리아연방상공회의소는 오스트리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용자연합 단체이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산별로 조직된 산하 단체와 연결 가능하며 산별 단체를 통해 무역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3) Federal Economic Chamber of Vienna (비엔나 지방 상공회의소)

- 주소: Stubenring 8-10, A-1010, Wien
- 전화: (43 1) 514 50
- 홈페이지: <http://wko.at/wien>
- 성격: 비엔나 지방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비엔나 지역의 상공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참고

- 각 주(州)별 지방 상공회의소와 관련한 정보
- <http://portal.wko.at/portal.wk?AngID=1&CtxID=16&DstID=686&subcontentparam=AngID%3d1>

5) Austrian National Bank (오스트리아 국립중앙은행)

- 주소: Otto-Wagner-Platz 3, A-1090 Wien
- 전화: (43 1) 404 20-0 / 팩스: (43 1) 404 20-2399
- 홈페이지: www.oenb.at
- 성격: EU 중앙 은행 출범 이후 통화량 조절 등의 기타 정책 결정과 관련한 기능은 많이 사라졌지만, 무역 및 투자 관련 각종 통계가 집계되어 발표되는 곳이다.

6) 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Arbeit (오스트리아 경제 노동부)

- 주소: Stubenring 1, A-1011, Wien, Austria
- 전화: (43 1) 71100-0
- 홈페이지: www.bmwa.gv.at
- 성격: 투자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종업원 고용 등 기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다.

자료원: ABA 자료 및 빈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6. 투자입지여건

가. 각 주(州)별 입지 조건 요약

물가수준 및 실질구매력은 100을 기준치로 삼은 것이며, 실질 구매력은 음성소득까지로 포함한 “실질” 개념이다. 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2005년 말 기준 세전 금액이다.

1) 비엔나(Wien)

- 중심도시: 비엔나
- 인구: 1,651,437

- 물가 수준: 101.9
- 실질 구매력: 106.1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7,644유로
- 특징: 오스트리아의 수도로 다수의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이 위치해 있다.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 쉽고 제반 인프라가 가장 잘 발달된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 및 인건비 수준이 높다.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스라바와의 “쌍둥이 도시(Twin City)” 계획, 동구권 국가들에 근접한 지정학적 위치 등의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

2)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

- 중심 도시: 상트 펠턴
- 인구: 1,581,422
- 물가수준: 98.0
- 실질구매력: 102.4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6,805유로
- 특징: 오버외스터라이히州와 함께 기계 및 자동차 공업 관련 업체들이 많은 지역으로 오스트리아 유일의 자동차 조립 공장인 Magna Steyr社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수도 비엔나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지하기에 좋은 지역 중 하나이다.

3) 포탈베르크(Vorarlberg)

- 중심도시: 브레겐즈
- 인구: 363,526
- 물가 수준: 104.2
- 실질 구매력: 96.8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4,922유로
- 특징: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산악 지역이라는 특성상 공업보다는 관광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

4) 잘쯔부르크(Salzburg)

- 중심도시: 잘쯔부르크
- 인구: 528,351
- 물가수준: 104.0
- 실질구매력: 104.0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4,108유로
- 특징: 모짜르트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 잘쯔부르크는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독일 뮌헨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계 공업 관련 업체들도 많은 지역이다.

5) 오버외스터라이히(Oberösterreich)

- 중심도시: 린쯔
- 인구: 1,402,050
- 물가 수준: 98.2
- 실질 구매력: 97.9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5,395유로
- 특징: 오스트리아 제1의 공업 도시 린쯔가 위치한 지역으로, 각종 기계 및 자동차 공업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세계적인 철강 기업 Voest Alpine社도 이 지역에 있다.

6) 슈타이어막(Steiermark)

- 중심도시: 그라쯔
- 인구 : 1,202,087
- 물가수준 : 98.2
- 실질구매력 : 94.5
- 근로자 연평균 임금 : 24,521유로
- 특징 : 오스트리아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온천 및 휴양 시설들로 더욱 유명한 지역이다. 자동차 및 의료 장비 관련업체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7) 티롤(Tirol)

- 중심도시 : 인스부르크
- 인구 : 697,435
- 물가수준 : 102.9
- 실질구매력 : 95.7
- 근로자 연평균 임금 : 22,934유로
- 특징 : 산악 지역이라는 특성상 스키 등의 관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2차 산업 등의 발달은 미미한 지역이다.

8) 케른텐(Kärnten)

- 중심도시 : 클라겐푸르트
- 인구 : 560,300
- 물가수준 : 97.2
- 실질구매력 : 94.5
- 근로자 연평균 임금 : 24,143유로
- 특징 : 이태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광지로서 더 유명한 지역이다. 제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2004년 9월까지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클라겐푸르트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했었다(현재는 수도 비엔나에 있음).

9) 부르겐란트(Burgenland)

- 중심도시 : 아이젠슈타트
- 인구 : 279,317
- 물가수준 : 97.7
- 실질구매력 : 94.5
- 근로자 연평균 임금 : 24,974유로
- 특징 : 농업 등의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2차 산업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이다.

나. 오스트리아 내 산업 단지

1) 단 지 명 : Industriezentrum Noe-Sued

- 소재지: 니더외스터라이히주 남부
- 부지면적: 약 280 ha

- 공단특성: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인 근교에 위치한 산업단지로서 특화된 산업분야는 없다.
- 입주자격: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니더외스터라이히 투자유치기관이자 공단 소유자인 에코플러스(ECO Plus)측이 해당 프로젝트를 허가하면 입주자격이 생긴다.
- 입주비용: 에코플러스(ECO Plus)측과 해당 프로젝트를 상의하여 임대 또는 구입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임대의 경우, 공장 또는 사무실의 건축은 에코플러스측에서 담당한다.
- 월 임대가격=공장용도 부지 평방미터 당 최하 약 4.07 Euro= 사무실용부지 평방미터 당 최하 약 8.72 Euro
- 토지 구입가격 = 평방미터당 109 - 145 Euro
- 입주가능시기: 제한 없다.
- 교통 및 통신: 교통망은 오스트리아 남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지역으로의 고속도로와도 연결된다. 통신망 역시 잘 구비되어 있다.
- 인프라스트럭처: 여타 선진국 수준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100 - 200 명 수준의 인력 조달은 언제나 가능하다.
- 기본급 임금수준은 최하 월 1,450 Euro (주당 40시간기준)
- 외국기업입주 현황: 2007년 12월 현재, 단지에 상주하고 있는 총 280여 개 기업 중 약 30%가 외국인투자 기업
- 한국기업 입주현황: 2007년 12월 현재 없음.
- 우대조치: 특별히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없으나 Case by case로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공단연락처

- Industrierezentrum NOe-Sued
- Strasse 3, ECO Plus-Buerogebaede Postfach 70, A-2355 Wiener Neudorf, Austria
- Tel : (43 2236) 61626-0
- Fax : (43 2236) 61626-40

3) 공단 입주 안내 및 홍보처

- 주소 : ECO PLUS P.O.B. 1476 Lugek 1, A-1011 Wien, Austria
- Tel : (43 1) 513 7850-0
- Fax : (43 1) 513 7850-44

다. 입지 선정 시 유의점

현재 오스트리아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특혜나 인센티브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개별 세정부 차원의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인건비 비교 이외에 지역별로 필요한 고급 인력의 수급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바, 지역별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운송 등의 관련 인프라 구축 여부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료원: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7 및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7. 노무관리

가. 고용

- 사용자와 피고용자간의 인터뷰 후 고용계약 작성.
- 사용자는 고용사실이 확정된 후 이를 해당 사회보험회사에 통고하여야 함.
- 업체별로 견습기간(최고1개월)을 거쳐 정식 사원이 됨. 견습기간이라도 사회보험 회사에 통보가 필요함.

나. 인력

- 오스트리아의 인력은 서유럽 내에서도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생산성 향상부문에서 지난 5년간 큰 두각을 나타내 왔음.

다. 임금

- 오스트리아의 임금수준은 EU 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안정된 노사관계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국제경쟁에 대처하고 있다. 제조업부문 연평균 급여(2005년 기준, 세전)는 25,451 Euro임.

라. 임금부대비용

- 임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함. 부담액은 임금의 고저에 따라 차등 적용됨.

고용주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 및 임금에 대한 비율

의료 보험료	3.55 - 4.6%
실업 보험료	3.00%
사회 연금 보험	12.55%
사 고 보 험	1.5%
주택건설보조기금	0.5%
기상피해대책기금	0.7%
체불임금대책보험	2.3%
도산 방지 기금	0.7%

자료원: Wiener Gebietkrankenkasse, Beitragstabelle 2007/9

- 이외에도 자녀양육비 보조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
- 오스트리아 제조업부문의 평균적 임금부대비용 구성내역은 순임금 대비 다음과 같음
 - 결근에 따른 발생비용 = 18.4%
 - 특수수당 = 23.0%
 - 퇴직금 = 6.8%
 - 법적 복지후생비 = 41.5%
 - 자율적 복지후생비 = 5.4%
 - 임금관련 세금 = 4.2%
 - 직업훈련비 = 1.0%
 - 기타 = 2.0%
 - 합계 = 102.3% (순임금 = 100)

마.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제도

사무직근로자법(Angestellten Gesetz, 약어 AngG, 제국법발포지 1921년 292호) 제 16조에 의거 사무직근로자는 특수 수당 형태의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동법은 상여금의 수준을 기본급의 최소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사무직노조 연맹 및 공무원 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1년에 월 기본급 200% 이상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도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음.

바. 생산직 근로자 관련 상여금 법규

생산직 근로자들에 상여금을 규정한 노동법규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노동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오스트리아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들은 오스트리아 노총 산하 산별 노조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음. 현재 사용자와 산별 노조간에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에서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월 기본급의 200% 이상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

사. 상여금 지급시기

상여금 지급시기는 단체협약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회사별로 차이가 많음. 공무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매 분기 마지막 달에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음. 일부 회사는 휴가비와 크리스마스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여름과 겨울에 각각 100%씩 두 번 지급하기도 함.

아. 외국인의 고용

- 외국인 고용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인들은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취업이 가능하다.
- 최근 들어 내국인 실업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여서 노동허가 취득이 매우 힘들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1997년부터는 일정한 노동허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사무직이나 일반생산직에 대한 쿼터는 전무하며, 간부급 사원이나 특수 숙련공에 대해서만 일부 쿼터가 있을 뿐이다.
- 모든 자격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쿼터가 이미 채워진 경우에는 노동허가 발급이 거부된다.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황

-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하면서 사회적시장(Social Market)정신이 가미된 세제를 채택
- 직접, 간접 조세부담(예산총액에서의 동종세입의 비중)은 직접세 27.8%, 간접세 40.5%, 사회보장부담 31.7%이다(2007년 2월 기준).
- 간접세는 EU권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향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 조세부담률은 약 44퍼센트이며 이수치는 EU권에서도 중상에 속함.

나. 연방세

1) 납세 대상

- 거주자 납세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납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소득에 대해 납세 대상이 됨.
-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영업이득으로 과세됨.
- 은행구좌, 유가증권, 채권이자에 대한 25 퍼센트 원천과세.

2) 제세 원칙

- 개인에 대한 소득은 종합 개인소득세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
- 회사소득에 대해서는 정액세율(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 25%)가 과세.
-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율 적용.

3) 세율

- 부가가치세: 공산품 20%, 식료품 10%.
- 자본투자세는 공칭자본금의 2% 수준임.
- 재산세는 1994년 폐지 되었음.

4) 법인 관련 세제

- 주식 배당금,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참여에 따른 이익배당에 대한 세율 22%, payroll tax: 3%.
- 법인유지세(Koerperschaftssteuer): 모든 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매년 Euro 1090이 부과됨. 1996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동세를 Euro 3633으로 인상하였으나 1997년 1월 오스트리아 대법원에서 과다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다시 Euro 1090로 내렸음.
- 오스트리아의 회사법은 한국의 회사법과는 달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유지세가 부과되는 회사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뿐임.

5) 개인 소득세

- 연간 소득이 Euro 4,128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면제됨.
- 3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월 소득이 Euro 836 이하인 경우도 소득세 면제.
- 연말에 가족현황, 의료비 등의 지출을 감안한 소득세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른 소득세 공제액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음.

- 연간 소득에 따른 기준세율은 다음과 같음.
 - Euro 4,135 - 4,621.9 : 14%
 - Euro 4,622 - 10,907.9 : 22%
 - Euro 10,908 - 21,809.9 : 32%
 - Euro 21,810 - 50,879.9 : 42%
 - Euro 50,880 이상 : 50%

6) 상속 및 증여세율(배우자 및 직계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

- Euro 72,672 이하 : 2 - 5%
- Euro 72,673 - 145,345 : 5 - 7%
- Euro 145,346 - 363,363 : 8 - 9%
- Euro 363,364 - 726,726 : 9 - 10%
- Euro 726,727 - 1,453,453 : 10 - 12%
- Euro 1,453,454 - 2,906,906 : 12 - 13%
- Euro 2,906,907 - 4,360,359 : 13 - 14%
- Euro 4,360,360 이상 : 15%

다. 주세 및 지방세

- 지방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음료세로 판매되는 모든 음료에 대해 10%가 부과되었었는데 1999년 EU법원에서 EU법과 상치된다는 판결이 나와 폐지되었음.
-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 신고액의 4.5%(취득세 3.5% + 등기료 1%)임.
- 각 지방별로 인지세 등이 있음.
- 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는 평균 3 - 5년에 한번 실시됨.

라. 관세

- 오스트리아는 95.1.1일부로 EU회원국이며 EU국과는 모든 교역이 무관세, 자유화 되었음.
- 그간 동구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터키, 이스라엘 등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EU 가입으로 EU기준으로 전환(동 국가들은 EU와 경제협정을 맺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EU가입(95.1.1.)으로 EU의 무역정책이 오스트리아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그간 오스트리아에서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반덤핑 관세 및 수입쿼터제 등의 조치가 EU와 동일하게 적용됨.
- EU가입 이전에 오스트리아에 수입되는 자동차는 부품 중 일정량이 오스트리아산일 경우 관세의 감세혜택이 있었으며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수입관세를 줄이기 위해 오스트리아로부터 타이어 등을 수입하였는데 EU가입 후 동 감세혜택이 없어지자 일본 자동차 업계의 오스트리아산 자동차 부품수입이 급감하였음.

1) 지역관련 우대관세

EU 관세코드상 국가분류: 아래와 같이 국가를 분류하여 품목별 국가군별로 적용관세를 발표 하고 있음.

- 무관세국가군: 저개발국(C국) 및 EEC 가입국
 - C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페루, 잠비아 등 34국
 - EEC: EU역내국가와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 EU와 최혜국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SPGL국)
 -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 EU와 특별관세협정을 맺은 국가군: 최혜국보다 우대
 - 동구권 4개국(PHC):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 EU가 우대지역으로 지정한 국가군
 - 마그레브국가(MGB):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 AKP: 아프리카, 카리브연안국, 태평양지역 국가군
 - 구유고지역: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 기타: 이상의 관세 특혜나 우대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EU 공통 관세 적용, 한 국가가 위 분류법 중 2개 항목 이상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리한 항목을 적용하여 계산.

자료원: ABA 발행, Austrian Tax Law (2007년 12월))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개요

91년 말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구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표시 채권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나. 외환거래

외환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연방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거래, 자본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14,500 유로 이상의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투자 자금에 대한 과실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자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는 없지만 국내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며, 경제적 후진지역이나 특별 산업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 법적으로 내국기업과의 차이는 없으며, 기업신인도, 거래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연 5-7% 수준인데, 최근 기준금리인 Euro Libor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대출금리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 금융권의 대외신인도 및 가용외환보유고

오스트리아의 금융권은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신용 평가 기관에서 최고점수인 트리플 A로 평가 받고 있다. 외채는 GDP의 약 12%선인 321억 불인데 이 수치는 보유 외환 및 금 보유 현황을 고려할 때 전혀 무리 없는 수준이다.

자료원: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7 및 오스트리아 일간지 보도 종합(2007년 12월 13일)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1) 소비력

오스트리아는 중부유럽의 중심국가로서 오랫동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있었으며, 예술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1인당 GDP는 EU 국가들 중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4위이며 OECD 역내에서는 10위이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는 관계로 노후 걱정이 없어서 저축보다는 소비성향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약 30% 수준의 저축률을 보이는데 반하여 오스트리아의 저축률은 9-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스트리아인들은 상당한 소비력을 지니고 있지만 인구가 8백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소량주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동유럽에 대한 전초기지로써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유럽의 교차점 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서구와 동구를 잇는 중개교역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동구개혁 이후에도 오스트리아의 대 동구교역 거점 역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가 오래 전부터 구축하고 있는 대 동구 교역의 노하우 및 금융기법 등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동구개혁 이후 오스트리아 제조업체들은 저임금 가공생산 기지로서 동구국가를 활용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산업은 오스트리아 내에 구축하는 등 산업의 재배치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3) EU권

오스트리아는 95년 1월부터 EU 정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관세 및 세금, 산업표준 등은 EU권과 같다. 제품의 품질 요건과 관련, 종래 오스트리아 내부요건과 합치해야 했으나 EU 가입을 계기로 EU 품질 인증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나. 시장특성

1) 거래방식

오스트리아와 처음으로 거래하는 경우 통상 취소불능화한 신용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거래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오픈 어카운트 혹은 연불방식의 신용거래도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진출유망 분야

오스트리아 시장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전통적인 하이테크 산업, 예컨대 정보기술, 사무 자동화, 전자 및 전기/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의 수요가 많아 이들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화공약품 분야도 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다.

한편, 호텔체인을 비롯한 여행대리점, 패스트푸드 체인 등 서비스 분야도 진출전망이 좋다. 통신장비, 항공기부품, 방송장비 및 부품 등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입찰참가도 검토해볼 만하다.

오스트리아는 GATT 정부조달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각종 정부조달 혹은 주정부 조달형태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건설 시장 혹은 정부 입찰 등에 참가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진출의 유망분야 중 하나이지만, 입찰관련 설명이 모두 독일어이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모두 독일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만 가능한 한국회사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존재한다.

3) 품질 및 가격

섬유류와 기타 일상용품 등의 저가품은 주로 중국과 동남 아시아산이 대부분이다. 승용차의 경우 독일산의 가격이 일본이나 기타 유럽 국가들의 제품보다 고가인 편임.

다. 소비특성

1) 개황

오스트리아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격/품질의 정도를 잘 고려하며, 최근 환경보호 의식의 증가로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recycling 가능 여부 등이 제품 구매 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7-8월과 2월경의 할인 판매 기간을 많이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 할인 품목 등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내구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품질과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가 시간의 증가 및 건강의식의 증대로 레저, 스포츠에 대한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품목은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여권신장, 나아가서는 남녀평등이 제도화되어 마케팅적 관점에서는 여성용품의 소비기반이 강하며, 여성의 직장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각종 편의용품 및 레저, 스포츠용품 등의 수요기반도 견고하다.

2) 품질 및 가격

오스트리아 시장에서는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으며 가격과 품질의 상관 관계가 가장 중시된다. 부연하자면 가격대비 품질의 우수성, 품질대비 가격의 저렴성이 가장 우선적인 구매 포인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에 대한 수출은 반드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스트리아 내에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있는 외국 유명사의 경우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친 부품교환소 및 고객상담실 설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구매시즌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의 종교적 명절을 전후한 기간이 특수 시즌임. 입학시즌은 9월이며, 이외에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에 학용품 등의 수요가 많음.

라. 유통 구조

1) 유통구조 개요

시장규모가 비교적 작은 관계로 특정품목의 유통경로 및 조직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업자의 진출이 매우 어렵다.

2) 도매상간의 유통 단계

소매점간에 구매조합을 형성, 해당 구매조합에서 공동구매 후 체인점의 형식으로 각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형 도매상의 경우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백화점, 통신판매점 등 취급제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 수입에이전트나 수입 도매업자를 통하기도 한다.

3) 백화점 및 소매점 현황

백화점의 경우, 소비재 전 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백화점은 많지 않으며, 가구백화점, DIY 백화점, 전자제품 백화점 등의 특정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백화점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소매점의 경우, 백화점 이외에 전문 소매점을 한 곳에 모아놓은 대형 Shopping Center들도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 식료품이나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체인점이 주로 이용 되고 있다.

4) 수입품 유통구조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입상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수입업자가 몰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특정집단의 상권 장악상태

1995년 1월1일 EU가입 이후 타국의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점이었던 BILLA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슈퍼마켓 체인점이 독일계 기업에 흡수되었다.

마. 한국 상품 인지도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의 결과 현재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 및 관련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TV,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한국 제품의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후원하는 각종 스포츠 행사 또한 시청자들에게 한국 기업 및 제품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 자동차 산업

최근 오스트리아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정체 속에서도 한국 차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 가운데, 한국산 승용차량의 오스트리아 신차시장 점유율도 2003년도 3.3%, 2004년도 4.7%에 이어 2005년도 6.1%, 2006년도에는 5.8%를 기록해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서유럽이나 일본산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소형차 및

SUV 시장에서 특히 그 성과가 두드러졌으나, 최근의 원화 강세에 따른 현지 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이러한 가격 경쟁력이 조금씩 상쇄되면서 2006년에는 시장점유율이 5.8%로 감소하는 등 조금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의 이미지가 강하다.

2) IT 관련 제품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 진입하였던 초기 단계를 벗어나 완전히 고가의 고급 제품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성공하였다. 한국의 S, L社의 핸드폰, TV 등의 IT 및 엔터테인먼트 가전 제품들의 경우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가장 고품질/고가의 제품 중의 하나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대기업 제품들 이외에 무명의 중소기업 제품들의 경우 그 진출 건수도 많지 않고, 중국이나 대만 또는 독일의 무명 브랜드 제품들과 함께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바. 진출 유망 상품

- 1) 자동차 및 오토바이용 부품 및 A/S용품: 오스트리아에는 독일 및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바, 이들을 통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용 부품 시장 진출의 전망이 밝은 편이다. 또한 최근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이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관련 A/S 용품 및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2) LCD TV: 최근 2-3년 전부터 LCD 및 플라즈마 TV 등의 평면 TV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인치 대 제품 군에서는 무명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고, 32인치 이상의 제품 군에서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유명 상표들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하다.
- 3) 엔터테인먼트용 전자 제품: 젊은 층을 중심으로 MP3 플레이어, 휴대용 DVD 플레이어, MP4 플레이어 등 엔터테인먼트용 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4)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기: 2007년 여름 전국적으로 실시가 예정된 국영 방송 ORF의 지상파 방송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DVB-T 수신기(셋톱박스),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기 등 제품에 대한 수요가 향후 2-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5) 웰빙 관련 제품: 인구의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노르딕 워킹 폴, 마사지용 기기 등 웰빙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사. 진출 시 유의사항

1) 언어

오스트리아는 독일어 권이기 때문에 제품의 설명서나 홍보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독일어로 갖추어야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상품들은 대부분 영어로만 설명서나 광고 문안이 작성되어 있어서 진출에 어려움을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재의 경우, 유럽산 제품들은 제품설명서나 홍보자료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적어도 4개 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지진출을 원하는 한국 회사들도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수출 대상 지역별로 대상언어로 작성된 설명서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설명서나 홍보 자료에 4개국어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2) 지적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철저하며 대부분의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모조 상표나 특허권 침해 등 부정경쟁은 엄정한 단속대상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2. 물가정보

□ 도시: 빈(오스트리아)			환율 : US 1 불 = ₩ 0.796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610	7.1	구두(1켈레, 소가죽)	200
1.2	넥타이(1개, 실크100%)	99.24	7.2	치약(150g, 1개)	2.99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111.8	7.3	칫솔(1개)	3.76
1.4	양말(1켈레, 면100%, 현지산)	9.57	7.4	면도기(1세트)	12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752.5	7.5	건전지(1세트, 1.5V AA)	6.28
1.6	스타킹(1켈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9.16	7.6	화장지(1통, 300매)	5.03
1.7	청바지(Levi's)	100.5	7.7	비누(1개)	1.3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40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5.5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7.27	8.2	볼펜(12개)	14
2.3	닭고기(1KG, 생닭)	5.4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3.5
2.4	쌀(1KG, Short Grain)	2.2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3.81
2.5	밀가루(1KG)	1.38	8.5	휴대폰(Nokia 6020)	502
2.6	설탕(1KG, 백설탕)	1.26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2.56
2.7	계란(10개)	2.76	8.7	인터넷가설비 (1회 최초, 1회 설치)	174
2.8	감자(1KG, 현지산)	1.23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50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37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30,780
3.1	고추장(1Kg)	8.21	9.2	엔진오일(1L)	17
3.2	된장(1Kg)	5.11	9.3	휘발유(1L)	1.38
3.3	라면(1개)	1.32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26
3.4	설탕탕류(1인분, 설탕탕, 곰탕 등)	17.58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3,420
3.5	불고기(1인분, 200g)	20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8.5	10.1	지하철(1구간)	1.88
3.7	김치찌개(1인분)	18.8	10.2	시내버스(1구간)	1.88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3.14
4.1	햄버거(1개)	3.45	10.4	택시(추가요금/Km)	1.26
4.2	피자(1판)	11.3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62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포함)	196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26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21.1
4.5	담배(수입산, 1갑)	4.65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25
4.6	위스키(1병, 750ml)	32.1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2

4.7	커피(1병, 175g)	10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4.68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p)	0.57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2,50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1.45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3,000	11.8	특급우편(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52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3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8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3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2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67
6.1	TV(Daewoo DTH-2947-100D)	418.34			
6.2	VTR(Daewoo SV 737)	113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클롬)	502			
6.4	전자레인지	137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884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2,512			

□ 도시: 빈(오스트리아)			- 환율 : US 1 불 = ₩ 0.796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7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935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4,523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2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29%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6,37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5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8,185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4개월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8,719	18.6	연간국경일	15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70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무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가능)	11,7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55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260	19.1	법정최저자금	45,683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30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46,4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2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34%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14~50%
14.1	의료보험료(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15~17%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4.5~11%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x, 몸살감기, 내과초진)	63.4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o, 몸살감기, 내과초진)	4.12			
14.4	치과(스켈링, 1회)	100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7.28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 유통지)	31.4			
15.2	한국신문(1개월)	54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21.35			
15.4	잡지(1부, Newsweek)	5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5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30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00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80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5.5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1.3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3,0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1,880			

자료원: KOTRA 세계주요도시 생활여건 자료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신문, 전문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 언론기관

- <http://www.apa.at>
 - 오스트리아 연합통신(A.P.A.)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각종 일간 시사정보를 볼 수 있다.
- <http://www.derstandard.at>
 - 중도좌익계이며 권위 있는 일간지인 데어 슈탄다드(Der Standard)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로서 일간 시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http://www.diepresse.at>
 - 보수계 일간지중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인 디 프레세(Die Presse)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일간 시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http://www.konsument.at>
 - 오스트리아 소비자 보호부에서 운영하는 월간지 콘슈멘트 (Konsument)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상품관련 유일한 소비자 보호 전문 정보지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상품 테스트 정보를 볼 수 있다.
- <http://www.krone.at>
 - 가장 대중적인 일간지.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적 기수. 스포츠, 오락, 에로틱, 가십 기사 위주로 오스트리아의 일반 대중의 삶을 파악할 수 있다.
- <http://www.austria-today.at>
 - 오스트리아 영자 일간지 웹사이트

□ 전문 잡지

- E&W (전기, 전자 제품)
 - 담당자: Mrs. Claudia Rauter
 - Tel : (43 1) 485 3149
 - Fax : (43 1) 486 9032-30
- Auto & Wirtschaft (자동차 및 관련부품)
 - 담당자 : Mrs. Auguste Bauer
 - Tel : (43 2243) 368 40-0
 - Fax : (43 2243) 368 40-593
- Die Textilzeitung (섬유,패션)
 - 담당자 : Mrs. Elke Turek
 - Tel : (43 1) 865 82 42-0
 - Fax : (43 1) 865 82 42-10

- Metall (금속 공업)
 - 담당자 : Mrs. Zwickl
 - Tel : (43 1) 795 00 57/ Fax : (43 1) 795 00 12
- Elektrojournal (전기, 전자 제품)
 - 담당자 : Mr. Franz-Michael Seidl
 - Tel : (43 1) 54 664 324 /Fax : (43 1) 54 664 215
- KFZ Wirtschaft, KFZ-Perfekt (자동차 및 관련부품)
 - 담당자 : Mrs. Hentsch
 - Tel : (43 1) 795 00 57 /Fax : (43 1) 795 00 12
- Österreichische Kunststoffzeitung (플라스틱 제품)
 - 담당자 : Mrs. Heide Darling
 - Tel : (43 1) 405 66 95/Fax : (43 1) 406 86 93
- Österreichische Bauzeitung (건축 분야)
 - 담당자 : Mrs. Zwickl
 - Tel : (43 1) 795 00 57 /Fax : (43 1) 795 00 12

2) 전시회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전시회 등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제품의 홍보와 함께 관련업계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http://www.messe.at>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스트리아 국내박람회 일정 및 전시회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 빈 무역관 홈페이지의 “전시 정보”항목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전시회의 일정 및 성격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3) 관련 산업 협회 등을 이용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제품과 관련이 있는 산업의 협회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각 산업별 협회의 홈페이지는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항목에 소개되어 있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기업 검색 관련 사이트

- <http://www.compnet.at>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기업 명부 데이터뱅크이다. 각 기업별 매출액, 창립년도, 회사형태, 종업원수, 취급 또는 제조품목 등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원하는 산업 또는 품목별로 관련 회사 명단을 찾아볼 수 있다.

- <http://www.wlw.at>
 - 대표적인 독일의 기업검색 사이트인 “Wer liefert was”의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9개국의 기업정보를 국가별, 품목별, 업체별로 검색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이트이다.
- <http://www.gelbeseiten.at>
 - 오스트리아의 전화번호부(Yellow Pages) 사이트이다.
- <http://www.messe.at>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스트리아 국내박람회 일정 및 전시회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 <http://www.umwelttechnik.at>
 - 오스트리아 환경기술 데이터뱅크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정보사이트로서 오스트리아 환경기술보유 기업 명단 및 기술 내용을 제공해준다.
- <http://www.aba.gv.at>
 - 오스트리아 노사정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인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에이전시(A.B.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연방차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사이트이다.
- <http://www.wiiw.ac.at>
 - 비엔나 시정부 및 경제인연합 그리고 노총에서 출자하여 세워진 비엔나 경제진흥 기금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비엔나 지방 차원의 투자유치 홍보 사이트이다.

2) 오스트리아 경제 단체 및 산업별 협회

□ 경제단체

- <http://wko.at>
 - 오스트리아 상공인 총 연합인 오스트리아연방상공회의소는 오스트리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용자 연합 단체이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산별로 조직된 산하 단체와 연결 가능하며 산별 단체를 통해 무역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http://wko.at/wien>
 - 비엔나 지방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비엔나 지역의 상공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http://www.oegb.or.at>
 - 오스트리아 유일의 상급노조인 오스트리아 노총(Oe.G.B.)의 홈페이지로서 노동자, 사원 권익보호관련 정보 등 노동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http://www.iv-wien.at>
 - Industriellenvereinigung Wien/ 빈 공업인 협회
- <http://www.fafo.at>
 - Fachverband der Audiovisions- und Filmindustrie/ 음향 영상 영화

□ 산업협회

- <http://www.bauindustrie.at>
- Fachverband der Bauindustrie / 건축산업 협회
- <http://www.fashion-industry.at>
- Fachverband der Bekleidungsindustrie 의류협회
- <http://www.fcio.at>
- Fachverband der chemischen Industrie / 화학산업 협회
- <http://www.feei.at>
- Fachverband der Elektro- und Elektronikindustrie / 전기 전자산업 협회
- <http://www.oil-gas.at>
- Fachverband der Erdoelindustrie / 원유산업 협회
- <http://www.wk.or.at/fahrzeuge>
- Fachverband der Fahrzeugindustrie / 자동차 협회
- <http://www.holzindustrie.at>
- Fachverband der Holzverarbeitenden Industrie / 목재가공산업 협회
- <http://www.shoes-leather.at>
- Fachverband der ledererzeugenden Industrie / 신발 피혁산업 협회
- <http://dielebensmittel.at>
- Fachverband der lebensmittelindustrie / 식품 및 생활용품산업 협회
- <http://www.paper.at>
- Fachverband der Papierindustrie / 제지산업 협회
- <http://www.ppv.at>
- Fachverband der Papier und Pappe verarbeitenden Industrie / 제지가공산업협회
- <http://www.proholz.at>
- Fachverband der Saegeindustrie / 목재산업협회
- <http://www.baustoffindustrie.at>
- Fachverband der Stein- und keramischen Industrie / 석재 세라믹산업협회
- <http://www.textilindustrie.at>
- Fachverband der Textilindustrie / 섬유산업협회
- <http://www.fmmi.at>
- Fachverband der Maschinen, Stahlbauindustrie und Metallwarenindustrie / 기계 및 철구조물, 금속가공 산업협회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처음 만나는 경우 자신을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음. 악수하는 것은 인사 예절로 정착되어 있으므로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반드시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여성 존중 예절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언제나 여성에게 우선권이 있다. 악수를 할 때에도 여성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영화에서 동양인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동양인과 만났을 때 은근히 그런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 동양식으로 악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인사법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Aperitif(식사 전 식욕을 돋구기 위해 마시는 술)를 마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 Aperitif를 권해보는 것이 좋다. 후식을 먹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식사 후 커피를 시키기 전에 후식을 권해보는 것도 예의에 속한다.

나. 접촉 시 유의사항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측의 문의에 대하여 가부간의 정확한 답변을 신속히 하는 것이 서로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다. 거래 타진의 경우 한국 측에서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 정확한 답변을 기피하여 오스트리아인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 대만이나 홍콩 등의 경쟁국에서는 신속하게 정확한 가부 의사를 오스트리아측에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관공서 직원들은 외국인 육체근로자들에 대해 고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벅타이와 정장을 갖추어, 외국인 노동자로 오인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 상담 요령

상술한 대화요령을 바탕으로 일단은 Small Talk를 진행한 뒤 시작하며, 가격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니 언제나 약간의 여분을 두고 협상을 시작하되 터무니 없이 많이 깎아 주면 의심을 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현지 경쟁가격을 고려하여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먼저 거래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기존의 거래 가격선에서 상담을 시작하여 기존의 거래가격 보다 약간 저렴하게 최종 offer를 하게 되면 가격면에서는 만족하게 된다.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은 동양인에 대해서 "사귀기 힘들지만 일단 사귀고 나면 의리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막연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인사도 동양식으로 차렷 자세로 머리를 굽혀 하는 등 동양적 냄새를 풍기는 것도 신뢰감을 일으키는 한 방법이다.

또한 오스트리아인들은 게르만 민족 중에 북부 독일인과 비교하여 인정이 많은 편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담작전을 짜는 것이 좋다.

1) Small Talk

직접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보다는 약간의 Small talk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부담없는 화제로는 가족 사항이나 취미, 스포츠 등이 알맞다. 오스트리아인들은 가족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습관이 있으므로 현지인과 대화 시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신뢰감을 일으키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2) 오스트리아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주제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가 소국으로 전락한 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콤플렉스를 해소시켜주면서 오스트리아인들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스트리아를 "문화적 대국"이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 학문 등에서의 오스트리아가 낳은 업적(항목 역사 부문 참조)을 이야기하며, 오스트리아를 "문화 대국"이라고 칭한다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매우 기뻐할 것이다.

또한 축구, 테니스 등 운동 경기도 좋아하며,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이 오스트리아 황정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오 외교관계가 1892년 조선조 고종 황제와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셉 황제 사이에 성립되었다는 이야기도 오스트리아인들에게 친근감을 자아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음양이론이나 불교의 선 등 동양 철학 및 동양 종교에 호기심이 많으므로 이러한 주제로도 친근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근자에 들어 침술, 지압, 한의학 등이 많이 소개되면서 화학적 약재가 아닌 자연산 약재를 이용한 치료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어나가는 것도 매우 좋다.

라.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산 선물

1) 개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간단한 선물로 족하다. 그러나 동양인들의 선물 예절은 오스트리아와 큰 차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오스트리아인들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큰 선물을 해도 상관없다.

2) 간단한 선물

한국을 상징하는 장식이 달린 열쇠고리가 가장 무난하며, 공산품으로서는 한국산 실크 벵타이나 여성용 실크 머플러를 좋아한다.

3) 큰 선물

전반적으로 수공예 제품은 모두 좋으며, 특히 한국 특유의 도자기 제품은 매우 큰 선물로 친다.

4) 주의

인삼주를 제외한 인삼 관련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오스트리아인에게 인삼은 그냥 보약이 아니라 단순한 정력제로만 인식되어 있어, 첫 선물인 경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삼의 주성분의 하나인 사포닌 맛이 오스트리아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인삼차 등의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인삼 제품 중에서는 인삼주가 가장 무난하다.

마. 문화적 금기 사항

1) 식탁에서의 금기

소리를 내서 음식을 먹거나 입을 벌리고 음식물을 씹는 것은 예의에 크게 벗어난 행동이며, 수프나 국물,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어 먹는 것은 절대 금기이다. 오스트리아 예절에는 식탁에서 트림을 하는 것도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므로, 식후에 트림이 나오는 경우 손으로 입을 막고 될 수 있는 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곧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오스트리아인들은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므로 상담 전에 식사를 한 경우에는 양치질을 하고 상담에 응하는 것이 좋다.

2) 흡연 시 예절

미국에 비하면 흡연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흡연을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식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것이 예의이므로 반드시 상대방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 음주관련 예절

일반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포도주, 위스키, 맥주 등을 잔으로 팔고 있으나, 식사 대접을 할 경우 포도주는 병으로 시키는 것이 예의이다. 식사 때나 술자리에서나 각자 주량에 따라 자신의 술만을 주문하거나 스스로 따라 마시는 것이 습관이므로, 상대방의 잔이 빈 경우 가볍게 한번 정도 권하는 정도로 족하다. 절대로 술을 강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잔이 빈 경우에는 상대방에 구매받지 않고 술을 주문하거나 따라 마셔도 상관없다. 오스트리아인들은 대부분 포도주나 맥주를 즐겨 마시며 위스키나 꼬냑 또는 브랜디 등 독주는 식후 소화를 위해 한잔 정도 마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는 포도주나 맥주 정도로만 하는 것이 좋다.

4) 외국인으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담화 주제

오스트리아인들은 19세기말 프로이센과 전쟁에 패배하여 독일지배권을 상실한 사건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독일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1차 세계대전 후 소국으로 전락한 데 대해 약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에 대한 지나친 칭찬은 금하는 것이 좋다. 같은 소국이면서 독일어 문화권인 스위스에 대해서는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위스에 대한 지나친 칭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은 카톨릭 신자이며 영미권의 개신교에 대해서는 유사 종교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음으로 한국에 많이 퍼져있는 개신교 관련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종교를 물어올 경우 카톨릭이 아닌 여타 기독교 신자라면 간단히 개신교 신자라고만 밝히고 주제를 바꾸는 것 좋다. 오스트리아에서 무교라고 하면 공산주의적 무신론자를 연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오스트리아인이 종교를 물으면 가급적 일정한 종교를 말해주는 것이 좋다. 잠재적인 종교적 갈등이 존재하는 유대교 및 유대인들에 대한 논의도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종교를 믿는다면 그대로 밝히면서 다소 설명을 곁들여도 좋다. 오스트리아인들이 동양 종교라면 다른 문화권 지역의 종교로서 인정해주면서 호기심을 갖는 반면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의 종교라는 문화적 우월감과 선입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다.

바.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1) 상담 작전

가격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니 언제나 약간의 여지를 두고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많이 깎아 주면 오히려 좋잖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국제 경쟁가격을 고려하여 협상에 들어가야 함. 가끔 30일 이내에 결재할 경우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불조건

오스트리아와 처음으로 거래하는 경우, 통상적인 안전장치로서 신용장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높은 은행수수료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많음. 최근에는 T/T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현지여건에 맞게 거래조건에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

3) 장기적 안목의 접근 필요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속성상 한 두 번의 거래를 위해 생산업체를 물색하는 경우는 드물며,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가능한 생산업체와의 접촉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일단은 소량주문을 통해 제품의 시장성 테스트, 생산업체의 약속이행여부, 품질준수여부 등 거래의 기본요소들을 점검한 후 신뢰가 쌓이면 주문량을 늘리는 관행을 보임. 따라서 초기 단계의 소량 주문에 탄력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일단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장기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함.

많은 한국 업체들이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즉 즉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할 경우,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각종 거래 조건, 제품 설명서, 샘플 등 제품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발송한 후, 거래 희망 여부를 팩스,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오래된 기업의 경우 아직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거나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 로고가 명기된 팩스를 더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바이어가 선호하는 통신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오스트리아 업체들은 한국업체가 보낸 서류에 대한 검토도 자신들의 업무 계획에 맞춰 검토하기 때문에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큼.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는 구매 부서가 별도의 회사로 분리되어 구매 본부의 형태로 존재 하는 경우가 많고 구매 본부의 본연의 업무인 제품 소싱이 연중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회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이러한 현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낳아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정확한 담당자를 알게 되면 관련자료를 송부한 후 회신이 없더라도 좀 더 기다리거나 우호적인 안부편지를 규칙적으로 보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함. 무역관의 경험으로 볼 때, 수년 전에 무역관이 제공했던 특정 국내업체의 카탈로그를 내내 보관 하고 있다가 구매수요가 생기자 최근야 비로소 해당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사례도 있음. 이처럼 꾸준하고 인내하는 장기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오스트리아 바이어 의견 및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 사항

계약 조건의 위반 또는 불성실 이행 등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들은 대부분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그 배상액 등이 확정 지어진다.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 이외에 실제로 거래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고 또 향후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통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상호 신뢰를 저버린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현지 파트너의 도움으로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경우(별도의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거래선과의 접촉을 직접 시도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인구 8백만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장이라는 점, 따라서 해당 분야별로 그 플레이어들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호 신뢰 관계의 파괴 행위는 금방 관련업계에 알려져 해당 한국업체의 시장 진출을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2005년 상반기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한 건 있었고, 해당 한국업체는 추가로 바이어를 찾는 데 큰 애를 먹은 것은 물론, 한국 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법적인 내용 못지 않게 상호간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오스트리아인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은 이익을 쫓다 큰 것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분쟁 발생시 유의할 점

1) 분쟁 해결 절차

무역상의 분쟁이 발생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시 계약 조항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지하여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현지의 변호사나 법무 법인 등을 통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대표적 변호사 및 법무법인

- Strohal & Kretschmer
 - 주소: Opernring 10, A-1010 Wien
 - 전화: (43 1) 5131911 / 팩스: (43 1) 5131911 - 24
 - 이메일: advocates@advocates.cc
 - 홈페이지: www.advocates.cc
 - 추천사유: 대표 Dr. Theodor Strohal은 한류 팬으로서, 한국에서 3년간 생활하며 화염종 불도를 배운 바 있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다. 동 합동법률사무소는 경제분야 전문이며, 독일 뮌헨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 DSC, Rechtsanwalt Partnerschaft.
 - 주소 : Währinger Strasse 2-4, A-1090 Wien
 - 전화 : (43 1) 3194520 / 팩스 : (43 1) 3198322
 - 이메일 : dscvienna@aon.at
 - 홈페이지: www.dscvienna.at
 - 추천 사유: 중대형 법무 법인으로서, 한국S전자의 오스트리아 자회사 설립에 관여한 바 있다.

- WOLF THEISS & PARTNER
 - 주소: Schuberting 8, A-1010 Wien
 - 전화: (43 1) 51510 / 팩스: (43 1) 515 1025
 - 이메일: choenig@wtp.at
 - 홈페이지: www.wtp.at
 - 추천사유: 대형 법무법인으로서, 동유럽지역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큰 회사이다. 아시아 지역 회사들과 경험도 있다고 하며, 한국회사와 접촉을 바라고 있다.

- Braunegg, Hoffmann & Partner, Rechtsanwälte
 - 주소: Gonzagagasse 9, A-1010 Wien
 - 전화: (43 1) 53 110-0 / 팩스: (43 1) 53 110-10
 - 이메일: office@bhp-law.at
 - 홈페이지: www.bhp-law.at
 - 추천사유: 비엔나 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회사이다.

- 비엔나 변호사 협회(Rechtsanwaltskammer Wien)
 - 주소: Ertlgasse 2/Rotemturmstrasse 13, A-1010 Wien
 - 전화: (43 1) 533-27180 / FAX: (43 1) 533-271844
 - 홈페이지: www.rakwien.at

자료원: 빈 무역관 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

1) 지사화 사업 성공 사례를 통한 유럽시장 진출

한국의 A社は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전문생산업체로서 제품의 디자인, 품질,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그러나 유럽 시장에 대한 마케팅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빈 무역관은 Marketing Research를 하면서 A社 제품이 디자인, 가격,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적극적인 마케팅만 하게 되면 오스트리아 및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몇몇의 바이어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그 중 한 바이어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로 방향을 잡고 A社에 관심 바이어를 소개한 후 즉시 A社の 카탈로그, 가격표 및 필요한 정보를 보내도록 의뢰하였다.

카탈로그가 바이어에게 전달된 뒤에도 바이어의 질문 사항이나 요구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곧바로 A社에 전달함으로써 바이어와의 신뢰감 쌓기에 노력하였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Automobile 전시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있었고 빈 무역관은 오스트리아 D社를 한국으로 초청하게 되었으며, 전시회 후에는 A社를 방문하도록 주선하였다. 바이어는 A社를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더욱 큰 신뢰감을 갖게 되었으며 유럽 수입을 위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논의한 후 약 2개월 후에 첫 오더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거래 첫 해인 2004년 상반기 17만 유로, 하반기 15만 유로의 주문이 이루어졌다.

오스트리아 D社를 통하여 유럽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한 한국의 A社는 그 이후 2004년 9월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전시회에 참가하여 유럽 각 나라의 좋은 바이어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및 유럽 여러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2) 사이버 상담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성공의 열쇠

대전에 위치한 K社는 아로마 성분이 함유된 샤워헤드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2005년 가을 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 비엔나를 방문하여 몇몇 업체들과 상담을 하였는데, 그 중 유럽 여러 나라에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E社가 K社의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또한 즉석에서 샘플도 구입하였다.

샘플을 테스트한 K社는 더 심도 있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몇 가지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양의 샘플을 원하였으며, K社は K社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스페인의 B社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에 있는 B社가 보낸 제품은 오스트리아 업체인 E社가 원했던 제품이 아니었으며 또한 배송도 오랜 시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E社は 한국의 K社에 이런 문제점들을 메일로 알렸으나 한국의 K社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2006년 1월 초, 오스트리아 E社は 이러한 일련의 진행 상황들을 빈 무역관에 알려왔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문한 샘플들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한국의 K社에 대한 적지 않은 실망감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빈 무역관에서는 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오스트리아 E社가 K社의 제품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다.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사이버 상담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E社와 K社의 사이버 상담을 주선하게 되었다. 또한 E社와 K社와의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빈 무역관에서 통역을 주선하여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빈 무역관에서 주선한 이 사이버 상담은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보게 되었다. 사이버 상담을 통해 보여진 K社の 진실되고 정성 어린 제품에 대한 설명과 자부심, 그리고 성실한 자세는 오스트리아 E社를 감동시켰고 K社에 가졌던 실망감을 신뢰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 사이버 상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E社は 즉시 K社로부터 정확한 샘플을 배송 받았으며 샘플 테스트 후 同 제품이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가능성 있는 제품으로 판단되어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계약 조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 번 더 사이버 상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몇 번에 걸친 사이버 상담으로 오스트리아 E社は K社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K社は 2006년 4월 E社로부터 약 11만 유로의 첫 오더를 받게 되었다.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 임대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방미터당 Euro 7.5 - 20 정도. 입주계약 시 임대 보증금으로 월 임대료의 2배 내지 3배 지불. 복덕방을 통하여 소개받을 경우 소개비로 임대료의 3배까지 지불
- 입주의 난이도: 복덕방을 통하여 주택을 구할 경우 어려운 점은 없으나 소개료가 비싸며, 개인적으로 구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 임차계약 해지시의 빈발하는 문제: 임대계약 시 지불한 보증금(Kaution)에 대하여 임대물 의 손상을 이유로 전액 환불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대계약 시 계약서를 주의해서 살펴볼 것(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물을 입주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돌려줄 것을 명시하는 조항도 있음).
- 임차 계약 만기 이전에 임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통고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서에 준하며, 보통의 경우 3달 이전에 통보하여야 함).
- 외국인체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 1인당 최소한 10 제곱미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경우 최소한 30 제곱미터 이상 되는 집을 얻어야 체제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나. 주거등록절차

집을 구하고 나면 주소지 경찰서로 가서 주거등록을 해야 한다. 주거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 2매 그리고 주거등록서식이 필요한데, 주거등록서식(Meldezettel, 멜데 제텔)은 각 구청의 주거 등록과 (Meldeservice im Magistratischen Bezirksamt)에 비치되어 있고, 또는 웹사이트(<http://link.help.gv.at/besucher/db/formularauswahl.formular?id=819>)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다. 체제허가 연장 신청

체제허가 만료 1개월 전에 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제출서류는 여권, 사진 2매(최초 연장신청에만, 이후 1매), 재정증빙서류(월급명세서, 납세금 실적 등), 집 계약서, 주거등록서류 등이다.

라. 구좌개설

구좌를 개설할 때, 전화요금, 전기/가스요금 등의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지점이 많은 오스트리아의 대형은행, Bank Austria/Creditanstalt에 개설하면 한국과의 송금에도 편하다.

마. 전화신청

일반전화는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지역별로 2주에서 6개월 등 신청 후 대기 기간이 천차만별이다. 핸드폰의 경우 5개 회사가 경쟁 중이며 가격도 싼 편이다.

바. 교육

1) 현지 교육 체계

오스트리아의 교육 체계

구분	나이	학년	졸업시험
Kindergarten	3 ~ 6		
Volksschule	6 ~ 10	1 ~ 4	
Hauptschule	11 ~ 14	5 ~ 8	
Gymnasium(Unterstufe)	11 ~ 14	5 ~ 8	Matura
Gymnasium(Oberstufe)	15 ~ 18	9 ~ 12	Matura
HTLS	15 ~ 19	9 ~ 12(13)	Matura
HAK	15 ~ 19	9 ~ 12(13)	Matura

자료원: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2007년 12월 13일)

- 초등학교(Volksschule)부터 중학교(Hauptschule, Gymnasium Unterstufe)까지 법적 의무 교육으로서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 과정(Gymnasium Oberstufe, HTLS, HAK)은 법적 의무 교육은 아니나 입학할 경우 등록금이 면제된다.
- 유치원(Kindergarten)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이 아니며, 사립의 경우 월 200 ~ 300 유로, 교회 및 각 자치구 병설 유치원(시립)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되나 기본적으로 식비 및 견학 등 기초 소요 비용 등으로 월 50~150 유로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 대학 교육: 오스트리아에서는 Matura(우리 식의 수학능력시험)를 통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서 수학이 가능하다. 특정학과(의학, 심리학 등) 입학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아야 하는 독일과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원칙적으로 Matura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대학, 어떤 학과든 자유롭게 선택, 수학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학, 심리학, 법학 등 특정 인기학과에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심해져 강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지자 특정 학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매 학기 천 명 이상의 신입생이 몰리는 심리학과인 경우, 입학 1년 내에 특정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퇴학당하는 일명 Knock-out Test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의대에서도 입학 시험을 치르자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연간 등록금은 700유로 (오스트리아 및 EU 국가 출신 학생) 정도이며, 그 이외 외국 학생의 경우 2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OECD 국가가 아닌 경우 반액 정도 감액 받을 수 있다.

2) 국제 학교

현재 수도 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제학교들로는 다음의 3곳이 있다.

□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Vienna (AISV)

- 주소: Salmansdorfer Strasse 47, A-1190 Vienna
- Tel : (43 1) 40132-0
- Fax : (43 1) 40132-5
- 홈페이지 : www.ais.at

□ Vienna International School (VIS)

- 주소 : Strasse der Menschenrechte 1, A-1220 Vienna
- Tel : (43 1) 203 5595
- Fax : (43 1) 203 0366
- 홈페이지 : www.vis.ac.at

□ Danube International School, Vienna (Danube)

- 주소 : Josef Gall Gasse 2, A-1020 Vienna
- Tel : (43 1) 720 3110
- Fax : (43 1) 720 3110-40
- 홈페이지: www.danubeschool.at

자료원: European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http://www.ecis.org/search2.asp>)

사. 자동차 구입

오스트리아의 연간 자동차 신차 시장의 규모는 30만 대 수준이며, 신차의 경우 Mercedes Benz, BMW, Volkswagen, Audi, Opel 등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몇 군데 대리점을 접촉해 보고 가격 및 옵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반적인 가격은 한국에서 구입할 경우보다 비싼 편이며, 특히 한국과 비교하여 기본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무척 많은 바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구입시에는 직거래보다는 가격이 다소 높으나 1년 또는 2년의 중고차 개런티를 부여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정 및 품질의 보장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중고차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 이전에 www.car4you.at와 같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차종 관련 사전 정보를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타 차량과 관련한 일반 정보는 www.oeamtc.at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아. 비상전화번호

- 경 찰: 133
- 화 재: 122
- 응급환자: 144

자. 비품 구입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은 대형체인점에서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차. 병원

1) 보험 가입

오스트리아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시설의 이용이 무료이다. 대개 공보 형과 사보험으로 구분되며 주재원들의 경우 Unica, Allianz 등과 같은 사보험이 유리하다.

- 공보험: 공보험인 Wiener Gebietskrankenkasse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보험료를 산정 하는데 보통 월 250~300 유로 수준이다. 최초 보험료 불입 6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이용시 환자의 추가 부담이 거의 없는 대신 시 운영 병원이나 공보험 취급 의사에게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일반의와 전문의로부터 진료받을 수 있으며,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간의 개인 부담액을 지불하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사보험: 가족수, 성별, 나이, 기존의 질병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보험보다 싸다. 입원 치료의 경우 병원이 직접 보험 회사에 청구하며 통원 치료는 환자가 우선 치료비를 지불, 추후 환급받는 방식인데, 환급액은 보험료에 따라 청구액의 70~100% 수준이다. 약을 구입하였을 경우 영수증을 보험 회사에 송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2) 의료 시설

□ 종합 병원

- AKH (대학병원)
 - 주소 : Währinger Gürtel 18-20, A-1090 Wien
 - Tel : +43-1-40400-0
- Sozialmedizinisches Zentrum Ost Krankenhaus Donauspital
 - 주소 : Langobardenstrasse 122, A-1220 Wien
 - Tel : +43-1-28802-0
- Wilhelminenspital
 - 주소 : Montleartstrasse 37, A-1160 Wien
 - Tel : +43-1-49150-0
- Semmelweis Ignaz Frauenklinik (산부인과 병원)
 - 주소 : Bastiengasse 36-38, A-1180 Wien
 - Tel : +43-1-47615-0
- St. Anna Kinderspital (어린이 병원)
 - 주소 : Kinderspitalgasse 6, A-1090 Wien
 - Tel : +43-1-40170-0
- Rudolfstiftung
 - 주소 : Juchgasse 25, A-1030 Wien
 - Tel : +43-1-71165-0

□ 한인 병원 및 약국

- 임상심리/심리치료/상담 (Dr. 이규영)
 - 주소 : Hohweggasse 1/10, A-1030 Wien
 - Tel : +43-1-712 7888

- 개업의/침술(Akupunktur) (Dr. 강유송)
 - 주소 : Kaiser Strasse 10, A-1070 Wien
 - Tel : +43-1-526 8976
- 개업일반의 (Dr. 서혜숙)
 - 주소 : Zayagasse 9, A-2130 Mistellbach
 - Tel : +43-2572 3125
- 약국 (Dr. 박부식)
 - 주소 : Bahnstasse 16, A-7151 Wallern
 - Tel : +43-2174 2255

카. 비상의료대책

- 시내에서 사고 및 응급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 시내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24시간 개방
 - 응급환자 관련 문의전화는 401 이며 동 전화를 통해 응급조치 방법과 사고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401를 통해 앰블란스를 부를 수도 있는데 앰블란스를 사용할 경우 약 250 - 300 Euro의 앰블란스 사용 비용을 추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오스트리아에서 의료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앰블란스 사용의 적부 여부를 보험회사에서 추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사용료를 책임짐.
- 시외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헬리콥터 수송이 필요한 경우
 - 내무부 소속 항공 앰블란스 전화: 1717
 - 산악 조난사고 발생시: 140
 - 항공 앰블란스 사용 비용은 약 750.Euro
 - 오스트리아에서 의료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항공 앰블란스 사용의 적부 여부를 보험회사에서 추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사용료를 책임짐.
- 경미한 환자의 비상 의료대책
 - 병원의 진료시간은 일반적으로 월-금 : 08:00 - 18:00이며 반드시 예약을 요구하는 병원이 많으므로 전화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음(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휴진).
 - 일반진료시간 이외에 급히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급작스러운 치통이나 급성 장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531160으로 전화하면 당일 야간(또는 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주소를 알 수 있음.
- 약국
 - 약국의 경우 평일 08:00 - 18:00까지 영업하며 대부분의 약국이 12:00 - 14:00 점심휴식시간이 있음(토요일은 08:00-12:00, 일요일은 휴업).
 - 휴일이나 야간에는 지역별 약국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영업하는데 1550으로 전화하면 당일의 휴일/야간 영업하는 약국의 주소를 알 수 있음. 또 각 약국 입구에 그날의 야간 영업하는 약국의 주소가 게시되어 있음.

다. 유용한 생활독일어

1) 발음규칙

- 일반적으로 알파벳을 영어 발음 기호식으로 읽어 주면 된다.
 - 예: Tante = 탄테(고모, 이모), Glass = 글라스(유리, 유리잔)
-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 = 해 - Oe = 내에 - Ue = 귀 - Ei = 아이 - CH = ㄱ 흐 - EU = ㄱ이 - TSCH = 취 - SCH = 슈 - W = 영어의 V로 발음 - Q = 영어의 KV로 발음 - V = 영어의 F로 발음 - R = 단어의 끝 혹은 및 자음 앞에서 "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Bae = 배 예: Oel = 왜알 예: Huelle = 휠레 예: Bei = 바이 예: Buch = 북흐 예: Deu = 도이 예: Deutsch = 도이 취 예: Schule = 솔레 예: Wolle = (volle) 볼레 예: Quelle = (Kvelle) 크벨레 예: Voll = (Foll) 플 예: Herr = 헤어
---	---

2) 인사말

- 안녕하세요?
- Gruess Gott (그뤼스 곱)
- 좋은 아침입니다.
- Guten Morgen. (구텐모르겐)
-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히 콤메 아우스 코레아)
- Ich komme aus Korea.
- 나는 Mr./ Mrs./ Miss 김 입니다.
- Ich bin Herr / Frau / Kim.
- 이히 빈 헤어 / 푸라우 / 김
- 다음에 뵙겠습니다.
- Wiedersehen (비더제엔)
- 또 전화합시다.
- Wiederhören(비더회른)
- 감사합니다.
- Danke schoen (당케 쇠엔)

3) 생활용어

- 이것은 얼마 입니까?
- Was kostet das? (바스 코스테트 다스)

- 계산해 주세요!
 - Bitte zahlen! (비테 zahlen)
- 영수증을 주십시오
 - Quitung bitte (크비통 비테)

4) 식품관련 독일어

쇠고기 Rindfleis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거리용 = Suppenfleisch - 장조림용 = Rindfleisch fuer Gulasch - 튀김용 = Rinder schnitzel - 갈비찜용 = Beinflisch - 막불고기감 = Hintere Ausgeloeste - 등심 = Roastbraten - 안심 = Beiried - 스테이크용 안심 = Lungenbraten vom Rind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조림용 = Schweinefleisch fuer Gulasch - 삼겹살 = Schweine bauchfleisch - 돼지갈비 = Schweine Ripperl - 불고기용 = Schweineschulter(지방이 적은 부위), Schopfbraten(지방이 많은 부위) - 돼지안심 = Lungenbraten vom Schwein
생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 Dorsch - 가재미 = Scholle - 고등어 = Makrelle - 갈치 = Degenfisch - 청어 = Hering - 정어리 = Sardine - 광어 = Heilbutt - 연어 = Lachs - 바다장어 = Aal - 아구 = Seeteufel - 홍어 = Rochen - 참치 = Thunfisch - 홍합 = Mies muschel - 오징어 = Tintenfisch - 새우 = Schrimps - 대하 = Garnellen - 굴 = Austern - 문어 = Oktopus

파. 식품관련 무게 단위

보통 1 kg 이하의 단위에는 Deca(Deca gramm의 준말)를 많이 사용함.

- 1 Deca(데카) = 10 g
 - 예: 100 g = 10 deca, 250 g = 25 deca, 600 g = 60 deca
 - 단: 500 g = Halbes kilo, 1.5 Kg = Andert Halb killo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대체적으로 대서양 기후의 영향이 많으나,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대륙성 기후 특징이 점점 두드러진다.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 겨울에는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 상례이다.

연평균 기온은 15-18도이며 강우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보슬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

- 동부: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눈이 적은 편이며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
- 서부: 편(Foehn) 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온다.
- 남부: 일조량은 많은 편이나 알프스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며 강우량도 많다.
- 알프스 산간지역: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여름에는 대체적으로 건조하고 고온을 보이거나 비가 오면 급격한 온도 강하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겨울철이 길고 눈이 많다.

2) 주요도시의 기후

오스트리아 동부 지역에 위치한 수도 빈의 경우 겨울이 길고 겨울에는 햇볕 보기가 힘들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강우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빈시의 월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

(섭씨, 2005년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High	13	9	20	22	34	32	36	30	29	21	14	7
Low	-9	-11	-11	-1	4	8	11	11	7	0	-5	-8

주1 : 2005년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를 반영하고 있음.

주2 : High : 월평균 최고기온 Low. : 월평균 최저기온

인스부르크(서부지역에 해당)의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며 여름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기온이 높더라도 불쾌지수가 낮다.

인스부르크시 평균 기온

(섭씨, 2005년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High	8	11	23	26	34	35	36	30	30	22	15	9
Low	-12	-11	-15	1	2	5	9	6	6	1	-8	-15

주 : 2005년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를 반영하고 있음.

그라츠(남부지역에 위치)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조량이 많고 강설량은 적은 편이나 알프스 영향으로 겨울이 매우 춥다.

그라츠시 평균 기온

(섭씨, 2005년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High	13	9	23	24	33	32	34	29	29	22	16	8
Low	-10	-19	-18	-2	2	5	8	7	7	-1	-7	-15

주: 2005년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를 반영하고 있음.

연간 도시별 일기(2005년)

도시	강수량	우천일수*	강설일수	연간일조시간
빈	595 mm	153	36	2,108
인스부르크	789 mm	164	33	2,014
그라츠	907 mm	130	22	2,156

주1: 우천일수 = 0.1 mm 이상의 강우가 있었던 날수의 합계

주2: 2005년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를 반영하고 있음.

자료원: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7

3) 출장 시 추천복장

- 초봄 (3월, 4월) 및 늦가을 (10월)
 - 매우 추운 날씨와 따뜻한 날씨가 반복되므로 반드시 겨울복장 및 봄철옷 동시 지참 要.
- 늦봄 (5월)
 - 대부분 따뜻한 편, 봄철 및 여름복장 지참 要. 우천 후 급격한 기온강하가 있을 수 있으니 잠바나 스웨터를 1벌 정도 지참하는 것이 좋음.
- 여름 (6월, 7월, 8월)
 - 대부분 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우천 후 급격한 기온강하가 있을 수 있으니, 잠바나 스웨터를 1벌 정도 지참하는 것이 좋음.
- 초가을 (9월)
 - 한국의 10월 정도의 날씨, 온난한 기후
- 겨울 (11월, 12월, 1월, 2월)
 - 겨울옷 준비

자료원: 오스트리아 기상청 제공자료(2007년 12월 13일)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 동계시간

- 우리나라와의 시간차는 KST-8시간으로 한국이 24시일 때 오스트리아는 아직 16시이다. 동계시간은 매년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되어 다음해 3월 마지막 토요일에 끝난다. (2007년 10월 28일 - 2008년 3월 29일)

□ 하계시간(Summer Time)

- 하계에는 서머타임이 실시되어 한국과의 시간차가 7시간으로 단축된다. 즉 한국이 24시일 때 오스트리아는 17시이다. 하계 시간은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되어 그 해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끝난다(2008년 3월 30일 - 2008년 10월 25일).

2) 근무 시간

□ 일반 직장의 근무시간

- 근무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00~12:00, 13:00~17:00며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는 직장도 많다. 일반적으로 토·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법정 한도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 관공서 근무시간

- 관청의 경우, 대민 업무를 오전에만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청 관련 업무는 반드시 오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목요일에 한해 13:00-16:00에 대민업무를 보는 관청도 있다. 토·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 일반상점의 개폐시간

- 상점들의 개폐점 시간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09:00-18:00, 토요일 09:00 - 12:30이나, 시내 중심가의 상점들은 토요일에 17시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 2003년 7월 상점 개폐시간 규정 완화로 목요일에 21시까지 영업하는 상점도 있다.
- 식료품 관련 상점의 개폐시간은 08:30-18:30 또는 19:30까지이다. 상가 지역에서는 토요일 08:30-17:00까지 영업을 하나 기타지역의 상점들은 12:30까지만 개점하는 경우도 흔하다. 일요일은 시내 중심가의 토산품 상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휴점한다.

□ 식당의 개폐시간

- 일반 식당의 경우, 낮 12시에 개점해 15시까지 영업, 그다음 약 3시간 동안 휴점한 후 18시 쯤 다시 개점하는 것이 상례이다. 현지 중국 식당은 물론, 한국식당의 경우도 이러한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15 ~ 18시 사이에 식사를 원할 경우, 전화로 확인 해보는 것이 좋다.

□ 은행의 개폐시간

- 월, 화, 수, 금요일은 08:30 - 12:30 및 13:30-15:00이며, 목요일에는 08:30-12:30 및 13:30-16:30에 개점한다. 시내 중심가 은행의 경우는 점심 휴식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추세이다.

□ 개폐점 시간에 규제를 받지 않는 상점들

- 역이나 공항 내의 슈퍼마켓이나 상점들은 매일 23시까지 영업한다. 상점 개폐 시간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주유소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편의점들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종종 있다

□ 회계연도

- 정부 및 국영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 민간기업의 경우도 대부분 이 사례를 따르지만 간혹 특정한 달(예를 들어 3월 혹은 7월)을 기점으로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기업도 있다.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2007년 12월 13일)

다. 주요 단위

1) 도량형

- 거리에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무게에는 Kg 및 Gramm을 사용하는데 10 Gramm을 1 Deca(데카)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유용한 현지어 참조). 일반적으로 1kg 이하의 물건을 사면서 무게를 표시할 경우 Deka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소시지, 치즈 등을 구매할 때).
- 폰트(Pfund)는 500 Gramm을 뜻한다.

2) 전기규격

- 50 Herz, 220 Volt
 - 한국에서 사용되는 200 Volt / 60 Herz 용 제품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2007년 12월 13일)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비자협정에 의해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가 면제된다.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제3국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주의

- 유럽 연합(EU) 쉥겐(Schengen) 조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를 통해 입국한 경우에는 그 국가에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90일간이 비자 면제 기간이다.

- 부연하자면 쉐엔 조약 가입국인 프랑스에 1월1일에 입국해서 1월31일까지 체류하고 2월1일 오스트리아로 왔다하더라도 무비자 90일 계산의 시점은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2월1일이 아니라 프랑스에 입국한 1월 1일이다. 반대로 오스트리아에 1월 1일 입국해서 60일간 머물다가 프랑스에 갔다 하더라도 프랑스에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0일 밖에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해서 쉐엔 조약 가입국 전체에 무비자 90일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이다.

□ 쉐엔 조약 가입국

-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 무비자 입국 후 비자 수속

-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후 사정에 의하여 장기 체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체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비자 연장: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늦어도 비자 만료 4주 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비자 발급처(한국)

- 오스트리아 영사관/대사관
 -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1, 교보 빌딩 1913호
 - 전화: 732-9071/2
 - 휴일: 토, 일요일 및 양 국가의 공휴일
 - 대민 업무시간: 10:00 - 13:00

2) 출입국 절차

출입국시 특별한 절차는 없다.

□ 통관 절차

- 입국시 신고필수품이 있을 경우에 자진해서 세관검사대를 거치며 그 이외에는 세관 검사 없이 통관한다. 단 세관원이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세관검사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Sample 등의 경우 이를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좋다.
- 참고: 면세품 한도
 - 담배 : 200개비
 - 브랜디/위스키 : 1 Liter
 - 포도주 : 2 Liter
 - 선물용품 : Euro 150 이내 (약 US\$ 150 이내)

□ 출입국시 유의 사항

- 취업 또는 파견 근무의 경우 반드시 노동허가(Working Permit)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 예방 접종

-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필요하지 않다. 오스트리아에 장기 체류하거나 오스트리아 내 숲 혹은 산악 지대를 장기간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중부 유럽에만 서식하는 책헨(Zecken)이라는 흡혈 곤충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의 경우 예방 접종 바람직).

□ 공항에서 시내까지 오는 교통편 및 요금

행선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시내까지 도착하는 데 20 - 40분 정도 소요됨.

- S-Bahn : 3 유로
- CAT (City Airport Train) : 8 유로
- 공항 버스 : 8 유로
- 택시 : 30 - 50 유로(행선지에 따라 다름)

자료원: 오스트리아 내무부 출입국절차 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마. 환율/환전

1) 화폐단위

- 원래 화폐 단위는 실링(Schilling)이었으나 유럽 화폐 동맹(EMU)참가국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공식 통화이다.
 - 유럽 화폐 동맹 참가국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Euro화와 실링이 같이 통용되었음.
 - 약자는 Euro, 독어발음은 유로가 아니라 "오이로"이다.
- 1 Euro는 100 Cent(센트)이다.
- 구 화폐 실링의 환전은 이 글 마지막 부분 참조.

2) 주화 종류

- 1, 2, 5, 10, 20, 50 Cent, 1, 2 Euro

3) 지폐 종류

- 5, 10, 20, 50, 100, 200, 500 Euro

4) 최근 5년간 연평균 환율

- 2002년 평균 환율: 1 US\$ = 1.0583 Euro
- 2003년 평균 환율: 1 US\$ = 0.8843 Euro
- 2004년 평균 환율: 1 US\$ = 0.8065 Euro
- 2005년 평균 환율: 1 US\$ = 0.8032 Euro
- 2006년 평균 환율: 1 US\$ = 0.8000 Euro

- 최근 유로화 전신회율 (2007년 12월 13일, Erste 은행 발표 기준)
 - 매입율: 1 US\$ = 0.6791 Euro
 - 매도율: 1 US\$ = 0.6838 Euro

5) 환전

- 외환 소유 및 환전 액수에 전혀 제한이 없다. 시내 은행에서 제3국 지폐를 환전하면 환전 금액의 1.5 - 3.0% 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환전소 또는 호텔에서는 대개 5-7%의 환전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대부분의 선진국 지폐가 환전 가능한데, 한국 지폐는 Die Erste Bank 은행의 본점에서만 환전할 수 있음. 이 경우 환율을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가능한 한국지폐는 환전 않는 것이 좋음.
- Die Erste Bank 은행 주소
 - Graben 21, A-1010 Wien, Tel : (43 5) 0100-20111

6) 구화폐 실링화의 환전

- 예전 화폐인 오스트리아 실링화 환율(Austrian Shilling)은 국립 은행에서 무기한 환전 가능.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주소
 - Wien 9, Otto-Wagner-Platz 3, Postfach 61, A-1011 Wien
 - Tel : (43 1) 404 20-0
 - 홈페이지 : www.oenb.at
- 고정환율: AS 100 = 약 Euro 7.26

자료원: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 및 빈 무역관 보유 자료(2007년 12월 13일)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항공편

- 현재 빈에 직접 취항하는 한국 항공사는 없으나 유럽 노선이 거의 매일 한국으로 운항하며, 경유지는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쾰른 등이다. 2007년 3. 28부터 대한항공이 빈 노선 정기편(매주 수, 금, 일 주 3회)을 취항하고 있다.
- 기타 Swiss Air, Lufthansa, KLM, British Airway, Aeroflot 등의 항공사가 한국으로 취항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따라 경유지가 다르다.
- 요금: 항공사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같은 항공사라도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현저함. 왕복요금은 대개 약 Euro 700에서 1,000 사이.

선편

- 오스트리아는 내륙국으로서 바다를 접한 국제항구가 없다. 도나우(Donau, 영어로는 다뉴브) 강에는 독일 및 동구권과 연결되는 국제항구가 있으나 주로 화물 운송에 이용된다.

- 봄, 여름철에는 동구권으로 이어지는 유람여객선이 운영되고 있다.
- 한국에서 선편으로 보내진 화물은 주로 독일의 함부르크 또는 네델란드에서 육로 운송 수단으로 환적되어진다.

2) 국내교통

□ 택시

- 택시의 경우 거리에 다니는 빈 택시를 잡기는 어려우므로 택시 회사에 전화하거나, 대로 주변에 있는 택시전문 정차장(Taxi-Stand)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 대표적 비엔나 택시회사 전화번호: 40100, 601600, 313000, 1715, 814000
- 주소는 도로를 따라 순번체계로 나열되어 있으며 도시별로 지도가 잘 작성되어 있으므로 택시기사에게 정확한 주소만 알려주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
- 택시 기본 요금은 Euro 2 이며 빈 시내에는 대개 Euro8-16 정도로 이용할 수 있음.
- 전화로 택시를 부른 경우, 10Kg 이상의 짐이 있는 경우 그리고 22시 이후에 탑승한 경우에는 택시요금에 2 Euro의 할증료가 추가됨.

□ 대중교통수단

- 각 지역마다 시내 공공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전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러시아워에도 그리 붐비지 않음.

□ 대중교통수단 승차권 사용 방법

- 개찰기계에 승차권을 삽입하면 승차권에 탑승시간과 탑승노선이 기재되는데 개찰은 한번만 하면 됨.
- 1회용 승차권은 편도용이지만 同 승차권으로 목적지에 당도할 때까지 전차, 지하철, 버스 등 모든 대중 교통수단을 여러 번 바꿔 탈 수 있음. 단,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는 새로운 표로 다시 개찰해야 함.
- 가끔 검표원이 탑승하여 승차권의 개찰 여부를 조사하며 무임승차 또는 개찰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euro 45의 벌금을 물어야 함.

□ 대중교통수단 승차권 구입 방법

- 전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이나 Tabak이라고 쓴 상점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음. 동 승차권은 구입한 도시 내에서만 유효함.
- 1회용 승차권은 비엔나의 경우 전차, 버스 안에서도 동전자동판매기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나 예매(Euro 1.6) 보다 비싼 Euro 1.8가 필요.
 - 1회용 승차권은 예매의 경우 4매, 8매 묶음으로 판매함.

- 이외에 24시간용, 48시간용, 72시간용, 8일권, 1주일권, 1개월권 등이 있는데 가격 및 효용면에서 1회용 승차권은 여타 승차권에 비해 불리함.

3) 국제통신

□ 현지 공중전화 이용법

- 지하철 역과 시내 곳곳에 공중전화가 있음. 공중전화는 동전 투입식과 카드식 2가지가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있음.
- 동전 투입식의 경우 Euro Cent 동전을 해당 투입구에 투입.
- 전화카드는 시내의 Tabak이라고 쓰여진 가게나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Euro 10, 20의 카드가 있음.

□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통화방법

- 0082 + 한국의 지역번호(제일 앞자리의 0은 제외) + 해당 전화번호
 - 현지에서 한국으로 수신자부담 통화, 0800 200 208를 선택한 후, 0번을 누르면 교환원이 나온다. 교환원에게 전화번호 및 통화할 사람을 전달

□ 한국에서 현지로의 통화방법

- 001 - 43 - 지역번호 - 해당 전화번호
 - 지역번호의 경우 국내지역번호의 제일 앞자리의 0은 제외함. 수도 번으로 전화할 경우 1 만 돌리면 됨. 예) 001 - 43 - 1 - 587 38 76 (비인 무역관)

□ 전화요금

- 전화: 약 550만 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송수신상태 양호.
- 시내통화료 분당 30 Cent
- 시외통화료
 - 100 km 이내 분당 40 Cent(월-금 8시부터 18시), 30 Cent (이외 시간)
 - 100 km 이상 분당 60 cent(월-금, 8-18시), 40 Cent(이외 시간)
- 핸드폰: 2007년 12월 기준 약 880만대

국제전화 통화료 기준

(단위: EUR / 분)

지역	월- 금, 8 - 18시	이외 시간
1지역: 대부분의 유럽지역	0.4	0.3
2지역: 북미지역(알래스카 제외)	0.62	0.48
3지역: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1.06	0.7
4지역: 중국, 베트남, 북한 등	1.46	1.14

주: 2007년 12월 기준

- 개인전화를 이용할 경우, 공중전화요금에 20%에 소비세가 가산된 금액이 실제 전화 요금이 됨.
- 호텔에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호텔자체의 사용료가 공중전화 사용료의 50%에서 100%까지 가산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식당이나 기타 업소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업소자체의 할증료가 부가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팩스: 현재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약 4십만 대 정도로 추정됨. 팩스요금은 전화 요금과 동일.

4) 우편 제도

□ 일반 우편 제도

-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우편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 예를 들어 빈 시내의 경우 빠르면 편지를 부친 다음 날 수신인이 받아볼 수 있다.
- 보통 우체국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여는데, 우체국 별로 점심시간에도 문을 여는 지정,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지정 등이 간혹 있다. 각 지정별 우체국 개장 시간은 오스트리아 우체국 홈페이지의 <http://app.post.at/postfilialen> 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빈 남부 및 서부역에 위치한 기차역의 우체국은 연중 무휴로 저녁 10시까지 문을 연다.
- 오스트리아 국내 및 EU 국가 내의 경우 기본 요금이 0.55Euro이고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 국제 우편 요금의 경우 편지, 소포, EMS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국가 및 종류별 상세 요금은 <http://www.post.at/Tarifrechner> 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 예) 한국(Korea Rep 선택)으로 1kg의 소포를 EMS로 보낼 경우 49.82Euro이다.

□ 특사 우편 제도

- 오스트리아에는 Fedex, DHL 등의 국제 특사 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 DHL Express (Austria) GmbH
 - 주소 : Viaduktstrasse 20, A-2353 Guntramsdorf
 - Tel : +43 820 55 05 05 / Fax : +43 316 40 11 11-4(항공), +43 732 37 35 37(육상)
 - 홈페이지 : <http://www.dhl.at/publish/at/de.high.html>
 - 이메일 : dhl@at.dhl.com
- Fedex(Federal Express GmbH)
 - 주소 : Cargo Nord, Geb. 7, A-1300 Wien
 - Tel : +43 1 7007 32257 / Fax : +43 1 7007 32158
 - 홈페이지 : <http://www.fedex.com/at/>
 - 이메일 : billat@fedex.com

자료원: 빈우역관 보유 자료 및 Telecom Austria, 오스트리아 우체국 제공 자료 종합(2007.12.13)

사. 호텔/식당

1) 호텔

□ 호텔등급

- 호텔의 경우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
 - 특급 호텔의 경우 별 다섯 개로 표시. 별의 숫자가 적을수록 등급이 낮아짐.
 - 보통 별3개까지가 호텔이며 2개 이하는 펜지온(Pension)이라고 부름.
- 예약시 주의 사항
 - 봄/여름 성수기 철에는 호텔 찾기가 매우 힘이 든다. 적어도 1개월 전에는 호텔을 예약해 두도록 한다.
 - 아울러 국제학술대회가 개최 될 때에도 호텔 찾기가 힘드니 주의 요망.

□ 호텔 요금

- 요금은 시즌별로 차이가 있음.
- 특급 호텔 싱글룸 요금은 대개 Euro 150 - 300 수준이며, 1급 호텔의 경우 Euro 100 - 160 정도, 2급 호텔의 경우 Euro 70 - 120 수준. 3 - 4급 호텔은 Euro 35 - 80 정도

□ 호텔 선정

- 현지에서의 호텔 예약은 공항/역이나 시내의 여행안내소(Tourist Information)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성수기에는 현지 한국여행사를 통하여 방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임.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약하는 것보다 현지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가격이 약 10% 저렴함
- 다뉴브 여행사
 - 사장 : 김지수
 - 주소 : Viktoriagasse 7, A-1150 Wien
 - 전화 : (43 1) 892 3571 / FAX : (43 1) 892 3580
- Vienna Holidays
 - 사장 : 조성민
 - 주소 : Neubaugurtel 4, A-1070 Wien, Austria
 - 전화 : +43 (1) 522 1234-0 / FAX : +43 (1) 522 1234-5
- 호텔명 : Hotel Marriott
 - 등급 : 특급
 - 주소 : Parkring12a, A-1010 Wien, AUSTRIA
 - 전화 : (43 1) 515 180 / Fax : (43 1) 515186510
 - 가격 : 싱글/더블 요금에 차이가 없음. 약 Euro 260
 - 비고 : 시내중심가에 위치, 비즈니스센터가 잘 완비되어 있고 시설이 매우 현대적임.

- 호텔명 : Astro Suite Hotel
 - 등급 : 1급
 - 주소 : Mariahilferstr. 32-34, A-1060 Wien, AUSTRIA
 - 전화 : (43 1) 52 1720 / Fax : (43 1) 521 7215
 - 가격 : 싱글 Euro 100, 더블 Euro 130
 - 비고 :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며 더블룸의 경우 간이부엌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호텔명 : Hotel Anatol
 - 등급 : 1급
 - 주소 : Webgasse26, A-1060 Wien, AUSTRIA
 - 전화 : (43 1) 59 9960 / Fax : (43 1) 599 9655
 - 가격 : 싱글 Euro 100, 더블 Euro 130
 - 비고 : 시내중심가에 위치하며 다뉴브 여행을 통할 경우 할인 가능

2) 식당

□ 개요

많은 식당이 점심때에는 일반 차림표의 가격과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점심 식사를 판매한다. 저렴한 점심식사 차림표(Mittagsmenu)는 대개 일반차림표의 맨 뒷부분에 있다.

오스트리아 식당은 도처에 있으며, 대개 식당 앞에 메뉴(가격명시)가 게시되어 있다. 중국 식당도 빈에만 약 200여 곳이 있는데, 중국식당의 식사 가격은 대개 일인분에 Euro 7-10 (중급 식당 기준)이다.

□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요리

- 수프
 - 레버크노델 수페; Leberkoedel Suppe, 소 간으로 만든 완자를 넣은 쇠고기국
 - 플라이쉬 슈트루델 수페; Fleischstrudel Suppe, 오스트리아식 쇠고기 만두를 넣은 스프

- 정식
 - 굴라쉬; Gulasch, 오스트리아식 스투(찜 요리)
 - 슈텔제; Stelze, 훈제한 돼지 넓적다리
 - 타펠슈피츠; Tafelspitz, 소의 허벅지살을 백포도주로 삶은 것
 - 썬비벨 로스트브라텐; Zwiebel-Rostbraten, 튀긴 양파를 곁들인 쇠고기 구이
 - 비너 슈니첼; Wiener Schnitzel; 송아지 고기 커틀릿

- 후식
 - 아이스 마릴렌크노들; Eis Marillenknoedel, 살구 아이스크림
 - 모온 슈트르델; Mohnstrudel, 양귀비를 넣어 만든 케이크
 - 자크토르테; Sachrtorte, 초콜릿으로 만든 케이크

□ 주요 오스트리아 식당

- Piaristenkeller
 - 특색: 중세풍의 고급식당으로 옛날 와인저장소를 개조하여 식당으로 만든 곳이다. 오후 7시 반부터 오스트리아 전통악기인 시터(Citer, 하프와 기타의 중간형태 악기) 연주가 있어서 매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가격
 - 전식: 약 Euro 5 - 9
 - 정식: 약 Euro 13 - 25
 - 후식: 약 Euro 4 - 9
 - 주소: Piaristen-gasse 45, A-1080 Wien
 - 전화: 405 9152 0 or 406 2474 Fax: 406 4173

- Griechenbeisl
 - 특색: 비엔나 최고(最古)의 식당으로 5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함. 하이든, 모짜르트, 베토벤 등 유명인들이 식사하고 벽에 사인한 방이 있다.
 - 가격
 - 전식: 약 Euro 5 - 8, 정식: 약 Euro 11 - 23, 후식: 약 Euro 4 - 8
 - 주소: Fleischmarkt 11, A-1010 Wien
 - 전화: 533 1941 또는 533 1977 0

- Steirereck
 - 특색: 귀족적 분위기의 고급식당, 각종 오스트리아 전통음식을 즐길 수 있다.
 - 가격
 - 전식 : 약 Euro 15 - 25, 정식 : 약 Euro 25 - 50, 후식 : 약 Euro 10 - 25
 - 주소 : Rasumofsky gasse 2, A-1010 Wien
 - 전화 : 713 3168 0 or 713 5168 0

- Plachutta
 - 특색 : 오스트리아 전통 쇠고기 요리 전문점. 양질의 소고기를 계약 목축업자로부터 직접 구매.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식당이다.
 - 가격
 - 전식 : 약 Euro 6 - 12, 정식 : 약 Euro 14 - 25, 후식 : 약 Euro 6 - 12
 - 주소 : Wollzeille 38, A-1010 Wien
 - 전화 : 515 1577

- Strand Café
 - 특색 : 강변경치를 즐기면서 식사할 수 있다. 돼지갈비 전문요리점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현지식 갈비요리 라고 할 수 있다. 버드와이저와 함께 더욱 운치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가격
 - 전식 : 약 Euro 4 - 6, 정식 : 약 Euro 8 - 16, 후식 : 약 Euro 4 - 6
 - 주소 : Florian Berndl Gasse 20, A-1220 Wien
 - 전화 : 203 6747

□ 햇 포도주 전문 식당가

- 올해 나온 햇포도주와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인 돼지 넓적다리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오스트리아의 서민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일인분 식사가 가격은 대개 약 Euro 10 - 20 정도이다.
- 그린칭(Grinzing, 19구에 위치)지역과 Neustift am Walde 지역에 다수에 햇포도주 전문 식당들이 있다. 그린칭 지역 식당들은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며, 오스트리아인들이 애용하는 고급 햇포도주 전문 식당들은 Neustift am Walde 지역에 많다.

□ 한국 식당(한식과 일식이 나눔)

한식 가격은 대개 Euro 9-18, 일식 가격은 대개 Euro 10 - 20 정도이다(가나다 순).

- 부산 Busan
 - Reinprechsdorfstr.57, A-1050 (Tel : 544-3644)
- 유 Yoo
 - Stumpfergasse 27, A-1060 (Tel : 597-2879)
- 한일 Hanil
 - Gumpendorferstrasse 14, A-1060 (Tel : 587-7941)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아. 관공서 관행

1) 대민 업무 시간

대민업무의 경우 대개 평일(월 - 금) 오전 8시에서 오후 12 - 13시 정도까지 업무를 보며, 목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만 대민업무를 보는 관공서도 많다. 부서마다 대민업무시간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업무시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2) 전화문의

전화 문의에 친절히 응하는 편이지만 영어로 대화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화를 하기 전 정확한 업무용건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일처리 원칙 및 소요기간

일처리는 원칙을 고집하여 다소 능동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오스트리아인들 자신들도 오스트리아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매우 늦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게 되면 대기실이 있으며 본인에게 해당부서에 가면 번호표가 있는데 그곳에서 먼저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번호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은 예사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4) 관공서 방문시 유의 사항

관공서 직원들은 외국인 육체 근로자들에 대해 고자세이므로 관공서를 방문 할 때는 반드시 넥타이와 양복을 착용하여 외국인 육체 근로자와 차별화하는 것이 좋다. (항목 국민 참조)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2007년 12월 13일)

자. 공휴일

1) 개요

각 주별로 정해진 공휴일은 없으며, 전국공통으로 정해진 공휴일이 있을 뿐이다.

2) 매년 날짜변동 휴일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서 가톨릭의 축일은 모두 휴일로 하고 있는데, 부활절, 예수승천일, 성령강림절, 성체축일은 매년 변동된다. 그 이유는 이 휴일들의 날짜 계산이 기독교 성경 복음서에 서술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음력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3성왕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은 2세기 이후 로마의 태양력을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2007년 오스트리아의 공휴일 일정

공휴일명	날 짜 계 산	2007년 날짜	요일
신 년	매년 1월1일	1.01	월
3 성 왕 절	매년 1월6일	1.06	토
부 활 절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4.08/09	일/월
노 동 절	매년 5월1일	5.01	화
예수승천일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17	목
성령강림절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27/28	일/월
성체 축일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6.07	목
성모승천일	매년 8월15일	8.15	수
국 경 일	매년 10월26일	10.26	금
성자의 날	매년 11월1일	11.01	목
성모수태일	매년 12월8일	12.08	토
크리스마스	(12월24일 오후부터 25일)	12.24/25	월/화
성스테판의 날	매년 12월26일	12.26	수

2008년 오스트리아의 공휴일 일정

공휴일명	날 짜 계 산	2008년 날짜	요일
신 년	매년 1월1일	1.01	화
3 성 왕 절	매년 1월6일	1.06	일
부 활 절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3.23/24	일/월
노 동 절	매년 5월1일	5.01	목
예수승천일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01	목
성령강림절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11/12	일/월
성체 축일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22	목
성모승천일	매년 8월15일	8.15	금
국 경 일	매년 10월26일	10.26	일
성자의 날	매년 11월1일	11.01	토
성모수태일	매년 12월8일	12.08	금
크리스마스	(12월24일 오후부터 25일)	12.24/25	수/목
성스테판의 날	매년 12월26일	12.26	금

2009년 오스트리아의 공휴일 일정

공휴일명	날 짜 계 산	2009년 날짜	요일
신년	매년 1월1일	1.01	목
3성왕절	매년 1월6일	1.06	화
부활절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4.12/13	일/월
노동절	매년 5월1일	5.01	금
예수승천일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21	목
성령강림절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31/6.01	일/월
성체 축일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6.11	목
성모승천일	매년 8월15일	8.15	토
국경일	매년 10월26일	10.26	월
성자의 날	매년 11월1일	11.01	일
성모수태일	매년 12월8일	12.08	화
크리스마스	(12월24일 오후부터 25일)	12.24/25	목/금
성스테판의 날	매년 12월26일	12.26	토

3) 출장 지양시기

□ 휴가철 및 방학

오스트리아의 법정 휴가는 4주나 되기 때문에 일년간 여러 번에 걸쳐 휴가를 나누어 가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휴가철에는 정상 업무를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주요한 휴가철은 부활절 전후(대개 4월경), 여름휴가철(7월, 8월, 9월 중순까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후(12월 20일부터 1월 초순까지)이다. 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각 주 별로 에너지절약 방학이 있는데 이때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이 시기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 요일별 주의 사항

오스트리아의 근무시간은 월 - 금요일까지 이므로 토요일은 업무 접촉이 불가능하다. 또한 금요일도 오전만 근무하는 직장도 많고 금요일 약속을 피하려는 오스트리아인들이 많으므로 금요일 역시 비즈니스 시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샌드위치 휴일인 경우도 업무를 보지 않는 회사가 많으므로 상기한 연별 공휴일을 참고하여 출장일정을 짜는 것이 좋다.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2007년 12월 13일)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의복

봄, 가을로는 한국과 비슷한 날씨이므로 대개는 이에 맞추어 복장을 준비하면 된다. 드문 경우이지만 5월초에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10월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봄/가을 여행시에는 겨울 옷을 한벌쯤 예비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비가 자주 오니 우산은 꼭 준비해야 한다.

여름 날씨는 한국만큼은 덥지 않으며 습도도 그리 높지 않다. 가끔 비가 오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여름에 여행하더라도 가을 옷 한 벌쯤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겨울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다(월별 자세한 내용은 기후 항목에 기술되어 있으니 참조바람).

2) 전기규격

220 Volt 50 MHZ, 플러그는 중부유럽방식(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이다. 한국기기를 오스트리아에서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플러그 때문에 Adapter가 필요하다. Adapter는 대형 가전제품유통점(Niedermayer, Saturn)등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약 Euro 10 수준이다.

3) 치안

주야간 모두 매우 양호하다. 스위스와 더불어 서유럽 국가 중에 가장 안정된 편에 속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즉 시장이나 박람회에는 간혹 동유럽이나 이탈리아에서 원정 나온 소매치기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강력 사건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4) 택시 및 대중교통 수단

택시 및 대중 교통 수단의 이용 방법은 교통/통신 항목 참조.

5) 비상 및 응급대책

- 경 찰: 133
- 화 재: 122
- 응급환자: 144

144에 전화하면 앰블란스가 오며 고속도로에서 응급사고 발생 시에는 내무부 소속 앰블란스-헬리콥터(전화: 1717)를 부를 수도 있으나 일반 앰블란스의 경우 약 Euro 250, 항공 앰블란스의 경우 약 Euro 700을 추후에 지불해야 한다.

현지 의료비는 무척 비싼 편이며 간단한 진찰의 경우에도 미화 50~100 불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비상 의료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이주정착가이드의 "비상의료 대책" 부분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팁 관행

오스트리아의 음식점에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의 월급을 책정할 때 평균 매상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팁의 액수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정급을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음식점에서의 팁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웨이터의 서비스에 대해 손님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관행은 오스트리아 식당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운영되는 한국 교포들의 식당도 마찬가지이니 한국식당에서 식사하더라도 팁을 주는 것이 좋다. 팁의 수준은 음식가격의 약 10%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상례이다.

택시의 경우에는 대개 요금 수준과는 상관 없이 Euro 0.5~1 정도면 족하다. 다만 단거리를 택시로 이용한 경우, 즉 요금이 Euro 4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Euro 1~1.5 정도를 준다. 이는 오스트리아 택시들이 모두 Call 택시여서 대기 순서에 따라 손님을 배정받기 때문에 단거리 운행을 한 경우에는 또다시 장시간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는 팁이다.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준 경우 여행용 가방 1개당 약 Euro 1 정도의 팁을 주면 된다. 방 청소를 해주는 경우에도 Euro 1 정도를 머리맡 탁상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둔다.

7) 식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경우에는 알프스 약수가 수돗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식수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는데 다만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와 부르겐란트 주를 여행할 경우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곳은 알프스 지역이 아니어서 강물을 정수하여 사용하는데 석회가 많이 섞여 있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식당(한국 식당 포함)에서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음료수를 주문하는 것이 예의이다. 음료수 가격을 감안하여 음식값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8) 이발소/미장원

이발소나 미장원의 구분 없이 남녀 공통으로 Friseur라는 곳에서 이발을 한다. 이발 후 머리 감는 데는 추가 요금이 붙는다. 팁을 주는 것이 관행인데 Euro 1-2 정도 지불하면 된다.

9) 구두닦이

구두닦이는 특급 호텔에서만 볼 수 있으며 요금도 비싸다. 슈퍼마켓에서 구두약과 솔을 구입하여 스스로 닦는 방법밖에 없다.

10) 물가

멜론,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 과일은 서울보다 훨씬 싼 편이지만 대부분의 여타 물품은 서울보다 약 1.2배 정도 비싸다.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카. 유용한 연락처

1) 현지 비상연락처 전화번호

- 경 찰: 133
- 응급 환자: 144
- 화 재: 122
- 내무부 소속 항공 앰블런스: 1717
- 산악 조난 사고: 140

2) 현지 한국기관

□ 대사관

- 주소: Gregor-Mandelstr.25, A-1180 Wien
- 전화: (43 1) 478 1991-0
- Fax : (43 1) 478 1013

대사관 영사과

- 주소 : Gregor-Mandelstr.25, A-1180 Wien
- 전화 : (43 1) 478 1991-65
- Fax : (43 1) 478 1013

3) 현지 관공서

경제부

- 주소 : Schubertring 1, A-1011 Wien
- 전화 : (43 1) 71100-0
- 홈페이지 : www.bmwa.gv.at

법무부

- 주소 : Museumstrasse 7, A-1070 Wien
- 전화 : (43 1) 521520 / Fax : (43 1) 52152 2828
- 홈페이지 : www.bmj.gv.at
- 내용설명 : 여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관련 정보

4) 경제단체

연방상공회의소(Bundes Wirtschaftskammer)

- 오스트리아 상공인 총연합, 오스트리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용자 연합
- 주소 : Wiedner Hauptstrasse 63, A-1045 Wien
- 홈페이지 : <http://portal.wko.at>
- 전화 : (43 5) 90 900

소비자보호연맹(Verein fuer Konsumenteninformation)

- 소비자 계몽 및 제품의 품질 테스트 등을 주로 하며, 매월 월간지 발행
- 주소 : Mariahilferstrasse 81, A-1060 Wien
- 홈페이지 : <http://www.konsument.at>
- E-Mail : konsument@vki.or.at
- 전화 : (43 1) 588 77-0

오스트리아 산업연맹(Vereinigung Oesterreichischer Industrieller)

- 대규모 산업체의 이익단체로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며 산업정책 입안건의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 주소 : Schwarzenbergplatz 4, A-1030 Wien
- 홈페이지 : www.voei.at
- 전화 : (43 1) 711 35-0

5) 투자진흥기관

Austrian Business Agency(ABA)

- 본사주소 : Opernring 3, A-1010 Wien, Austria
- 전화 : (43-1) 588-580
- E-Mail : office@aba.gv.at
- 홈페이지 : www.aba.gv.at
- 팩스 : (43-1) 586-8659

한편 ABA는 미국 뉴욕 및 일본 동경에 OFFICE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사무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ABA 뉴욕 사무소

- 주소 : 120 West 45th Street, 9th Floor, New York, 10036
- 전화 : (1-212) 398-1221
- FAX : (1-212) 398-1511

ABA 동경 사무소

- 주소 : 3-13-3 Motoazabu, Minato-ku, Tokyo 106-8691
- 전화 : (81-3) 3796-1331 / FAX : (81-3) 3796-1332

Vienna Business Agency (VBA)

- 주소 : Ebendorferstrasse 2, A-1010 Wien
- 전화 : (43 1) 4000 86187 / Fax : (43 1) 4000 86188
- 홈페이지 : <http://www.wvff.gv.at/wvff>

6) 오스트리아 관련 데이터뱅크, 인터넷 사이트

주한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지부, 무역자료

- 홈페이지 : <http://www.austriantrade.org/korea/austria-in-korea/ko>
- 내용설명: 수출입 인콰이어리 자료 제공(한글 또는 영문)

오스트리아 환경기술 데이터뱅크

- www.umwelttechnik.at
- 오스트리아 환경기술보유 기업 명단 및 기술 내용

오스트리아 기업 명부

- www.compnet.at
- 오스트리아 기업별 매출액, 창립연도, 회사형태, 종업원수, 취급 또는 제조 품목 등 각종 정보

□ 오스트리아 박람회 일정

- www.messe.at
- 오스트리아 박람회 일정

□ 오스트리아 법률

- <http://www.ris.bka.gv.at/auswahl/>
- 오스트리아의 각종 법률 데이터뱅크

□ 오스트리아 일반 정보

- <http://www.austriantrade.org/korea/austria-in-korea/ko>
- 간략한 역사, 경제, 정치, 기후 등 일반 정보

□ 오스트리아 연합통신 (A.P.A.)

- <http://www.apa.at>
- 각종 일간시사 정보

□ 오스트리아의 옐로우페이지 (Yellow Pages)

- www.herold.at
- 오스트리아 전국 전자전화번호부(electro Telephone-book)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타. 특산품

1) 광학제품

- 오스트리아 광학기술은 세계 최첨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인공위성용 카메라 렌즈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위탁,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 유명 안경 브랜드: ZEISS
- 망원경 및 현미경 브랜드: SWAROVSKI

2) 크리스탈

- 오스트리아는 황정 당시부터 크리스탈 생산지로 유명했으며, 특히 SWAROVSKI(스바로브스키)사의 제품은 현재에도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간주된다.

3) 특산 의류

- 양모를 특수 가공 처리한 'LODEN'(직물의 이름)제품은 보온성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 제품은 특히 'GEIGER(가이거)'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4) 여성용 장신구

-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는 특이하게 칠보공예가 발달했다. 특히 MICHAELA FRAY사의 여성용 장신구(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는 전통적인 문양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화시킨 제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5) 전통 도자기제품

- 오스트리아 전통 도자기 공예품, 도자기 인형 등이 유명한데 특히 황정 당시 황궁에 납품하던 AU PORZELLAN社の 제품이 최상으로 인정된다.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파. 관광명소

1) 비엔나 시의 주요 관광지

□ 쉐브룬 궁전(Schloss Schoenbrunn)

-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궁전이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의 명으로 1744-49년에 건축되었으며, 현관건물, 중앙건물, 글로리에테(對프러시아 전쟁 승리 기념탑), 아름다운 정원과 숲(총 18km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궁전 내에는 로코코 양식으로 장식된 1,441개의 방이 있는데 현재 41개만이 일반 공개되고 있음. '백만금의 방'은 붉은 장미 목재와 금세공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대무도 회장'은 현재 국민 접대시 사용함. '거울의 방'은 모차르트가 6세 때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 앞에서 연주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며, 후에 모차르트가 마리 앙투아네트 공주에게 청혼한 곳으로도 잘 알려짐.

□ 벨베데레 궁전(Schloss Belvedere)

- 오스만 터키와의 전쟁에서 빈을 구한 영웅, 오이겐 왕공의 여름 별궁이다. 상궁(Oberes Belvedere)과 하궁(Unteres Belvedere)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분수와 바로크풍의 정원이 펼쳐져 있다. 현재 상궁은 현대 미술관으로, 하궁은 고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오이겐공이 죽은 후 이 궁전은 합스부르크가의 소유가 되었으며 사라예보에서 암살 당함으로써 제1차 세계 대전의 빌미가 된 페르디난드 황태자가 거주했다.

□ 슈테판 성당(Stephanskirche)

- 오스트리아 최고의 고딕양식 건축물로 '빈의 상징', '빈의 혼'으로 불린다.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137m의 첨탑이 솟아있고,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안톤 필그림이 조각한 국보급의 설교단, 그 오른쪽 뒤에는 프리드리히 3세의 무덤이 있음.
- 북탑 입구 옆에 있는 지하 묘지 카타콤베에는 오스트리아 역대 황제의 화장한 유골과 내장이 분리되어 수납된 향아리와 흑사병으로 죽은 2,000여 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음.

- 남탑은 343개의 계단을 통해 70m 높이의 테라스까지 올라갈 수 있음. 또 북탑의 종류가 있는 60.6m 높이의 테라스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음.

□ 국립 오페라극장(Staatsoper)

- 1869년 궁정 오페라극장으로 세워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는 로코코 양식이다. 파리, 밀라노극장과 더불어 유럽 3대 오페라극장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공연일수가 많다(7, 8월 휴관).

□ 케른트너 거리(Kaerntnerstrasse)

- 국립 오페라극장에서 슈테판 광장에 이르는 보행자 거리이다. 빈시(市)의 중심가이며 양쪽에 고급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쇼핑가로서 한국의 명동거리에 해당된다.

□ 왕궁(Hofburg)

-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성은 16-18세기에 세워진 Alteburg와 19-20세기에 세워진 Neuburg로 이루어져있는데 Alteburg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Neueburg(새 왕궁)에는 민속박물관 및 왕가의 무기와 악성들의 피아노를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
- 또한 왕궁에서는 스페인식 승마학교, 주일 미사 때마다 빈 소년합창단이 성가를 부르는 왕궁 예배당, 신성 로마 제국의 보물을 전시하고 있는 보석 박물관(Schatzkammer)도 볼 수 있다(월요일 휴관).

□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

- 유럽 굴지의 미술관으로, 역대 합스부르크 왕가의 방대한 수집품인 미술품 약 7,000 점을 전시하고 있다.

□ 자연사 박물관(Naturhistorisches Museum)

-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선사 시대부터의 동, 식, 광물 및 인류학에 관한 많은史料 및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음.

□ 국회의사당(Parliament)

- 고대 그리스 신전 양식을 본떠 지은 장려한 건물로 1883년에 건축, 1918년에 국회가 개원 되었음.

□ 시립공원(Startpark)

- 1862년에 개원한 빈 시민의 휴식처로서 영국의 풍경을 본뜬 연못과 분수, 바이올린을 켜는 요한스트라우스 동상, 슈베르트, 부르크너 등 12명의 기념동상이 있음. 인접한 쿠어살롱 (Kursalon)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빈 왈츠무도회'가 개최됨.

□ 시청사(Rathaus)

- 네오고딕 양식의 건물로 1883년에 건축. 98m 높이의 탑 위에 '시청사의 사나이 (Rathausman)'가 있고, 하절기에는 앞뜰에서 야외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함.

□ 도나우강(Donau, 영어로는 다뉴브)

-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곡 중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도나우강'의 배경이 된 빈을 관통하며 흐르는 강. 강 가운데 있는 섬(Donauinsel)에는 수영 시설과 식당가, 술집 등이 집결해 있으며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음. 도나우강의 원줄기인 알테도나우(Alte Donau)에서는 여름철에 뱃놀이를 즐길 수 있음.

□ 비인 숲(Wienerwald)

- 비인 숲은 위치상으로 알프스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약 80km²의 광대한 숲으로서 크게 북부의 숲과 남서부의 숲으로 나뉜다. 북부의 숲에는 베토벤과 인연이 깊은 하일리겐슈타트시와 도나우강이 내려다보이는 경승지 칼렌베르그, 포도밭이 많은 그린징 등이 있으며, 특히 그린징에는 소위 '호이리게'(금년산 새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선술집이 많다. 남서부의 숲에는 슈베르트와 인연이 있는 뢰들링, 온천지 바덴, 수도원으로 유명한 하일리겐크로이츠, 영화 '덧없는 사랑'의 무대인 마이어링 등이 있음.

2) 기타 지역

□ 인스부르크(Innsbruck)

- 도시 전체가 알프스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세풍의 오래된 건물이 많아 동화의 나라를 연상시키는 서부오스트리아의 도시.

□ 잘츠부르크(Salzburg)

- 한국에서도 유명한 할리우드 뮤지컬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의 배경으로 유명한 중부 오스트리아의 도시. 매년 부활절에 개최되는 음악축제로도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

□ 키츠뷔엘(Kitzbuehel)

- 덴마크, 영국 등 유럽왕실을 비롯하여 유럽의 명사들이 즐겨 찾는 스키관광지.

□ 볼프강제에(Wofgangsee)

- 볼프강 호수를 중심으로 한 휴양지로 코올 전(前) 독일 총리가 30여 년째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함.

□ 닥슈타인(Dachstein)

- 알프스 산맥의 줄기로 산악관광지로 유명하며 유럽 최대의 얼음 동굴이 있음.

자료원: 오스트리아 관광 소개 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